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세계 곳곳 발딛는 걸음마다
부처님 자비의 향이 가득"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0월 19일) · 주간

제1022호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사물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본 버릇을 고쳐라.
활짝 열린 눈에는 티끌이 없다.

조계종 성역화 본궤도 오르나

법난기념관 건립 200억원 등 내년 보조금 493억원 확정

조계종이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 보조금이 493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34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국고 예산 확정 결과를 종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 464억 1000만원과 문화재청으로부터 29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 200억원이다. 세부항목으로는 기념관 건립 · 설계비 등으로 195억원이 책정됐고,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배정됐다.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조계사 일대에 건립될 10.27법난기념관은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성역화 불사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고, 조계사 일대를 해원 ·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기획실 3일 보고

올해보다 234억원 증액

템플스테이 예산 205억원

문화재 관련 예산 29억원

시설 불사 활성화 기대

추진위 총도감 지현 스님은 본지 1020호 칼럼을 통해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통해 세계인들이 웃고 행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일신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성역화 사업 중의 하나인 10.27법난 교육기념관은 현대 건축 기법을 통해 해원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조계종의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템플스테이 운영비는 동결돼 지난해와 같은 205억 원이 배정됐으며, 내년 10월 8~11일 개최할 예정인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 9억 원의 예산이, 동국대가 108주년 기념관 내에 건립할 예정인 '세계불교센터 건립'에는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9억원) △전통사찰 전수조사(10억)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출판'(2억 5000만원) △산사문화예술제(6억원) △호국불교의승군 기념관 건립(3억원) △청소년 마음등불(6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9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대부분 불교문화재 전수 조사와 발굴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실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으로 8억원이, 2단계 사지조사 연구사업으로 11억원이 배정됐다. 또 중요사지(폐사지) 시발굴 조사 사업비로 2억원, 사찰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를 위해 5억 6000만원,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조계종 이외에도 종단과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정됐다. 광주 관등회 지원에는 2억원이 ,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사업에는 5억 원이 배정됐으며, 진각종은 진각문화국제체험관 건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편, 국회는 12월 2일 375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했다. 국회가 신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12년 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11월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수륙재를 개최했다. 사진은 광주전남불교영산회가 천도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 모습.

"세월호 희생 영가여, 모두 극락왕생하소서"

조계종, 11월 29일 팽목항서 세월호 수륙재 봉행

세월호 구호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불교계가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재를 개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대중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수륙재를 개최했다.

이날 수륙재는 조계종 세월호 구호활동 회향과 함께 열린 것으로 세월호 구호활동은 조계종 구호활동의 최장기간인 220여 일간 진행됐다.

이날 회향 수륙재에는 사회부장 정문 스님,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등 호남 교구본사 6개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대중,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단 본부장 법일 스님은 "전국에서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수륙재가 세월호 사건의 끝은 아니다. 진상규명과 침몰배의 인양과정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 팽목항=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계 최초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성된다

조계종복지재단 등 9곳 단체, 11월 27일 준비위 발족

불교계 최초 국제개발협력 협의체가 구축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경)을 중심으로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엔지오비유디, 백천문화재단, 아름다운 동행,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연우 등 9개 단체는 내년 2월 협의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와 공통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안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단체는 11월 2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축을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결성을 결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가 구축되면 사업지역 및 규모,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서 현지사업에 대한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불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개발 연구작업의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남은 기간 동안 협의회 명칭 및 회원단체 자격과 회칙안을 준비하고 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강화, 불교계의 신규활동가 발굴 및 양성 사업 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약 20여년. 현재는 약 30여개의 교계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 구축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물론 네트워크 형성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몇 개 단체가 모였지만 각자 사업에 전념하느라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체 구축 논의가 급진전 됐다. 지난 8월 태국 시민사회운동가 슐락 시바락사 박사 강연과 11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조직위를 공동 주최한 것도 추동력이 됐다. 한 개 단체가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사업인만큼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공동 영역에 있는 단체끼리 서로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없다면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한다해도 의미가 없다"며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동질성을 갖고 공동체 덕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 역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전체를 합해도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에 못 미치는 규모"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이티 긴급구호에서 함께 협력한 경험이 있고 전세계 불교 중 앞장서 국제개발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협력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들어가다

조계종, 6일 동안거 결제

전국 사찰과 선원이 동안거를 맞아 3개월 간의 수행 정진을 진행한다.

조계종은 12월 6일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일제히 3개월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전국 선원에서는 2200여 명의 수좌 스님이 방부를 들여 수행하며 일반 사찰 대중도 함께 정진하게 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결제를 맞아 수행납자의 정진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정진에 임하라"고 설했다.

또한 "향상의 진리를 알게 되면 향하의 진리도 알게 되고, 향하의 진리를 알면 향상의 진리도 알게 되는 것"이라며 "정진대중은 먼저 향상의 진리를 터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8면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추천

원로회의 3일 회의서 결의… 대종사 법계 품수 결정도



조계종의 계단을 책임지는 전계대화상에 원로의원 성우 스님(불교TV 대표이사 · 사진)이 추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고산 스님의 전계대화상 후임에 성우 스님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전계대화상은 계법을 전하는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원로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종정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전계대화상으로 추천된 성우 스님은 고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파계사에서 사미계, 1967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총림 율원을 수료했다. 제11, 12대 중앙종회의원과 파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TV 대표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원로의원 원경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계단위원 종진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동안 조계사가 이 시대 불교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구 중심의 책임행정이 자리잡고 승려복지 체계가 확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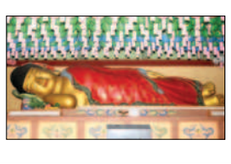
신성민 ·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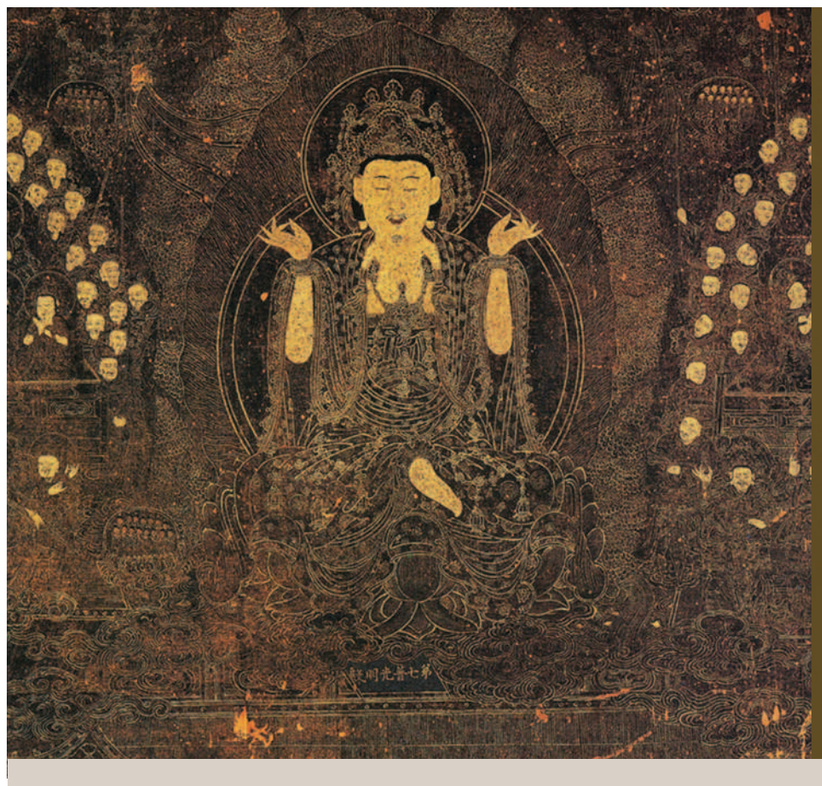
1022호 INDEX

시방세계 5
원효 체험관 준공 기념 수도사 사찰음식 향연



테마가 있는 사찰 12
와불이 있는 사찰 용인 와우정사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2014.12.22 (월)
회향 2015.01.19 (월)
장소 통도사 설법전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통도사 종무소 ☎ 055) 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 381-1288

"혼례 문화 변화, 불교계 힘 보태겠다"

자승 스님, 김희정 장관 예방서 저비용 결혼 정책 동참 강조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비용 결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불교계도 힘을 보탠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저비용 결혼 문화 조성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동참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관혼상제의 비용구조가 개선됐지만, 혼례는 아직도 고비용으로 치러져 많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결혼 비용을 낮추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추진하려 한다. 불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찰을 부처와 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스님들의 주례 재능기부가 이뤄진다면 저비용 결혼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화려함보다 소박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한자 '복(福)' 역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밭 하나가 있다'는 뜻이다. 소박함은 곧 행복이다"면서 "종단은 이용자의 종교와 상관없이 사찰과 산하 복지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비용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저비용 결혼 정책에 대한 불교계 동참을 요청했다.

"신도회 활성화, 교구를 중심으로"

12월 6~7일 중앙 · 교구신도회 임원 워크숍

신도법 개정 이후 중앙 · 교구 신도회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2월 6~7일 이틀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4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교구신도임원과 교계단체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의 종책특강 '신도 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민학기 종단 신도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신도조직 역량강화 특강 '종단 신도법 개정과 회칙 개정을 통한 신도조직의 활동역량 강화', 중앙신도회 사업 브리핑 및 참가단체별 상견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신도조직의 발전 과제' 주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민학기 위원장은 신도법 개정에 맞춰 신도조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도조직 활동역량 사례들을 소개했다. 민 위원장은 "교구신도회가 중심이 돼 활동해야 한다. 수원 용주사의 경우 5층짜리 교구신도회관 건물에 법당, 회의실, 강의실, 문화활동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행단체들에게 법회 장소로 제공하거나 신도들이 회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교구신도회간 합동법회를 통해 사찰 신도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주어사 복원 기도와 같이 교구별 특성 기도, 조선 왕릉 야단법석 등을 통해 신도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 나눔문화 캠페인 행복바라미의 활동보고도 이어졌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모금은 2014년 10월 22일 현재 1억 8천 여만원이 모연됐다. 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거리모금은 전년대비 25.4%가 증가했다. 불교계 신도포교 단체의 참여를 통한 종단 내부조직 결집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특강에서 "승가의 지도력은 재가불자의 지도력과 추종력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재가불자의 지도력은 수행 · 봉사 · 전문적 지도를 바탕으로 삼보의 원력자, 포교활동의 원력자, 사회발전의 쇄신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의 진정한 쇄신을 요구합니다"

불자모임 2차 선언…"송담 스님께 참회하려면 결제에 오시라"

"지금 같이 말만이 아닌,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통해 총무원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 불자들도 내부 자정을 다짐하면서 조계종의 자정과 혁신을 요구한다."

송담 스님 탈종 등 최근 종단 안팎에 문제에 대해 조계종의 자정을 요구하는 불자 선언이 발표됐다.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공동대표 우희종, 김종규, 김경호)은 12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총국 공원에서 '조계종 자정을 촉구하는 재가불자 2차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불자모임은 선언식 장소를 조계사 일주문 앞으로 정했으나, 일부 노년 신도들의 항의로 자리를 옮겼다.

불자모임의 2차 선언에 앞서 대표로 나선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종규(교단자정센터 원장 · 변호사), 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장)는 그간의 경과와 발표 취지에 대해 발언했다.

우희종 교수는 "한국불교의 선지식 송담 스님은 더 이상 종단 안에서 제대로 된 수행가풍을 세울 없어서 탈종했던 것"이라며 "종단의 잘못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었다면 방법은 많았다. 이번 동안거 결제에도 송담 스님은 대중 법문에 나설 것이다. 자승 스님께서 정말로 참회를 하겠다면 결제 법회에 인천 용화선원에 와서 직접 송담 스님을 만나시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이사장은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치문경훈〉을 반드시 배운다. 이 안에는 수행자가 지켜야할 덕목 등을 세세히 명시했다. 스님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종단이 이대로 가면 붕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정한 쇄신이 필요해 재가불자들이 나선 것"이라고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불자모임은 2차 공동선언을 통해 조계종의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요구하며 청정승가만을 외호할 것을 선언했다.

재가자들 총무원 앞서 선언식

"범계 행위자, 종법 맞게 처리

계파 해체 등 운영 혁신 요구"

향후 범계 행위 백서 발간 추진

일부 조계사 신도 제지해 '마찰'

불자모임은 선언문에서 "현재 조계종이 내세운 자성과 쇄신은 허구에 불과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도당을 형성하고 계파 야합을 통해 정치 권승들이 종단 운영을 주도하니 청정한 스님들은 외면하고 뜻 있는 불자들은 누구나 개탄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영향은 특정 사찰과 계파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화적, 구조적으로 조계종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한국불교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은 12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총국 공원에서 '조계종 자정을 촉구하는 재가불자 2차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선언 대표로 나선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율장과 종법에 의한 범계승들을 처리할 것을 비롯해 △계파 해체 △범계승들의 공직 사퇴 △사찰 재정, 국고보조금 투명 공개 △비구니 참종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종단의 자정과 혁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불자는 오로지 청정승가만을 외호한다 △승가의 자정과 혁신이 완성될 때까지 종단 자정불사 지속 △재가자부터 지계청정할 것을 다짐 △자비실천에 앞장설 것 등을 선언했다.

불자모임은 "종도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허울 좋은 겉치장으로 국가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만 몰두한다면 불자들은 서명이나 1인 시위를 포함해 해종 승려 명단 및 비리행위 공개, 보시거부운동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불자 모임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그간 범계와 비리 등을 정리하는 백서화 작업을 추진중이며, 12월 중순 경 변호사 불자회 '다르마 법우회' 주최로 3차 종단 자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내년 초에는 지도부를 정식으로 꾸려 현재 모임을 조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4일 각계 불자 165명이 동참해 시작한 '청정한 바른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은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 · 김희옥 · 조의연

4일 소견 발표… 총추위 후보자 선출

12월 16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

영상문화벨트 · 불교학 세계화 등

각 후보 학교 발전 공약 내놔

동국대 제18대 총장 후보자로 보광 스님, 김희옥 현 총장, 조의연 교수가 최종 선출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는 12월 4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제18대 총장 후보자 소견 발표회에 이어 후보자 선출투표를 진행했다. 제18대 총장 선출은 12월 16일 열리는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보광 스님 "교육형 학사 운영 추구"

첫 후보자로 소견발표에 나선 보광 스님은 '일심동행(一心同行)'을 주제로 한 학교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보광 스님은 "존중하는 총장, 화합하는 총장으로 먼저 동국대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5대 사학, 국내 대학 10위, 아시아 70위, 세계 400위 내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총장은 기금모연과 외연확대를 위해 밖으로 뛰고, 학교경영에는 전문성을 지닌 부총장 및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안 수립을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전2020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학교 운영방식에 있어 그동안의 기업형 운영에서 교육형 운영으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의연 교수 "동국대 브랜드 창출"

두 번째 후보로 나선 조의연 교수는 'Only One Dongguk!'을 캐치프레이즈로 교육 브랜드를 구축해갈 것을 강조했다.



보광 스님 김희옥 조의연

조 교수는 "대학은 사회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먼저 선도해야 한다"며 "대외평가기관 방향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되며 논문실적 중심의 업적평가를 지양하고, 창의적 융복합 지식을 갖춘 21세기 인재 육성의 교육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1세기 새 교육브랜드 '동국 대인' 프로젝트 시행 △산학협력, 지역협력 사업 중점육성 △현장 중심 공감 소통문화 확산 △건전한 재정운영 및 수익창출 구조 구축 △바이오메디 캠퍼스의 연구중심대학 방향 수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희옥 총장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마지막 소견 발표에 나선 김희옥 총장은 'Re-Start Plus'를 캐치프레이즈로 경쟁과 상생의 시대를 맞아 대학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소통과 화합 △선택과 집중 △자율과 책임의 경영원칙을 먼저 밝히며 "202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여러 핵심추진정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대학 학령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기부자 저변 확대, 충무로 영상센터 개발 및 뮤지컬 전용극장 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금 의존율을 60% 수준으로 낮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HK사업, 불교기록문화유산 사업 등 건학이념 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복수전공 의무화, 융합전공 지원, 의무인턴제도 등으로 취업률 제고와 역량개발프로그램 확대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 정준영 외 —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88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3672-7181 • 팩스 0505-7181 • 주문 02)3672-7181 • 다음카페 :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결사본부, 민관협력단체로 바꾸자”

3일 결사 진단 토론회…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총무원장 한명이 바뀌면 종단이 바뀌는가? 아니다. 우리 불자 모두가 쇄신해야 종단이, 그리고 불교가 바뀐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결사추진본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불교와 시민단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불교운동의 영역을 개척한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오는 12월 23일 1000일 기도정진 회향을 앞두고 ‘결사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결사 평가 심층 대중공사를 열었다.

이날 이상봉 결사본부 사무국장은 ‘결사추진본부 사업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결사본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총무원장 직속기구이자 종령기구’에서 ‘민관협력기관’으로 조직 위상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결사와 운동의 본래 취지는 종도들이 주인이 돼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대중들과 함께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데 뒷받침을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 ‘붓다로살자’ 운동과 ‘100인 대중공사’, ‘대한민국야단법석’ 등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논평자로 나선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도 그동안 결사추진본부가 발족한 쇄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추진본부의 활동이 대중의 외면을 받은데 기인했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주문했다.

대중공사 · 야단법석 통한 시민사회 동참 유도 계획

“실질적 쇄신 없다” 비판도

김 원장은 “백양사 도박사건을 계기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승풍진작을 위한 범계승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자의 사퇴 등의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며 “도박승 사건, 승려폭행사건, 부정선거 등이 이어지자 결사본부가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외면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12월 3일 1000일 기도정진 회향을 앞두고 결사진단 심층 대중공사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시민운동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법 스님은 불교계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동참하는 운동으로 결사운동이 전개돼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사회와 한국불교의 모든 구성원은 수십년간 이어온 공업으로 이어져 있다”며 “자신이 불교의 여러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외면하는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총무원장 한명을 바꾼다고, 또는 총무원을 바꾼다고 불교계가 바뀌는 않는다”며 “진정한 쇄신은 그 구성원 하나 하나가 쇄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이 모일때 불교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공사에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과, 결사총괄부장 덕산스님, 前 조계종 노동위원 혜조 스님과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봉 결사본부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포교, 물량보다 감성을 움직여야”

조계종 포교원, 제60차 포교종책 연찬회 개최

군 포교의 실상을 파악하고 군 포교와 대학생 포교를 연계해 청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4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군포교의 지향과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성’을 주제로 제60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서는 장성화 군종교구 기획실장이 ‘군포교와 대학생포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정우 군법사 중령이 ‘군 장교 포교의 중요성과 포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성화 기획실장은 “예전에는 지휘관들이 종교 행사 참여를 권유하고 강요까지 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인권적 차원에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종교적 관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도 종교행사 참석률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기획실장은 군 포교도 이제 양적인 포교에서 질적인 포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자료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포교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요새 관심이 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교리의 전달보다는 감동적인 동영상이나 감성을 움직이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밖에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를 위해서 장병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합동수련회나 법회를 열고 지역별 군 법회에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나은 기자

공동체 정신 회복, 종교에서 찾다

불교사회硏, 12월 3일 종교공동체 토론회 개최

금강 스님 “지역과 소통 필수”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경쟁논리에 의해 공동체 정신을 잃어온 현대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사회 속의 바람직한 종교공동체의 지향’을 주제로 종교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불교계서는 해남지역의 사찰공동체를 이룬 미황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NGO계의 인드라망 공동체, 가톨릭의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 종교공동체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해남땅끝마을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원동력을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에서 찾았다. 금강 스님은 “한문학당을 비롯해, 어르신노래자랑, 작은학교살리기 운동 등 사찰로서 신도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며 “그런 가운데 수행전통을 중심에 둔 종교본질을 잃지 않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윤교 신부는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사례를 통해 종교공동체가 경제 · 신행 분야에서 모두 자립구조를 유지하는데는 종교근원의 헌신이 있음을 강조하며, 종교공동체의 발전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쇄신의지가 있음을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경비원 대량해고 불자들이 나서 막자”

조계종 노동위, 호소문 발표

내년 1월 경비직 노동자 최저임금제 적용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위협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이례적으로 불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동위는 2012년 적용예정이었던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이 아파트 입주민의 반대로 연기된 적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경비원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불자 시민들의 이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해고 추산 경비원은 전국 25만명 가운데 5만명 가량. 만약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가 현실이 된다면 현재 24시간 맞교대에 택배업무,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화단관리 등 온갖 잡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비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생겼다.

노동위는 “아파트에서 대략 월평균 5천원 정도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해고없이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수 있다”며 불자들을 향해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 한잔 커피 값이면 경비노동자들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호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오대산 사고본 일제 침탈 확인 문서 월정사로

동국사, 3일 ‘사리탑묘찬앙회 취지문’ 월정사에 기증

실록 반출 경위 등 자세히 기록

본지 1019호 통해 최초로 공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일제 침탈을 재확인하는 문서로 11월 16일 본지(제1019호)에 최초 공개된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 취지문’과 ‘발기인 명단’이 오대산 월정사에 기증됐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12월 3일 동국사를 방문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 취지문’ 등을 기증했다.

세로27.5cm 가로 79cm의 갱지에 인쇄된 이 문서는 종걸 스님이 2012년 일본 경매에서 낙찰받아 보관해오던 것이다.

취지서에는 오대산 월정사의 창건 유래 및 중수과정이 상세히 기록돼있으며, 특히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서명이 담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일제 침탈 경위가 상세히 기술돼 있어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종걸 스님은 “2012년 겨울 석전 박한영 스님 자료를 수집하던 중 오대산 월정사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사진 오른쪽)은 12월 3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 취지문’ 등을 기증했다.

관련문서가 일본 경매에 출품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해 본 결과 조선왕조실록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낙찰받게 됐다”고 입수 경위를 설명했다.

스님은 또 “현재 서울대 규장각과 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실록과 의궤는 본래의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에 보관돼야 한다”며 “월정사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환지본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월정사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귀중한 자료를 월정사에 기증한 종걸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월정사의 역사와 조선왕조실록의 일제 강제 반출 경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근세 오대산의 역사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적멸보궁 봉찬을 할 예정으로 실록이 본래자리에 있던 오대산으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정사는 이번 취지문을 바탕으로 의궤 제자리찾기 운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월정사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 사고로 돌려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조선왕조실록의 반출 경위 외에 오대산 중대(사자암)의 진신사리탑을 정비하기 위한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의 면모가 담겨있다. 발기인으로는 한암 스님 외 53인, 역원은 회장에 중추원부의장 후작 박영효, 법주에 한암 스님, 평의원에 용주사 주지 대련 스님 등 총 45인이 이름을 올렸다.

취지문 찬성자는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비롯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육당 최남선, 중추원 참의 남작 박기양, 평남지사 원전관(園田寬) 등 138인으로 당시 최고 권력자에서 부터 정 · 재계, 학계, 언론계, 불교계 등 대중이 모두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가연대, 새 집행부 인선 임박

1일 임시 총회서 미래특위 구성

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이수덕 · 임완숙)의 조직 새단장이 임박했다.

재가연대는 12월 1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이끌어갈 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를 비롯 김형남 · 허태권 전 대표, 김종규 자정센터 원장, 정운용 감사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9명까지 위원을 늘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가연대 미래상을 마련하고 차기 집행부 인선과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재가연대가 소유한 건물 일부 매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가연대가 소유한 우리함께 빌딩 중 1개 층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재가연대 소속 2,3,5 층 건물 중 5층을 매각하고 나머지 2,3 층은 명의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5층에 입주해있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내년 3월 이전할 계획이고 포교사단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층은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일 주 문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의밤

동국대 불교학과 총동문회장 홍파 스님은 12월 11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엠버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의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조계종자원봉사단장 보경 스님은 12월 5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종특별교구지원금 기탁

서울 구룡사 주지 각성 스님은 12월 4일 군인들에게 전달할 핫팩 지원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지정기탁했다.



산청 보림선원 동계철야정진

산청 보림선원 주지 청봉 거사는 12월 27일 오후 9시부터 2015년 1월 2일 오전7시까지 일주일 동계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55)972-9555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안창례 · 하도겸

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봉사자 안창례(80)씨와 뉴시스 칼럼니스트 하도겸(45)씨가 선정됐다.

"불교 수승함 알려온 열정·노력의 산물"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언론인상 수상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조채희)가 주관하는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월간 〈유심〉 주간이기도 한 홍사성씨는 1982년 불교신문 기자로 입사해 신문, 방송, TV, 잡지, 저서 등을 통해 정법의 당간지주를 세워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사성 주간은 "불교 언론에 몸 담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최선의 성과를 이뤘는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부채감 덜어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2번째를 맞이한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보도 부문에는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만해의 길을 가다' 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만해 스님의 생가 충남 홍성부터 백담사, 옥고를 겪은 서대문형무소, 열반처 심우장까지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봄으로써 스님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고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우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재됐다.

신중일 기자는 "취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스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쇠에서 생긴 녹이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는 법구경의 경구를 신조삼아 열정을 가지고 기자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불교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불교언론인상에는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이 선정됐다.

이밖에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으로는 KBS부산 부처님오신날 기획 '항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 가 선정됐으며 신문부문에는 현대불교신문사 '만해의 길을 가다' (최우수상), 법보신문사 '조계종 개혁20주년 끝나지 않은 여정' (우수상)이, TV부문에는 BTN의 '붓다의 식사' (최우수상), 아리랑국제방송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 (우수상)가, 라디오부문에는 KBS 월드라디오 부처님 오신날 특집 '산사에서의 하루' (최우수상), BBS '룸비니동산' (우수상)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제2 불광운동 전개해 전법 · 포교 활성화 기여"

포교원, 12월 9일 포교대상 시상 지홍 스님 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6회 포교대상 시상식' 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및 사부대중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과보고, 수상자 영상, 포교대상 시상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교대상은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사진 오른쪽〉, 공로상(총무원장상)은 대원 스님(천안 각원사 주지)과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최정수 서울 봉은사 신도회장,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단장이 수상했다. 또한 원력상(포교원장상)은 환성 스님(세종 영평사 주지), 무구 스님(남양주 백천사 주지), 일운 스님(울진 불영사 주지), 신호승 인천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진정순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연맹장,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가 받았다.

이날 포교대상을 수상한 지홍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제 스승인 광덕 스님의 위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스승께서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 법당 불사를 조금 했을 뿐"이라며 "이 상을 준 것은 앞으로 전법불사에 나서라는 의미로 알고 불광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제2의 불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이날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지난 해 11월 라오스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있는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에게 보시할 것을 약속해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수상한 분들은 붓다의 삶처럼 살고자 하는 원력이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결과이기에 모두에게 귀감이 돼 주고 있다"며 "우리모두 이들을 귀감삼아 우리는 스스로 떳떳한 주인이고 본래 청정한 존재로서 뭇생명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포교사'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해인승가대상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해인사승가대 총동문회, 11월 26일 정기총회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우)는 11월 26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청풍루에서 '2014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각 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는 동문 스님을 시상하는 해인승가상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해인승가상 대상에 월운 스님(동문 1기, 봉선사 조실), 화공 스님(동문 15기, 부산 범어사 내원암), 해일 스님(동문 23기, 사천 달마사 주지), 일혜 스님(동문 38기, 중국 북경 해인선원)을 선정, 상패와 상금을 각각 전달했다.

대상을 수상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우리 종단 정화의 이념이 도제 양성, 역경 사업, 포교 사업 세 가지다. 세월이 흘러 강원이 생겨 졸업한 스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가 되듯이 동문 스님들이 불교 교학을 발전시켜 교학이 직접 불교 수행에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 13차 법계 품서식 선암사서 봉행

종사, 종덕, 대덕, 중덕, 선덕 등 총 141명 법계 품서



태고종 제13차 법계품서식이 12월 3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제 13차 법계품서식은 종사이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총무원 부원장 호명스님 봉독), 인사말씀 및 경과보고, 법계증 수여, 상장수여, 법어, 치사, 축사, 공지사항, 사홍서원, 전체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시위원장 동우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제13차 법계품서식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법계고시 응시자 총170명 중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한 141명이 합격했음을 고지했다. 종사(宗師, 제 1급)는 14명, 종덕(宗德, 제2급) 32명, 대덕(大德, 제3급) 38명, 중덕(中德, 제4급) 43명, 선덕(善德, 제5급) 14명이다.

법계증 수여식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종사 법계 품수자 스님들 한명 한명에게 법계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종덕 원성 스님, 대덕 법원스님, 중덕 대산 스님, 선덕 해선 스님이 각 법계 대표로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으로부터 법계증을 받았다.

또한 이번 법계고시에서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품행을 보인 청와 스님(포항 세심사 주지)에게는 상장이 수여됐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세 곳에서 마하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三處傳心)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하시고 열반에 드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오늘 새로운 법계를 받는데 법계가 높아질수록 수행과 처신을 더욱 잘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치사를 통해 "법계 품서식을 통해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고 이(理)와 사(事)가 걸림이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이자 본종의 사상인 통불교의 정신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종단의 승풍이 더 높이 진작되고 위계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조계종 진신사리 석가탑 봉안 대법회

현대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동화)은 11월 30일 총본산 대전 동구 보광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석가탑 봉안 대법회' 를 봉행했다.

보광사에 조성된 진신사리 석가탑은 총무원장 동화 스님이 네팔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동화 스님이 직접 탑신의 법구를 적어가며 4년 여동안 불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을 비롯한 종단임원 및 종도, 대전불교사암련 회장 도연 스님,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종정 벽운스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극정성 정진한다면 전생 악업을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선교종 '제2회 전국통일기원대법회' 봉행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12월 2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전국 통일기원 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총무원장 삼주 스님, 부원장 상원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송산 스님, 자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임상정 세종시 의회의장, 김영석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했다. 법운 종정 스님의 통일염원에 대한 법어에 이어 총무원장 삼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시대의 당면과제인 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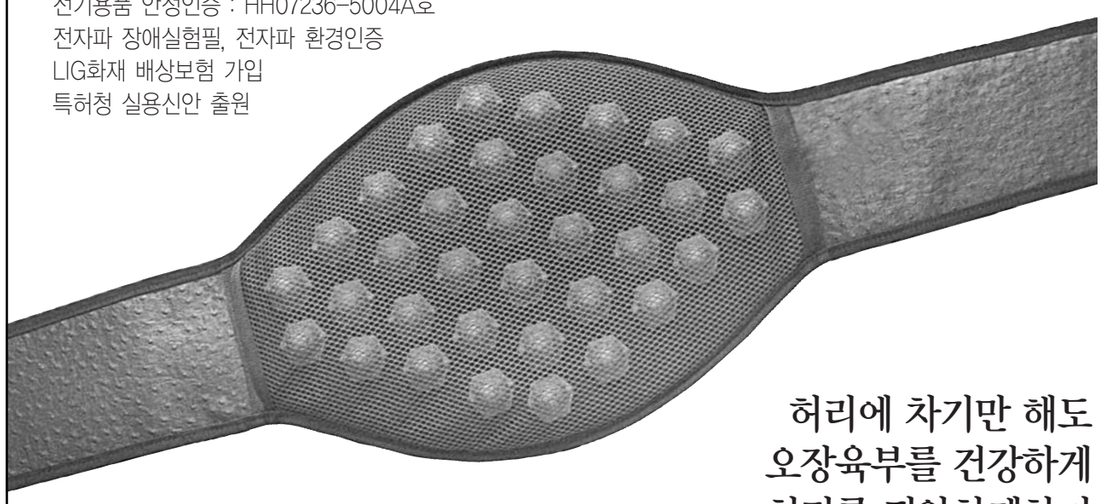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수도사는 4년째 암환우를 위한 사찰음식 강의를 펼치고 있다. 11월 29일 오후 주지 적문 스님이 아주대 암환우를 위한 사찰음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다문화가족을 초청 유부버섯조림과 토란경단을 완성했다.


11월 29일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기공식 장면.


다문화 가족들에게 사찰음식 조리법을 설명하는 적문 스님


실습으로 완성된 사찰음식. 유부버섯조림(왼쪽)과 우엉지짐이

다문화 가족·암환우… 새 활력 얻는 '힐링밥상' 체험

수도사,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기공기념 사찰음식 대향연

11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수도사(주지 적문)는 사찰음식 강연으로 한창이었다.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수도사가 11월 29일~30일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기공을 기념하는 수도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펼쳤다. 수도사 인근은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 길에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성지가 인근에 위치, 이를 기념하는 체험관을 건립하게 됐다.

11월 29일 기공식에 이어 다음날인 11월 30일 사찰음식 대향연이 수도사 전통사찰음식학습체험관에서 열렸다. 다문화 가족과 아주대 암환우를 대상으로 두 차례 열린 강연은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의 조리법과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다.

오전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민 가족들이 참여해 유부 버섯조림과 토란경단 조리 체험과 사찰음식 시식을 했다.

유부조림은 유부를 데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유부를 끓는 물에 넣고 데쳐 찬물에 씻은 뒤 가운데 칼집을 내 주머니 모양으로 벌려 놓는다. 숙주나물 표고버섯 등 다양한 야채의 물기를 꼬옥 짠 후 볶아 다져놓고 두부는 물기를 빼고 잘 으깨어 생각즙과 후추를 약간 넣어 유부속을 준비한다. 이를 유부 주머니에 넣고 미나리로 입구 주머니를 잘 감싼 후 설탕과 진간장을 넣은 야채물에 조리면 유부조림이 완성된다.

주지 적문 스님은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칼 등 위험한 조리기구 없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를 택했다"며 "영양가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넣어 사찰음식 특유의 맛을 간직한 유부버섯 조림은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기공식

사찰음식 시연회서 조리법 등 설명

버섯 조림, 토란 등 참가자 직접 조리

체험이 끝난 후 사찰김치, 버섯강정, 모듬버섯편채, 토란튀김, 김치 등 다양한 사찰음식 설명시간을 가진 후, 다문화 가족들은 사찰 음식 시식을 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리우설송(10) 어린이는 "평소 엄마를 따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신기하다. 속을 넣어 유부주머니를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있다. 집에 가서 엄마랑 만들어 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서 온 이주희 씨(29)는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지 7년 된 주부로 한국 음식에 매우 관심이 많다. 혼자서 한국 김치도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 씨는 "오늘 스님한테 사찰 김치는 파 마늘 새우젓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찰김치도 꼭 만들어 보고 싶다"며 의지를 밝혔다.

오후에도 역시 아주대 암환우를 위한 무료 실습이 이어졌다. 수도사가 아주대 암환우 환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방암으로 고통 받던 향광수 보살(58)은 수도사 신도로 사찰음식을 배우고 적문 스님이 만든 음식을 먹었다. 그러다가 적문 스님과 함께 본인이 치료받던 아주대 병원 환우들을 초대해 사찰 음식 강연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매년 2회 정도 열고 있다.

향광수 보살은 "아직도 치료 중에 있지만 수도사를 오가며 사찰음식 관련 봉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니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전한다.

오늘 음식의 주메뉴는 우엉지짐이와 유부버섯조림. 우엉지짐이에 대해 적문 스님은 "찐 우엉을 찹쌀가루 반죽에 구워내는 요리다. 우엉은 뿌리채소로 영양분이 풍부해 사찰음식에 다양하게 이용되며, 찹쌀은 기를 보해주는 재료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6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올해 완치 판정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채윤진(56)씨는 암과 음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사찰음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적문 스님을 뵙고 몇 번 수도사를 찾아왔고 사찰음식을 배워보기도 했어요. 이런 기회를 많이 접할수록 사찰음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김인순 씨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집에서 담백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스님께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니 응용할 곳이 많다. 이번에 배운 우엉 지짐이도 집에 가서 주변 재료랑 잘 응용해 먹어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적문 스님은 "암환자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찰음식은 재료나 조리과정 자체가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환자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평택 수도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조감도

수도사는 원효대사가 661년 당나라로 유학 가던 중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한 바위굴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를 기념하는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이 수도사에 건립된다.

수도사는 11월 29일 기공식을 갖고 2015년까지 원효대사의 발심(도입부) 수행(원효대사 체험실) 보리(토굴 체험실) 열반(오도 체험실)을 주제로 하는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은 원효대사의 일대기와 사상, 순례, 깨달음 등의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수도사는 앞으로 경기도와 손잡고 원효대사 오도성지 사업과 함께 자연사찰음식박물관을 건립한다. 이에 수도사 인근을 원효대사 스트리트로 조성하고 성지체험을 겸한 사찰음식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공고

템플스테이 TEMPLESTAY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4년 12월 1일(월) ~ 2014년 12월 31일(수) 18시 까지

■ **제출서류**
1) **2015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1부**
2)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1) 원본제출: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파일제출: 이메일 ts2002@templestay.com로 제출

■ **제 출 처** : 1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이승환 부팀장

■ **서류심사 결과발표** : 개별연락(전화, 이메일)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원가능

● 심사일정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예비운영사찰 선정
2015년 1월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3월
서류심사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면접심사 (1차 합격사찰에 한함)	2차 심사 합격사찰 대상 현장실사	예비운영기간 2015년 4월 ~ 12월

※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운영사찰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운영사찰로 지정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www.kbuddhism.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템플스테이팀 이승환 부팀장 02)2031–2034
ts2002@templestay.com

불기2558년(2014년) 1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진 화

언제 어디서든 법화경 들을 수 있어

〈우리말 법화삼부경〉 앱 출시

운주사에서 출판된 〈우리말 법화삼부경〉의 내용을 스마트폰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다.

〈법화경〉 〈무량의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법화경해제〉를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것.

〈법화경〉앱은 전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과 안진보 연동산업 대표, 최대종 다나 대표 등이 함께 만들었다.

안진보 연동산업 대표이사는 "혜조 스님의 '법화삼부경 CD'를 듣고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으로 경전을 보급하고자 원력을 세우고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안진보 대표이사는 2010년 지인으로부터 혜조 스님의 법화삼부경 CD를 선물로 받아 듣고서는 혜조 스님께 무작정 전화를 드려 "CD내용이 좋은데 시간이 없어 경전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대에 맞는 '경전 앱'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 드렸다. 혜조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고, 앱 개발업체인 (주)로드피아(대표 변창수)가 프로그램을, (주)다나(대표 최대종)가 디자인을 맡아 완성됐다.

안 대표이사는 "당시 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받아 〈법화경〉을 시작으로 〈무량의경〉과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을 앱으로 제작했으며 〈법화경 해제〉까지 만들게 돼 도와준 모든 인연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과 안진보 연동산업 대표, 최대종 다나 대표 등이 함께 만든 법화경 앱이 출시됐다.

〈법화경〉앱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법화경'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제1권 서품부터 제7권 보현보살권발품 까지 모두 무료로 내려받아 들을 수 있다.

혜조 스님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경전을 만들었는데 점자보다 CD에 낭송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 CD가 애플리케이션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며 "좋은 경전들을 현대적 버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공모 발표

수기…개포중 조세현, UCC…잠실여고 박규란 최우수상 수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제5회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수기 · UCC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300명의 청소년 지킴이단과 학생들이 공모해 청소년문화재 수기공모전에 12명, UCC공모전에 9팀이 선정됐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개포중학교 조세현 학생이, 우수상에는 형석고등학교 최지윤 학생이, 금상에는 율곡고 구경민 학생이 수상했다.

UCC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에 잠실여고 박규란 학생이, 우수상에는 서곶중학교 황우진외 7명이, 금상에는 더불어꿈의 김민태 외6명이 수상했다.

파라미타는 "이번 공모전 심사는 학생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지킴이 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 성숙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길렀는지를 보는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비롯해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미타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불교문화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애호활동을 독려하고 사찰과 불교문화를 접하게 해 자연스레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 30일 문화재청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협약을 체결, 2012년부터 파라미타가 청소년문화재지킴이활동 위탁관리를 맡아왔다.

파라미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7만여 명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성숙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육성을 돕고 있다. 이번 공모전 상장 및 상금은 각학교 및 단체, 수상자에게 개별 시상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한자공부 · 스키캠프로 智德體 기르자"

사찰 및 불교단체 어린이 ·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맘때가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는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는 방학을 맞아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스키캠프 등 어린이 · 청소년 체험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산사에서 한문을 배우고 스님과 참선하는 한문학당을 비롯해, 스키캠프와 수련회는 지덕체를 함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4~6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유스호스텔에서 '제5회 사찰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다.(02-723-6165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겨울스포츠인 스키와 수련회를 결합한 것으로, 수준별 스키강습을 배울 수 있을 분 아니라 야간 · 자유 스키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또한 1월 21~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동계스키 캠프를 개최한다.

수원 **용주사**(주지 성월)는 1월 9~1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기르고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의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효행사찰로 잘 알려진 용주사를 둘러보고 박문관을 견학하면서 배우는 '사찰 속 효심 찾기', 항상 주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미 · 사 · 고 치유명상'을 비롯해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보는 '부모은중경 독송 및 감사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용주사는 특히 어린이들이 쉽고 지루하지 않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걷기명상, 눕기 명상, 숲 명상, 참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에서 한문을 배우고 스님과 참선하는 한문학당을 비롯해, 스키캠프와 수련회는 지덕체를 함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다. 한 사찰에서 한문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및 불교단체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기관	행 사	기 간	연락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스키캠프	1월 4~6일	02-723-6165
충북파라미타	스키캠프	1월 21~23일	043-224-5257
수원 용주사	마음의 보물찾기	1월 9~11일	031-234-0040
하동 쌍계사	한문학당	1월 11~15일	055-883-1901
해남 미황사	한문학당	1월 3~9일	061-533-3521
서산 부석사	한문학당	1월 4~10일	041-662-3824
부산 홍법사	오감체험 음악캠프	12월 26~28일	051-508-0345

파라미타… 스키캠프 개최
용주사… 다양한 명상체험
쌍계사 · 미황사 · 부석사는
한문학당으로 인성 · 예절교육 실시

이밖에 '사자소학' '법구경' '명심보감' 등을 배울 수 있는 한문학당 교실도 마련돼 있다.

하동 **쌍계사**는 1월 11~15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학당 교실을 개최한다. 매일 아침 머리가 좋아지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이 한문에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리산산행, 섬진강 어류 전시관 탐방, 다도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와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도 1월 3~9일 6박 7일간 초등학생을 위한 한문학당을 개설한다.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되는 미황사 한문학당은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예절, 정신수양을 위해 한문교육, 서예교육,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며 스님들이 직접 모든 교육을 직접 진행한다. 이번 미황사 한문학당에는 미황사 탐방, 달마산 산행, 차문화 답사숲 체험, 땅 끝 바다체험, 달마산 산행 등 다양한 자연탐방 시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충남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1월 4~11일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제17회 부석사 한문학당'을 개설한다. 한문학당에서는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에서 뽑은 교재를 활용해 한문을 가르치고 반야심경 대장경판 인쇄 체험, 반야심경 사경, 단청 그리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수덕사 탐방, 다도와 발우공양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부석사는 "부석사 부처님 집은 '새와 자연 그리고 인간은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 해맑은 아이들이 자연과 전통문화가 숨쉬는 산사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싶다. 곤줄박이라는 새 친구에게 먹이주는 마음을 어린이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2월 26~28일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오감체험 음악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내몸의 감각을 깨우고, 오감을 느끼며 순간순간 집중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시립교향악단 연주를 관람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북구 청소년 53.8%…"명상하면 마음 편해져"

풍경소리, 성북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실태조사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12월 3일 풍경소리 학교에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풍경소리는 지난 6~10월 월곡지역아동센터, 인디 학교 등 성북지역 비영리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성북구에 거주 혹은 성북구로 통학하는 50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조계종 사회부에서 실시한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 진행된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명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은 56.1%였으며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6.4%,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가 53.8%,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가 19.0%, '집중력이 향상돼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다'가 14.0%, '현실을 잊게해준다'가 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길영 교육학 박사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명상은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명상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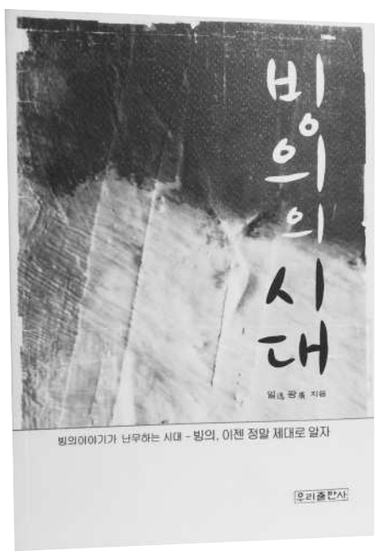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12월 3일 풍경소리 학교에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는 명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애감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재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 결과 명상을 접한 청소년과 명상을 접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풍경소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심리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사를 양성해 청소년 명상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마음챙김 명상, 영어명상 등 명상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빙의환자를 위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 환자를 위한 일광逸廣 도인의 전언!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는 퇴마가 아니라 귀신을 천도遷度해 줌으로써 치료된다

사람의 병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으로 생기는 병,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병,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기는 병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이 붙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8세 미만의 자폐증 환자
▶ 8세 미만의 뇌성마비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추운 겨울나기…부처님 자비로 열기 '후끈'

우리나라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만 정도다. 이 가운데 10만가구는 1장에 6백원 정도 하는 연탄값을 부담할 능력이 안돼 기부받은 연탄으로 겨울을 난다. 하지만 올해 연탄 후원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연탄은행이 후원받은 연탄은 401만2000장이었지만 올해는 208만6000장을 겨우 넘기고 있다.

강추위가 더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온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고 있다. 불교계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부터 이불, 김장까지 나눔 릴레이를 모아본다.

"연탄 한 장이 아까워" – 연탄 나눔

연탄 한 장이 아까워 추운 겨울을 언 몸으로 지새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천태종 구인사가 연탄 1만장을 지역사회에 후원했다. 연탄은 11월 28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2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에는 구인사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총 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연탄을 지원받는 어르신은 "연탄이 아까워 추운 방안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시릴 수가 없다"며 "그러나 그 추운 마음까지 녹여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강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에서도 11월 30일 지역 사찰 보혜사와 함께 장애인 및 독거노인 7가정에 연탄 3,000장을 지원했다. 사랑의 연탄배달에는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직원 8명과 보혜사 주지 지만스님을 비롯한 신도 10명 등 총 19명이 나서서 소외된 이웃에 온정을 나눴다. 보혜사는 매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쌀 배달, 주거환경개선, 난방비지원 등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을 해 오고 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 역시 11월 21일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을 위해 3000장의 연탄과 등유 등을 배달했다.

자비 덮고 주무세요 – 솜이불 나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함박눈이 내렸던 12월 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천태종 구인사, 연탄 1만장 후원
생명나눔, 솜이불 150채 백사마을에
각 복지관, 이웃위한 김장 릴레이

백사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솜이불 150채를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그동안 받은 사랑과 온정을 주변 이웃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진행한 행사다.

백사마을은 전체 주민의 80% 이상이 최저생계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한파를 버틴다.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고 거주 환경이 가장 열악한 5,6통 주민들에게 솜이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있던 것은 백사마을 주민 일부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능 희망등록을 신청하면서 나눔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일면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이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소아마비를 앓는 주민에게 특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김정연 씨와 아웃사이더, 걸그룹 타히티 등이 참석해 이불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11월 21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에게 연탄 3천장을 전달했다.

사랑담은 손맛 김치 – 김장 나눔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에서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11월 22일 김장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1,100kg. 향후 지역 독거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직접 무와 야채를 채썰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까지 구슬땀을 흘린 이들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코리아센터닷컴 직원들이다. 2011년부터 해마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송복지관(관장 김맹자)에서는 무려 3일간 김장을 버무렸다. 복지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김치 2,400kg을 담근 것. 배추 한 포기당 3kg으로 계산하면 800포기나 되는 셈이다. 김치는 모두 지역 내 저소득가정과 독거어르신 263세대에 라면 5봉지와 함께 전달됐다.

서울 성북구 내 복지관 10개 기관이 모여 '합동 김장 담그기'를 진행한 곳도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에서 열린 11월 18일 김장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약 5000kg의 배추를 버무렸다. 성북구 내 저소득가정 490가구에게 가구당 김장김치 10kg 씩을 선물할 수 있는 양이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개관 후 매년 김장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철 음식을 지원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농협중앙회, 조계종복지재단과 MOU 체결

후원금 농협쇼핑몰 포인트로… 산하기관 배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2월 8일 서울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농협a마켓 측의 후원품 전달식도 개최됐다.

업무협약을 맺는 '농협a마켓(http://www.nhamarket.com)'은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1월에 구축한 온라인직거래 쇼핑몰이다. 본 협약이후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해당 후원금을 농협a마켓 포인트로 환산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은 전달된 농협a마켓 포인트를 재단 산하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해 복지기관이 농협a마켓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 및 소외계층 대상자에 필요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농협a마켓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첫 사회공헌사업으로 2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김치는 전국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최근에는 개인 후원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 전반에 모범적인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외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업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생의 끝자락에도 또다른 삶이 있다"

송파노인센터, 11월 26일 노년기 삶방식에 대한 포럼

노년기 삶의 방식과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됐다.

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서울 석촌동 불광교육원에서 '생의 끝자락에 대한 상상력-내가 내일 이곳에 온다면'을 주제로 11월 26일 포럼을 열었다. 지역주민 및 노인복지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노인, 보호자, 시설관계자, 의료, 복지, 법, 윤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현황과 고민,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노년에 대한 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송병기 연구원은 '노년, 생의 끝자락과 죽음'에 대한 기조발표를 통해 "결혼, 은퇴, 아이들 교육, 출산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수다를 나누듯 생의 끝자락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례발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집단프로그램, 재가복지, 주야간이용서비스, 노인전문간호, 돌봄서비스에 대한 각 실무자들의 발표가 진행됐고 토론회 역시 열렸다.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이병순 교수를 좌장으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연환 교수(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도훈 사무총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강민석 국장(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 남우근 노동정책연구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등이 참여해 노년기 삶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포럼에 참여한 60대의 주민은 "노년에 대한 우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삶에도 다시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좀 나는 것 같다. 개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설립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송파구청에서 설립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사회복지기관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집처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보건, 케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서울 석촌동 불광교육원에서 '생의 끝자락에 대한 상상력'을 주제로 11월 26일 포럼을 열었다.


법향 담긴 찻자리 11월 26일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손화정) 입구에 찻자리가 펼쳐졌다. 한복을 곱게 맞춰 입은 다도봉사팀 다담회가 복지센터 개관 3주년을 축하하며 다도를 선보인 것. 다담회는 방문객들에게 차와 다식을 건네며 호평을 받았다. 연잎밥 역시 넉넉하게 준비돼 사찰음식체험기회를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조계종 봉은 법인 대표이사의 표창이 수여됐다. '품격 있는 노년의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치노인복지센터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상이었다. 2부에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작품발표회인 '이음예술제'가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홍대에 어르신들이 '떴다' … 스마트폰 사진전

우면복지관, 11월 22·23일 열어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운)은 11월 22~23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손끝으로 청춘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진전시회는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던 데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사랑사랑봉사단 2기 줌(Zoom)팀의 노력이 있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학생 봉사단과 어르신 45명을 1:1로 매칭,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했다. 하루 두 시간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기본조작부터 SNS사용법, 카메라 기능까지 섭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어르신들의 사진작품과 Zoom팀의 봉사활동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전 개최 이유에 대해 복지관 측은 "세대차이가 극명한 현대사회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감성을 담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만지는 모습을 보며 세대를 뛰어넘어 공통점을 발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전시됐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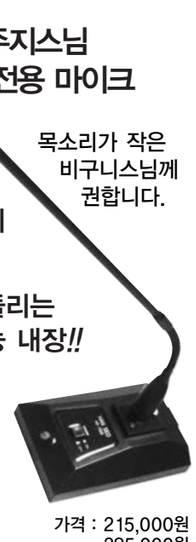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心性 가운데 모든 진리의 道가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頓悟見性者〈돈오견성자〉는
爲頓除妄念〈위돈제망념〉이며
永絕人我〈영절인아〉하여
畢竟空寂〈필경공적〉이라
卽與佛齊等〈즉여불제등〉하여
無有異依也〈무유이의야〉로다.

심성을 몰록 깨달은 이는
중생의 망념이 몰록 제거되며
모든 인아상이 끊어지고 없어져서
필경에는 텅텅 비어서 고요함이라.
곧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동등하여
다르고 차이가 있지 아니함이로다.

心性 가운데 모든 眞理의 道가 있음이니, 누구든지 道를 닦아 心性을 보면 이러한 경지를 억만년토록 수용하는 법이로다.

今日은 甲午年 冬安居 結制日이라, 뭇 四部大衆은 부처님께서 出世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한 점의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마음자세를 잘 가다듬고 정진에 임할지어다.

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공양을 하나 산책을 하나 운력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루에도 천번 만번 의심해 나갈지어다.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음이니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화두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다보면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이 계곡의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다가 문득 사물을 봐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림이로다. 그렇게 한 달이고 일년이고 십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됨이니,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로다.

〈중략〉

行思 禪師께서 懷讓 禪師께 石頭스님을 심부름 보내어 法을 전하게 되는 기연이로다.

한 때, 懷讓 禪師와 行思 禪師 두 분이 쌍벽을 이루어 高峻한 法을 널리 펴시는데, 때가 되니 行思 禪師 門中에 제자를 封해 分家시켜야 할 인연이 도래하였다.

하루는 行思 禪師께서 弟子 石頭스님을 시켜 懷讓 禪師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르셨다.

"네가 懷讓 禪師께 가서 이 편지를 전해 드리고 돌아오면, 무딘 도끼〔鈍斧子〕를 주어 分家시켜서 다른 산에 住하게 하겠다."

石頭스님이 여러 달을 걸어서 懷讓 禪師 처소에 이르러 인사를 올리고는, 전하라는 편지는 올리지 않고 대뜸 여쭈었다.

"모든 聖人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떠합니까?"

이렇게 高峻한 一問을 던지니, 懷讓 禪師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向上의 진리만 묻고 向下의 진리는 묻지 않는고?"하시었다.

그러자 石頭스님은,

"억만년토록 生死의 바다에 잠길지언정 모든 부처님과 聖人의 解脫法은 구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자기의 所見만을 고집하였다.

이 말 끝에 懷讓 禪師께서는 돌아앉아 버리시고 더이상 상대하지 않으셨다. 兩邊을 다 들어야 하는데 一邊으로만 나가니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고 돌아앉아 버리신 것이다.

石頭스님이 그 길로 行思 禪師께 돌아가니, 禪師께서 물으셨다.

"편지는 잘 전했느냐?"

"편지도 전하지 못하고 信도 통하지 못하였습니다."

石頭스님이 懷讓 禪師 처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는,

"편지를 전하고 오면 무딘 도끼를 주어 分家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도끼를 주십시오."하였다. 그러자 行思 禪師께서 아무 말 없이 一足을 들어 보이시니, 거기서 石頭스님은 큰 절을 하였다.

〈중략〉

이렇게 行思 禪師께서는 石頭希遷이라는 弟子를 얻어 법을 전하셨고, 懷讓 禪師께서는 훗날 馬祖道一이라는 걸출한 弟子를 얻어 법을 전하셨는데, 馬祖 禪師는 84人의 道人弟子를 두어 그 법이 天下를 덮었던 위대한 善知識이셨다.

한 때 어떤 衲子가 懷讓 禪師께 물었다.

"거울로 像을 주조하여, 像이 이루어지면 거울의 밝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禪師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치 大德이 出家하기 前의 모습과도 같으니, 그것이 어디로 갔겠느냐?"하시니, 납자가 다시 묻기를,

"像이 이루어진 뒤에는 어찌하여 비추지 못합니까?"

"비추지는 않으나 한 점도 속일 수는 없느니라."하시며 이미 다 갖추어져 있음을 밝히셨다.

南嶽懷讓 禪師께서 이렇게 뚜렷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크게 法을 선양하시다가 涅槃에 드심이로다.

그러면 畢竟에 南嶽懷讓 禪師를 아시겠습니까?

向上向下自在用〈향상향하자재용〉
天上人間無等侶〈천상인간무등려〉

향상의 진리와 향하의 진리를 자재하게 쓰니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분별심 없이 오로지 화두 참구만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상략〉

갑오년 동안거 결제일 입니다.

부처님 당시엔 하안거는 있었지만 동안거는 없었습니다.

풍혈연소(風穴延沼) 선사 회상은 동안거는 있었지만 하안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땅은 장맛비로 인하여 하안거가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고,

중국선림은 얼음과 눈으로 인하여 동안거가 공부하기 좋은 시절인 까닭입니다.

해동의 총림 역시 매서운 북풍으로 인하여 얼음 때문에 길이 끊기게 되고, 추위로 인하여 오가는 인적마저 드물게 됩니다. 그리고 흰눈으로 인하여 천지가 하얗게 덮혀 모든 분별심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삼동결제 기간은 참으로 정진하기 좋은 시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언제나 분별심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49년 고행을 헛되게 만들고, 선사들의 천칠백공안을 도로徒勞로 만들 뿐입니다. 제대로 안거하는 결제납자라면 구순九旬 십이시중十二時中에 항상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말의 분별은 불조佛祖를 넘어서지만 실행의 분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저 90일동안 '말을 잘한다' 혹은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등의 갖가지 분별의식 조차 절대로 일으키지 말고 오직 화두를 드는 것으로만 살림살이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49년 수행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며, 조사들의 천칠백 공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복유福裕 선사에게 다시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초연한 경지를 얻어 홀로 현상에서 빼어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습니다.

"봉산개로逢山開路하고 과교도수過橋渡水하라.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다리를 만나면 물을 건너라."



수행이란 산을 만나면 묵묵히 길을 내는 일이며, 물을 만나면 말없이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혹 옆길이 있다면 돌아서 갈 일이고, 물에 돌다리가 있다면 건너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90일 동안 그저 화두를 산길로 삼고 화두를 물길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의 길만 걷도록 합시다.

三汲浪高魚化龍인데
痴人猶戽夜塘水로다

세 단계의 물을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되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밤새워 연못물을 퍼내는구나.

분별없는 마음이 본래 마음의 모습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양무제의 물음에 달마대사는 "허공처럼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소"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일체차별상(一切差別相)을 끊은 자율자겸(自律自慊)의 대법(大法)에는 성(聖)도 범(凡)도 없으니 당연히 인과(因果)도 없다고 일갈했던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 있어 부처다 중생이다 시시비비(是是非非) 다투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화엄경'에서 "만약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여 일체가 마음으로 지은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이 짓는 것처럼 부처 또한 그러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니 응당히 알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체성이 모두 차별이 없이 똑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의 공능(功能)을 화가에 비유하여, 우주일체 만물만상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경우 아무렇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철학과 사상을 담은 마음의 표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을 담은 그림이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온갖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공능을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하며, 자성(自性)이라고도 하고, 법계(法界)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달리 마음이라 하고, 중생이라 하며, 부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체성이든, 부처의 체성이든, 중생의 체성이든 그 자체의 성품은 무량무변(無量無邊)하며, 무진중중(無盡重重)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연의 모습이며 우주본연의 세계(重重無盡法界)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그러한 의미에서 이원법(二元法)이 아닌 다 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수행자가 특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끔 의사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는 '역전이(逆轉移) 현상' 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진 도중에 삼독심(三毒心)에 의한 근원적인 분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심(嗔心)은 대표적인 악업을 짓는 고행(苦行)임을 명심하고, 무착스님의 문수보살 게송을 항상 새겨서 수행에 양약(良藥)으로 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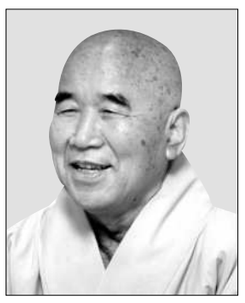
성 안내는 그 모습이 불보살 될 수 있는 최상의 공양이요(面上無瞋供養具),부드러운 말 한 마디 삼보 전에 사르는 미묘한 향기 되며(口裏無瞋吐妙香), 아름다운 지혜심은 진귀하고 보배로운 부처님 마음이니(心裏無瞋是珍寶),삼업이 청정한 그 성품은 영원한 법신일세(無染無垢是眞常).

입으로만 초심 타령 말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守口攝意身莫犯
莫惱世間諸有情
正念觀知欲境空
無益之苦當遠離

신구의 삼업을 단속해 범하지 말고
세간의 중생들을 번뇌롭게 하지 말라.
정념으로 욕망의 경계가 공한 줄 알아서
무익한 고통은 멀리 떠날지어다.



처음 출가한 이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입니다. 가야 할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진 않았는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철저한 깨달음으로 불조의 음덕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곳입니다.

두 눈에는 명철한 지혜가 번뜩이고 얼굴에는 무한 자비가 깃들어야 합니다.

머리 깎고 출가할 때 부모님은 슬퍼했습니다. 친지들도 가슴아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출가하려 하느냐고 만류했습니다. 〈중략〉

인간 백년이라 하지만 거개가 백년을 다 채우지 못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숨은 한 호흡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6년 동안 고행하실 적에는 새가 머리위에 둥지를 틀고 거미가 눈썹에 거미줄을 쳐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사를 해결하고 일체중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자가 화두를 의지하고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올곧게 일심으로 정진하면 부모와 구족이 천상의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구족을 무간지옥으로 들어가게 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수행에 들어섰을 때 간절하고 순수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잡으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초심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사근원을 해결해 법등이 되어 일체중생이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야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草木三冬皆入定
凍寒氷雪鍊精時
多經風雨險過事
只待開花香發時

초목들도 삼동이면 선정에 드는데
얼음 눈 속에서 정기를 단련키 위해서라네.
그렇게 거친 비바람 눈보라를 견뎌낸 것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라네.

티끌 모두가 부처일 뿐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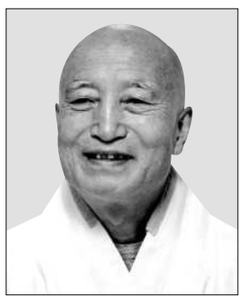
참 성품은 모든 반연을 다 끊었고
참으로 보는 것은 경계를 依持하지 않는다.
참 智慧는 본래로 걸림이 없고 끝이 없어서

위로는 모든 부처와 契合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진실하고, 이르는 곳마다 청정하여 티끌티끌이 모두 부처일 뿐이다.

眞相은 말할 때도 소리가 없으나
그 모습 뚜렷한데 몸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自由自在요 無碍는 圓融이다.

照用은 同時로 하되 逆順에 걸림이 없고,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으며 十方世界에 올올이 自在하고 훤출하게 통하여 당당하고 활발하여 짝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본래로 菩提의 世界요
항하사 같은 世界가 그대로 청정한 寂滅道場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고요하고 맑으며, 신령스럽고 廣大하여

生死와 涅槃도 없고 去來도 없어서 어떠한 名相과 言語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

喝水和聲絕 / 鷲山空影非
聲色通身路 / 金烏夜半飛

할을 한 번 하니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 또 한 번 할을 하니 산과 산 그림자마저 아닌데 聲과 色이 통하는 길에 金烏(해)가 밤중에 날으더라.

이제 甲午年 冬安居 結制가 시작 됩니다. 佛祖가 證得한 無上大道를 成就하는 것이 우리들의 目標일진대 힘써 정진하십시다.

젊은날이 허세가 되지 않게 가행정진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難取難捨 受放自在
無聲無色 超出三界

禪에서는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는 초탈한 입장에서도 무한히 부정 · 긍정을 하고 다시 투과하고 투과하는, 그래서 전체를 포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낱낱 가운데도 그 입장을 포함한 무애자재 활발발(活鱍鱍) 그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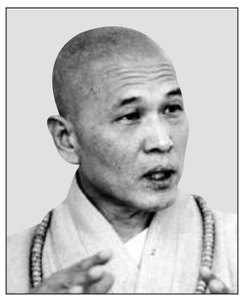
하물며 교리행과 문사철(敎理行果 文史哲)이리오. 일체가 뭉쳐진 하나에서 백천만억 일체를 나투는 선이여!..

그야 말로 화원서방(畵圓書方)도 칠채빈빈(七彩彬彬)도 아니요 선교이사(禪敎理事)도 아니고 범성미각(凡聖迷覺)도 아니요. 소립자와 미립자도 아니고 힉스도 아니고, 객진번뇌 바로 그것들이기도 합니다.

갑오년 동안거 날인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필요 없는 말을 합니다. 이번 철에는 깨달으라고 강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깨달았느냐고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느냐고 는 더더욱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요. 깨닫지 못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철 그냥 평안하게 정진하다 가세요.

지난날 나는 깨닫겠다고 문걸어 잠그고 코피 쏟으며 앉아있었던 적도 있었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는 어떤 감동도(몰라서 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승 · 속간에 나의 선지식들은 지천에 청풍으로 계셔서 그런대로 숨 쉬고 일하며 살아 갈 만 하였습니다.

소위 번뇌라는 것들이 본각을 가리우고 본각성이 번뇌를 뒤업어 엎치락 뒤치락 앞물결 뒤파도로 셀 수 없는 파장으로 돌고 도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 속에 원시농경시대 산업우주시대 지식정보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기계의 검색만으로도 모든 앎과 삶의 내용을 쉽게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계와 지식이 가르치는 데로 세상은 되지 않고 오직 최초의 한 생각을 일러주신 불조의 가르침인 생각하는 힘, 진실자기(眞實自己)이어야만 생명의 살아있는 세상이요, 미래의 양식이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힘들게 가는 길에 깨달음의 장애환자가 되기도하고, 각종 선원을 훑고 다니며 정진하는 대중으로 살면서 중독된 병 때문에 이러 저러한 비방과 건강치 못한 비판도 받습니다.

어쩌면 이치(교리)를 배워서 알고, 그래서 답을 알고 가는 길이라 더더욱 힘들지만, 그렇기에 이 길을 용맹스럽게 가야합니다.

다만 선방에서 교리에서 선어록에서 답을 구하려 한다면 점점 어렵게 됩니다. 완전히 열려있는 수행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어렵게 힘들게 가다보면, 흔들리더라도, 청정치 못한 이들의 이익만 더해주는 오류를 범하는 일에 속을 지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정히 않되는 길 병들고 늙고 힘들다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승교리의 내용을 사회전체,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실천해 간다면 깨달음을 향해가는 수행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억천만사가 수행의 연장선인 행도득작불(行道得作佛)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비구(니)승 젊은 날들이 수행자로서, 일구화두수좌의 젊은 날이 허세가 되지 않기 위해 청정 무 · 탈속에 가행정진 하십시오.

지면 구성과 편집일정으로 법어의 전문 및 모든 총림 방장 스님의 법어를 싣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엄일심은 분단 극복의 사상적 출발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분열시대 화엄학' 학술세미나서

급격히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화,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갈등에 대해 불교의 화엄사상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11월 29일 개최한 '분열시대 화엄학' 세미나에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국면과 사회문제에 대한 화엄사상적 대안이 제기됐다.

화신불 개념 하에 무한경쟁 극복

먼저 이찬훈 인제대 교수는 세계화로 인한 갈등문제에 대해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며 공감과 연대의 정신이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폐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화신불 개념하에서는 중생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보시, 지계, 인욕이라는 보살의 바라밀행이 나오게 된다. 이는 경쟁이 아닌 공감과 동정, 그리고 자비심에 기초한 공생과 상생을 추구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 더 많이 차지하는 무한경쟁의 달리기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일부 강대국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화엄사상 속의 모든 생명과 존재가 모두 우주를 담고 있는 평등정신으로 세계화 상황에서 지친사람을 토닥여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일심 경지 하에 남북분단 해결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불성의 원만한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화엄일심의 경지에서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문제, 남남갈등 문제 해결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 교수는 "원효와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은 삼국 분단과 분열시대를 치유한 통일과



이찬훈 교수



고영섭 교수

통합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유식의 일심과 여래장의 진망화합심을 아우르는 화엄일심은 무분별의 경지로 남북분단시대를 극복하는 사상적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이어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통합의 이념과 소통의 장치가 요청된다"며 △시간적 지연과 공간 차이 인정 △서로간 배려 △진정한 대화 시도 △소통 △행복과 건강한 삶의 화엄일심의 통찰 과정을 설명했다.

고영섭 교수는 끝으로 "화엄의 '문없는 문'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배움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듯, 통일시대에는 분단시대의 우리들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화엄일심을 이끄는 인식의 전환으로 분열의 장벽을 극복하는 통일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깨달음은 언제나 다가와, 자비행이 곧 깨달음"

밝은사람들硏,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연찬회 성료



선,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학의 관점에서 깨달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밝은사람들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은 11월 29일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학술연찬회를 열고 다양한 시대와 사상에서 바라보는 깨달음에 대해 고찰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궁극의 지점으로 바라보지만,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날 연찬회가 열린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에는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500여 대중들로 가득 찼다.

연찬회에 참석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선불교로 인해 인류는 무지(無知)에서 벗어나는 방편을 얻었다"며 모인 대중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해보도록 권했다.

이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초기경전을 토대로 깨달음의 의미를 정리했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은 '진리나 사실을 알게 되는 지혜를 성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초기불교의 깨달음은 궁극이 아니라 궁극을 포함한 과정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중국 선법에 이르러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는 완성된 존재라는 주장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을 심층 해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깨달음은 '끝없는 자기개발'이다. 깨달음의 본 모습은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우리 곁에서 주장되는 자기혁명이나 정치개혁, 사상개혁 하는 것은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강조하며 "밖에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이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활발하게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는 깨달음의 일상 구현을 위해서는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이 해답이라는 입장이 모아졌다.

김호귀 교수는 "깨달음은 어디에나 열려 있고 완성돼 있기에 깨달음을 겨냥한 수행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자비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문화硏, 제5차 학술발표회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센터에서 제5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불교문예연구소 선임연구원 해사 스님의 '불상점안의 절차와 사상' △손인애 서울대 교수의 '경제(京制) 각배 걸수(乞水) 연구 발표' △김춘호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원의 '일본조동종의 일상 의례' △이경준 동국대 박사의 '관음시식과 몽산시식의 구조 비교' 등이 발표된다.

12월 13일 템플스테이센터에서 토론자로는 조계종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감 정오 스님, 의례연구소장 명조 스님 등이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원효와 유교사상가' 세미나

12월 13일, 동국대 다향관서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황 원효와 동아시아 유교사상가의 만남'을 주제로 제9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유진 동국대 외래교수의 '분황 원효와 회암 주희' △최재목 영남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양명 왕수인'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퇴계 이황' △김경호 호남학연구원HK교수의 '분황 원효와 율곡 이이' △방인 경북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다산 정약용' 등이 발표된다. (02)2260-3583

노덕현 기자

'buddha'는 學者일까 붓다일까? 불전 번역 기준 정립 시급

정우 스님, 티벳대장경역경원 주최 추계학술세미나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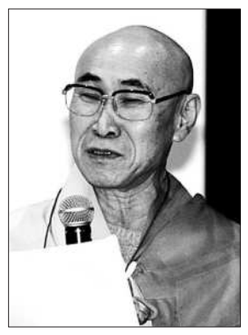
"그동안의 불교용어 표준화 기준은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원전어 표기 기준시 혼란이 야기되기에 새로운 기준인 한글번역 표준용어를 선정해야 한다."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이 11월 28~29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세계 각국의 대장경 역경' 학술대회에서는 대장경 역경의 제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한글번역에 있어 새로운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불교경전번역연구원 원장 정우 스님은 "2004년 한국불교학회에서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을 진행해 그해 10월 표준안을 제출했다. 이 표준안 중 원전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하고, 한국어용어는 한글번역 용어보다 한자어를 한글 음으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글 표준어 방식에서 'buddha'는 한자어 '각자(覺者)'와 한글 '각자'로 표기한 다고 했지만, 이는 한자어 '불타(佛陀)', 한글번역어 '붓다'로 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 스님은 이어 "다른 예시로 한자어 도(道), 한글 깨침으로 표기되는 'bodhi'가 한글음사어 보리, 깨달음 등으로 혼용되는 경우 등이 많아 표준화 방안으로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교용어 표준화 기준 설정에는 현실을 고려해 다시금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이어 한글번역 방법의 설정에서도 의역이나 번역자의 의견이 개입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구인 언어는 직역, 서술어는 의역을 하되, 직역이 되는 명구는 따로이 기준을 정하며, 의역 부분도 문장 표현방식에 통일을 기하는 기준안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buddha' – 각자 · 불타 · 붓다

'bodhi' – 보리 · 깨달음

스님은 끝으로 "불가에서 명안종사를 만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방법을 전하는 불전을 선택하는데는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며 "불전을 바르게 선택하려면 정확성을 기한 번역본이 나와야 한다"며 불교학계가 새 기준안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달라이라마의 티벳 대장경 번역 성만을 당부하는 영상편지도 공개됐다.

달라이라마는 세미나에서 "티벳의 경장과 논장은 몇 세대에 걸쳐서 번역한 것으로 대승불교의 보고인 이 대장경이 한국인들이 볼 수 있게 번역되는 것은 큰 의미"라며 "수백년이 걸려 티벳어로 만든 이 대장경을 한국의 높은 번역 기술로는 15년이면 번역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속에서 본 원효'

11월 29일 불교문화연구원 · 불교학연구회 공동 개최

원효 스님의 사상을 불교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적 맥락에서 본 원효'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경아 동국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불교논리학'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유식사상' △김천학 동국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화엄사상'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원효사상과 천태사상의 비교'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아비달마사상'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미국동양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육임술 제2기를
12월 1일(월요일) 저녁 6시에
개강합니다.

■ 강사진 :
김영배 AOU총장(한국육임학회 총재)
이내각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초빙교수 (한국육임학회 회장)
신성빈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교수 (한국육임학회 경기북부지회장/AOU 평생교육원장)

●육임귀신술 동영상 핵심 24회 수강가능
●육임사주술 동영상 핵심 5회 수강가능

미국동양학대학교
www.aou.ac
총장 김영배 (효사)
☎02)738-8680

사자암 법보시



내가있고 너가있고
내가없고 너가없고
공존공생 도의진리

신 도덕경을 법보시 하오니 원하시는 인연님은
다음카페「사자산 사자암 법보시」란에
책 받을 주소 / 성명 / 폰번호 / 입력하시면
우체국 택배로 무보시 합니다!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사 자 암 석 장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

고려불교 매장문화 근거자료 최초발견

순창 농소고분서 산스크리트어 쓰인 목관 발굴

고려시대 고분에서 불교식 문자가 쓰여 있는 관이 처음으로 발굴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고려시대 불교식 매장 문화를 연구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12월 3일 순창 적성면 운림리 산 12-2번지에 있는 농소고분 발굴 현장서 조사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유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고분에서 발견된 목관의 널에 쓰여진 산스크리트어다. 고분 널에는 산스크리트어가 금가루로 새겨져 있었다. 우리나라 고분에서 산스크리트어가 쓰여진 유물이 발굴된 것은 처음으로 고려시대 불교식 매장문화에 대한 연구자료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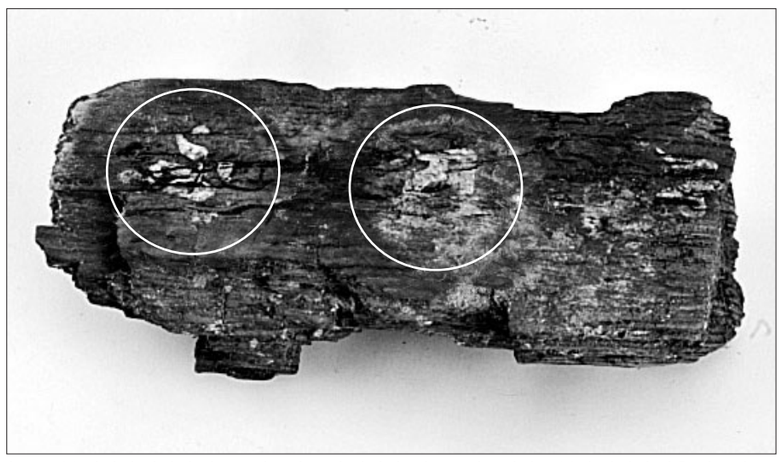
이상준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관 외부에 씌여진 것으로 앞으로 불교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덤의 형태는 묘실을 만들고 나무로 관을 짜 넣은 덧널무덤 형식이다. 봉토는 당초 길이 580cm, 너비 404cm의 장방형으로 큰 규모로 추정되나 현재는 모두 깎여 가장자리에 병풍석(護石)만 남아 있다. 병풍석 내에는 3단으로 파여 있으며, 전체 깊이는 300㎝에 이른다.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은 청동합(靑銅盒, 음식을 담는 놋그릇 중 하나로, 그리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고 뚜껑이 있으며, 불교에서는 주로 공양품을 담는 용도로 쓰임), 청동반(靑銅盤, 얇은 세숫대야 모양의 그릇), 청동수저 등이며, 토광의 세 벽면을 파내어 만든 벽감(壁龕, 장식을 목적으로 두꺼운 벽면을 파서 움푹한 공간) 속에서 출토됐다.

고분에 범어 유물 발굴 최초

무덤 규모로 고려 지도층 추정



농소고분 현장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 목판 널판지. 산스크리트어가 고분서 발견된 것은 최초다.

이와 함께 동쪽 벽감에서 출토된 청동반에서는 머리카락을 뭉친 다발이 가지런히 담겨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밀봉된 채 발굴된 청동합을 열고, 목관도 해체해 추가 유물을 확보할 계획이며, 무덤 주인의 나이와 성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전용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책임조사원은 "무덤의 규모, 출토된 유물들의 양상, 목관과 목곽의 구조물로 볼 때는 고려시대 때 이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층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모님 나라 말 배울 수 있어서 행복"

광주외국인복지센터, 11월 29일 몽골 이중언어교실 수료식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부설 보드미학교(교장 보혜, 비전사 주지)는 11월 29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중언어교실이란 다문화가정 이민자 2세에게 부모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언어 교육이 진행된다. 보드미학교는 지난 3월 개강 후 총 8명의 몽골이민자 자녀들이 이날 보드미학교 과정을 수료했다.

교장 보혜 스님은 이날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닌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이민 온 국가에 대해 아는데서 시작한다"며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보혜 스님은 "1년 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몽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몽골 이중언어과정은 3명의 몽골 이주민 어머니들이 선생님으로 나섰다. 이들은 한국으로 결혼이민 이후 귀화해 몽골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상담 및 통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 보드미학교 몽골 이중언어 선생님으로 자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보혜 스님과 몽골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이 전달됐다.

보드미학교 관계자는 "이날 수료식을 마친 아이들은 학교보다도 토요일이 가장 신나는 요일이었다"며 "아이들이 빼먹지 않고 참여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보드미학교는 2015년 3월 2일 개강할 예정이다. 특히 새 학기에는 몽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별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겨울 앞둔 따뜻한 사찰음식 잔치 '눈길'

백양사 천진암, 11월 29일 사찰음식 강좌 및 작은음악회



늦가을 단풍이 지는 작은 암자에서 전통사찰음식 잔치가 열렸다.

장성 백양사 천진암(주지 정관)은 11월 29일 경내에서 사찰음식 잔치와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찰음식잔치에서는 '味樂작은음악회'가 함께 펼쳐져 참가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행사에서는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에 이어 사찰음식전문가인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이해와 특징'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관스님을 만든 40여 가지의 사찰음식과 발우공양 체험과 연잎밥 만들기, 배추전 부치기 등 체험행사와 함께 소원들 달기, 염주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찰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관 스님은 강연에서 사찰음식의 특징에 대해 "사찰음식의 특징은 독특한 조리법이 사찰마다 다르다는 것"이라며 "산야초를 음식으로 먹고 육식과 오신채 및 인공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 만드는 과정을 오로지 또 다른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고 사찰음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무엇을 먹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중요한 관심을 갖고 음식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그 특징을 다섯가지로 정의를 했다. 스님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채소 중에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찰음식은 약리작용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며, 제철에 따른 음식이 발달해 있다"고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로 아끼는 자비섭수의 마음으로"

조계종 제 19교구신도회 11월 27일 화엄사서 창립



조계종 제19교구 신도회가 창립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지난 11월 27일 대웅전에서 '제19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교구신도회장에 하주현(법명 길상화), 수석부회장에 한산사 문추자(법명 정법행), 부회장에 정혜사 염정희(법명 대각화), 도림사 김정애(법명 상명주), 총무 김은희(법명 모니화)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화엄사 본말사 주지스님과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중앙신도회 관계자, 본말사 신도회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구신도회 창립을 축하했다.

하주현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연기 스님께서 가람을 창건한 이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원력으로 일구어진 화엄사의 역사만큼이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본말사 신도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구어내야 하는 교구신도회장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찰 신도회와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임명자 수여에 앞서 격려사를 통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의 큰 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로 아끼는 자비섭수의 마음으로 교구신도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교구 신도회는 지난 5월 본말사 신도회간의 교류를 위해 창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19교구 담당인 여수, 순천, 구례, 곡성 지역의 각 말사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포교원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신도회 자비나눔 쌀 1050kg 전달



고창 선운사 신도회(회장 정만수)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나눔의 쌀 을 기증했다.

선운사 총신도회는 12월 3일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에 쌀 50포(20kg)을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에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 쌀 전달기금은 선운사 신도회가 매주 회원들이 선운사에 나눔장터를 개설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은 이번에 기부받은 쌀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원 스님은 "선운사 신도회에서 모든 수익금을 지역 소외 계층에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후원이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주 종교계 "신경기변전소 건설 절대 불가"



한전의 송 · 변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여주 신륵사를 비롯한 여주 범종교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3일 여주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전소 건립 백지화투쟁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여주 신륵사를 비롯해 여주지역 4개 성당,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원불교(여주교당), 대한성공회(여주교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여주시산북면학부모회 등 여주지역 20여개 종교 ·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한전은 허울뿐인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765㎸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신경기송변전소 건립 후보지로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곤지암읍, 양평군 강하면 등 도내 5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깨달음 고통 질병 불행 업장소멸 가슴에서 답을 찾다

원인은 고통제(과거생과 현재삶의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정보를 업식, 고정관념, 에고, 카르마) 몸을 지배하는 무의식를 통해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질병, 고통, 불운이 현재의 인생입니다.

■ **수행방법 : 몸에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근육,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 무의식에 자리잡은 정보에너지를 진동, 공명, 분해 상쇄의 원리로 몸밖으로 토납하는 수행법.**

1 깨달음을 찾는 일반인, 불자, 스님 모든 분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3 집안에 우환과 고통으로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4 자신이 삶이 너무나 안풀리는분 (부부, 직업, 사업, 관계, 자식, 돈문제)
5 영적인 빙의나 정신적인 상처나 트라우마, 원인을 알 수없는 무속질환
6 도, 철학, 신비세계, 종교관심이 많고, 늘 마음이 고독한 분
7 모든 난치질환,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원인불명의 모든 질환
8 기도나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거나 인생의 고통이 안 풀리는 분
9 기공 능력 향상과 영가천도 능력 개발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기침, 가래, 콧물, 눈물, 진물, 방귀, 트림,까 스,담음)으로 빠져나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영혼이 깨어남 - 환골탈퇴의 과정 3년정도 수행시 완전한 가슴의 열림을 통한 부처님의 자비가 가슴에서 드러남.

◆상담시간 : **월요일 ~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방문 상담 비용 : **5만원**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 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자각선원

카페-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010-9242-5259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지구촌 최대이슈 이생애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성불도통, 수명연장, 천하대도 루진통 대법회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부처님께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제인 루진통은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루진통 철야 정진이 갑오년 양력 2014년 12월 14일 ~ 15일 무박 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인제 도인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누구도 주문이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현대 한방 양방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용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으로 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일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도법을 얻는 무박 2일 루진통 법도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불보살로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는 단한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 통하며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병겁에 전인류를 살리는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소서 ...?

■ 입 제 일 : **2014년 12월 14일 (음력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4년 12월 15일 (음력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9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복장 및 세면도구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약사 미륵 달마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종사

지역 복지 이끌며 '동체대비' 실현

(사)불국토, 12월 16일 개설 20주년 기념 세미나

부산 불교 복지의 선구자 (사)불국토(대표이사 범산)가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불국토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비의 손길을 전해왔다.

불국토는 지역 불교 복지가 전무했던 1994년 불교복지기구로 출범해 오늘에 이르렀다. 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은 "부산 불교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회 복지 측면에서는 너무나 해 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힘을 합쳤죠. 사단법인으로 어렵게 시작해 불교 자비실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설립 당시를 이야기 한다.

이후 불국토는 복지법인을 설립 국비보육시설건립 지정, 청소년 수련관 위탁,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등의 사업으로 지역 복지를 이끌어 갔다. 사단법인 불국토가 더 특별한 이유는 교계 각계의 스님들이 화합하며 함께 뜻을 모아 출발했다는 점이다. 現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을 중심으로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내원정사 주지),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 현재 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이 함께 동참하며 법인 설립에 힘을 모았다.

이렇게 부산 불교계의 역량 있는 스님들이 동참한 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1998년 청소년들



부산 불교복지의 선구자 불국토가 개설 2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기념 자비 나눔 행사 '함께 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3GO' 행사 커팅식

부산 최초 불교복지 기구
총 24개의 우수산하기관 위탁
부산 불교 복지 사업 이끌어

을 위한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 도량을 설립하며 청소년 포교를 향한 역량도 넓혀갔다. 그 결과 현재 불국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24개에 이르렀다. 또한 전국 최초(노인요양시설 분야) 상락정 배산실버빌 ISO 9001인증 획득, 부산시 소재 노인복지관 최초 ISO 9001 인증, 청소년의 달 기념 대통령 표창, 전국 청소년쉼터평가 1위 선정, 전국청소년 수련관 평가 최우수 선정 등 부산을 대표하는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불토는 급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2003년부터 부산시 최초 실비요양시설 상락정 배산실버빌, 상락정 영주홈, 상락정 연화홈을 잇달아 개소하며 노인 복지에 박차를 가했다. 더 나아가 학대 및 치매로 길 잃은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 설립, 노인일자리 제공 등의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 불국토는 국내 복지를 넘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산 스님은 "이제 국내 복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제 3세계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불국토는 11월 '산하복지기관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12월 16일에는 사직종합운동장 축구장 내 아시아드 시티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대표이사 범산 스님의 기조연설과 동국대 박경일 교수가 '불국토와 불교사회복지'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 불교 복지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갈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화엄의 바다에 빠지다

화엄산림대법회 봉행
12월 22일~1월 19일
방장 원명 스님 입재 법문

선(禪)교(敎)율(律)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법문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통도사(주지 원산)가 '화엄산림대법회' 를 봉행한다.

화엄산림대법회는 12월 22일 오전 방장 원명 스님의 입재 법문으로 시작,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올해도 역시 유능한 강사들을 초청 화엄경의 다양한 내용을 법문한다. 회향은 2015년 1월 19일이다.

통도사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모아 선, 교, 율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30일 간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대법회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화엄산림대법회

날 짜	내 용	법 사
12월 22일	입재법문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화엄경 현담	쌍계사 강주 반산 스님
23일	세주 묘엄품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
24일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
25일	세계성취품화장세계품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26일	비로자나품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27일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전)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
28일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동국대 석좌교수 법산 스님
29일	정행품 현수품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30일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게찬품	(전)해인사 강주 해월 스님
31일	십주품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2015년1월 1일	월하스님 다례 · 범행품	통도사 한주 정안 스님
2일	초발심공덕품 · 명법품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3일	불승야마천궁품 · 야마천궁게찬품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4일	십행품 · 십무진장품	조계종 원로 인환 스님
5일	승도솔천궁품 · 도솔천궁게찬품	前해인사 강주 수진 스님
6일	십회향품1-5	前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7일	십회향품 6-10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
8일	십지품 1-5	前백양사 강주 법광 스님
9일	십지품 6-10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10일	십정품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11일	십통품, 십인품	송광사 율원장 도일스님
12일	아승지품 · 여래수량품 등	前통도사 강사 우현 스님
13일	여래십신상해 · 여래수호광덕품	통도사 기획국장 영랑 스님
14일	보현행품 · 여래출현품	前 송광사 강주 도암 스님
15일	벽안스님 다례 · 이세간품	통도사 선덕 성림 스님
16일	이세간품	수도암 감원 중선 스님
17일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조계종 원로 월파 스님
18일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19일	입법계품 · 회향법문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100원으로 나누는 희망나눔, 생명나눔"

제9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개최

생명나눔실천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12월 3일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에서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를 열고 환우들을 위한 기부금 모연 및 나눔을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생명나눔부산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목종 스님, 박삼석 동구청장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 '100원 희망나눔불씨콘서트'

1부 행사는 난치병 환우 기금 전달식, 표창장 전달식, 생명나눔 기금 전달식이 2부에서는 추현철 외 4인의 BTN 남성 중창단과 유진 박의 무대가 이어졌다.

치료비 전달도 이어졌다. 난치병 환우를 위한 치료비는 고신대학병원 서종빈 환우와 정숙경 환우의 보호자가 받았다.

이어 생명나눔 감사패는 개인택시불자회 심연섭 회장, 감사장은 정보경 간호사, 우수봉사상 표창장은 해동고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어 해동고 파라미타는 환우들은 위해 모은 기금 190여만원을 본부장 원범 스님에게 전달했다.

원범 스님은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검사조차 받을 수 없어 희망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며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가 되듯 100원이라는 작은 정성을 시작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선물해 달라"고 동참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대성사 김장 2천 포기 소외 이웃에 전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는 12월 3일 오전 경내 서원당서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2천포기를 담았다. 이 김장은 지역 달서구 성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경로당, 복지시설 등 300여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은 "이번 김장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님이 만들어준 맛있는 사랑의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대성사는 매년 겨울 지역의 독거


대성사는 김장 2천 포기를 소외이웃에 전달했다.

노인,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자비와 사랑의 김장김치, 연탄 나누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동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12월 20일~21일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다. 강의는 △1강 나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박재호 에니어그램 전문강사) △2강 마조선사의 KISS-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백문현 대동대 인문학연구센터장) △3강 꿈!-맑은 물 붓기, 지속행복론(유진 스님 법륜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4강 꿈이 있는 어린이법회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5강 붓다의 미소(명법 스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응용불교학과 교수)로 진행된다. 051)864-4569

하성미 기자

불광사, '라오의 산들바람' 북카페 개설

"사랑이 담긴 카페라떼 한잔 드시고 라오스 후원에 동참하세요"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는 11월 30일 라오스 후원회 '라오의 산들바람' 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나성린, 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과 NGO 단체 후원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라오스 후원회는 '남은 삶, 봉사와 나눔'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북카페가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라오의 산들바람 북카페는 규모 약 90㎡에 성인 3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회, 역사, 자기개발서 등 약 200여권의 책을 갖추고 있다. 카페의 책과 시설 자재는 일체의 후원금 없이 보광 스님과 후원회 김동현 총무의 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북카페를 통해 얻는 수익은 라오스 반비엥 지역에 있는 150가구의 교회 사업 및 학교 신축, 장학사업,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북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는 라오스 지역에서 수입해 라오스 커피 노동자들에 대한 후원도 아울러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후원회 김동현 총무는 "후원회의 사무실로 함께 북카페를 사용하며 후원회도 홍보하고 후원사업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로 삼을 계획이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불광사가 '라오의 산들바람' 북카페를 개소했다.

하성미 기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험 함께해요"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개관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11월 29일 화엄문화템플관 개관식을 갖고 사찰음식 체험행사 및 천년솔향음악회를 개최했다. 주지 호성 스님은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요즘 템플스테이와 자연식 절밥을 체험하려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고운사에서는 심신의 재충전과 우리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화엄문화템플관을 개소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고운사는 1부 개관식을 갖고 2부에서는 사찰음식 전시와 체험을 3부에서는 천년솔향음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미령, 우연이, 권미희, 지역가수 단비 등이 초대되어 흥겨운 노래잔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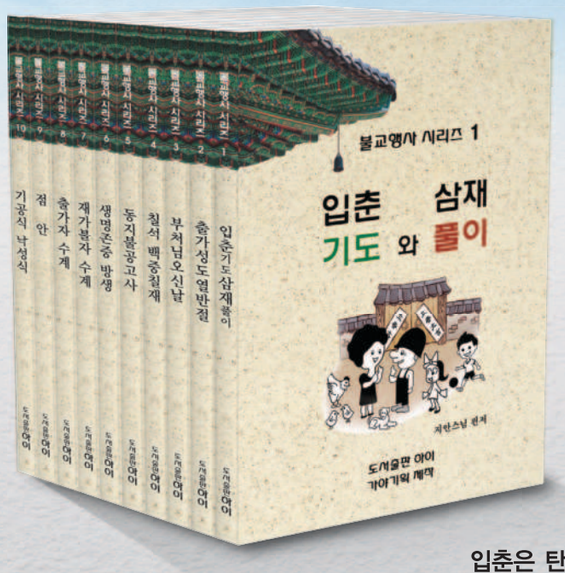

고운사 천년솔향음악회

박영애 영주지국장

불교행사 지침서

알기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1차 판매중



입춘, 출가성도열반전,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백중칠재,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전10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 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름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청, 신중청,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어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팥죽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
동지 정의,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팥죽 예화등 수록.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그곳에 가면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 있다

와불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② 용인 와우정사

마지막. 그 말 앞에서 유 · 무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은 숙연해진다. 더 이상 체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가깝게는 추억의 시작이며, 멀리서는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마지막 모습은 언어로 해석되기 보다는 의미로 기억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 인류에게 의미 있는 '마지막'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마지막 모습은 열반상(涅槃像), 즉 와불상(臥佛像)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연화산에 자리 잡은 와우정사에 가면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도 스님이 보내준 인도네시아 향나무로 조성된 열반상

1970년 해곡 스님 통일 염원하며 창건
와불, 고행상, 조경 등 독특한 가람
연 30만 외국관광객 방문, 태국 20만
인도 스님이 보내준 나무로 와불조성
"와우정사 불사 아직 끝나지 않아"

독특한 가람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금빛 불두상(佛頭像 · 높이 8m)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 도량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1970년에 해곡 스님이 창건한 와우정사는 도량의 모습이 전통의 가람배치와는 많이 다르다. 이국적이기까지 하다. 독특한 양식의 탑들과 야외에 모신 크고 작은 불상들, 전통 가람에서는 볼 수 없는 조경들이 시선을 끈다.

대웅전에는 인도에서 가져온 8만5천근의 황동으로 10년간 불사한 장육존상 5존상이 모셔져 있으며, 야외에는 약사여래불, 미륵반가사유상을 모셨다. 그리고 열반전에는 인도네시아 향나무 한 그루를 다듬어 이음새 없이 조성한 세계 최대의 목불 열반상(와불)을 모셨다. 그리고 대각전에는 옥돌로 조성한 부처님 고행상을 모셨으며,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세계만불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불상을 모셨다.

남북통일 염원 도량

도량엔 독특한 불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량 한 쪽에 조성되어 있는 탑군이 또한 독특하다. 일명 '통일의 탑'이다. 세계 각국의 불교성지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그리고 히말라야산과 북극, 독일 베를린 장벽 등 세계 각지에서 명사들이 가져온 돌로 한 층 한 층 쌓아올린 탑으로,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탑이다. 버려진 돌이지만 정성의 공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염원이 담겨 있다.

실향민인 창건주 해곡 스님은 1970년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우리민족 웅결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와우정사를 열었다. 스님의 통일불사 원력은 약 1300년 전 삼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신라인들이 조성한 황룡사 불사와 맥을 함께 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도량에는 통일의 탑과 통일의 종 등을 조성했으며, 해곡 스님은 매일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기도로 예불을 모시고 있다.

열반종 맥 잇는 세계적 명소

와우정사는 대한불교열반종의 총본사이다. 열반종은 서기 623년 고구려 보덕성사가 창종했다. 신라시대까지 우리나라에는 5개의 교종이 있었다. 율종은 자장율사가 열었고, 법성종은 원효대사, 화엄종은 의상대사, 법상종은 진표율사가 각각 열었다. 이 5대 교종 중의 하나인 열반종은 소의 경전을 대반열반경으로 하고 많은 고승을 배출했다.

열반종에는 1960년대까지 전국에 20개의 사찰과 70개의 폐사지가 있었다. 1962년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창종됐고, 열반종은 1970년 해곡 스님이 와우정사를 열면서 중흥기를 맞게된다. 이렇듯 열반종은 1400여 년간 한국불교사의 근간을 이루어 내려온 유서 깊은 종단으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청정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불교종단, 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다.

이렇듯 볼거리가 많고 세계 각국의 불교종단과 교류하고 있는 와우정사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한 해 3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이 중 20만 명 정도가 태국인이라고 한다. 태국 내에서는 한국의 와우정사가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한다. 이렇듯 태국인들이 와우정사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해곡 스님은 1969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해 조계종을 찾은 푸미 풀 푼 태국 공주를 안내하게 됐는데 당시 조계종 행사와 사업 등을 맡은 기획위원 신분이었다. 이를 계기로 태국 왕실 및 스님들과 교류를 이어갔고, 6.25 한국전쟁 때 참전해 전사한 태국 군인 129명의 위패를 조성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와우정사는 천년을 넘게 이어온 전통사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

와우정사는 많은 불상을 모시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길이 12m, 높이 3m의 열반상인 와불일 것이다. 와불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히 해탈한 모습을 그린 불상이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수행 중인 인도 스님이 해곡 스님이 절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향나무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2500년 전 쿠시나가라에서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니 아직 욕심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비구들 가운데 어떤 이는 팔을 뻗고 슬피 울고, 또 어떤 이는 땅에 누워 뒹굴면서 "아!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원만한 분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무슨 까닭에 이리도 빨리 모습을 감추시려 하시는 것이옵니까?"라고 비탄해 했다. 마하가섭 존자와 5백 명의 비구들이 모두 열반에 드신 세존의 법구에 예배하니 세존의 법구를 안치한 연화대의 화장 나무에 저절로 불이 피어올랐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용인 연화산 기슭에 자리한 와우정사에 가면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불자들의 영원한 추억이자 역사인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 보고 싶다면 와우정사에 가볼 일이다. 와우정사(臥牛精寺), 불교에서 소는 불성을 뜻한다. 곧 '부처'를 말한다. 와우정사는 열반에 든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란 뜻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의 탑'


벽화로 조성된 팔상도


절 입구에 모신 불두상

가볼만 한 곳

▲에버랜드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031-320-5000

테마파크 에버랜드는 1년 내내 축제가 이어진다. 1,000만 송이 봄꽃의 향연 '플라워 카니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썸머 스플래쉬',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파티 '해피 할로윈', 낭만적인 겨울 이야기를 전하는 '윈터원더랜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한국민속촌 /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 031-288-0000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스며있는 전통생활모습을 총체적으로 재현한 야외민속박물관으로 국제적인 관광지이다. 기성세대들은 아늑한 고향의 정감과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다.

▲용인자연휴양림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 031-336-0040

용인시에서는 울창한 숲,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산림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시민들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창한 소나무숲, 밤나무 숲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 휴양림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숲속의 집 등과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면서 자연학습 체험과 산림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와우정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지 해곡 스님 인터뷰



해곡 스님이 와우정사를 세운 것은 불법의 홍포는 물론이고, 불법의 가피로 인한 남북통일을 이루고자 한 원력의 발심이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통일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불교를 알리는 것도 통일의 길을 여는 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며 스님은 매일 기도를 통해 통일에 대한 원력을 이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날 와우정사의 불사도 완성된다고 말했다.



높이 60m 목탑 세우고 불탑신앙 공덕 기원

탑의 진화

㉔ 고구려의 불탑

지난 호까지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의 조성이 불법홍포와 함께 주변의 여러 나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우리나라 불탑 조성의 전개와 불탑신앙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 중 제일 먼저 불교를 수용하였던 고구려의 불탑은 현재 원형으로 전해지는 것이 단 한기도 없다. 단지 문헌상의 기록으로 고구려인들의 불탑 조성과 신앙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고구려의 불탑 관련 역사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쇼카왕' 과 관련된 내용이다. 〈삼국유사〉제3권 '탑상편' 의 요동성육왕탑(遼東城育王塔)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보감통록〉에 이렇게 실려 있다. 고구려 요동성 주변에 있는 탑은 옛 어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하다. 옛날 고구려 성왕이 국경 지방을 순행하던 길에 이 성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는 것을 보고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스님은 없어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곁에는 3층으로 된 토탑(土塔)이 있었는데, 위는 솥을 덮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스님을 찾아보았으나 다만 거친 풀만 무성할 따름이었다. 그곳을 파서 보았더니 한 길쯤 되는 곳에서 지팡이와 신이 나오고 계속 파보니 명문(銘文)이 나왔는데, 명문 위에 범서(梵書)가 있었다. 한 신하가 그 글을 알아보고 불탑이라고 말했다. 왕이 자세히 묻자 신하가 말하기를 "이것은 한(漢)나라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포도왕(蒲圖王)이라 합니다. 성왕은 이로 인하여 불교를 믿을 마음이 생겨 이내 7층의 목탑을 세웠으며, 그 뒤 비로소 불법이 전해 오자 그 사연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지금 다시 그 탑의 높이를 줄이다가 본 탑이 썩어 무너졌다. 아육왕이 통일했다는 염부제주(閻浮提洲)에는 곳곳에 탑을 세웠으니, 이는 괴이할 것이 없다… (하략).

라는 기록이다. 요약하자면, 한나라 때 요동성 근처에 인도의 아쇼카왕이 토탑을 조성하였다. 그 자리에 고구려 성왕이 7층목탑을 세웠는데, 지금은 썩어 무너졌다는 내용이다.

이 삼국유사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성왕' 은 누구이고, '포도' 란 무엇인가? 아쇼카왕은 왜 요동성 옆에다 탑을 세웠는가? 탑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라는 의문점 들이다.

성왕이라 표현된 주인공의 정체에 대하여,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은 아닌 것 같다고 본문에서 밝히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 '광개토태왕' 일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포도' 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포도는 불탑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 스님은 주석을 달아 원래는 휴도왕(休屠王)인데 그것을 포도왕(蒲圖王)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소 혼란이 생긴다. 즉, 앞의 문장에서는 불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포도왕이라고 이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탑을 '포도왕' 이라고 표현한 예는〈삼국유사〉이외에는 다른 한역 경전이나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 이 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서두에 기록된 "〈삼보감통록〉에 실려 있다!" 라는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보감통록〉이란 것은 〈집신주삼보감통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664년에 당(唐)의 학승 도선(道宣)이 지은 것이며,〈삼국유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전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내용과 다른 점은 '彼名蒲圖, 王因生信(피명포도, 왕인생신)' 이라 하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은 포도라 하고, 그로 인하여 왕은 믿음이 생겼다' 라는 내용만 전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석이 없다.

또한 〈집신주삼보감통록〉과 거의 같은 시기인 668년에 당나라 도세(道世)가 편찬한 불교백과사전인〈법원주림〉 '경탑편' 에도 〈집신주삼보감통록〉과 일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연 스님은 무슨 연유로 특별히 각주를 달고 '포도왕' 은 '휴도왕' 을 말한다고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용된 원전에는 그런 각주가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고구려에서는 불탑을 포도(蒲圖)라고 표현한 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탑의 위치와 조형성에 대해서는 요동성총의 벽화를 통하여 짐작 할 수 있다. 요동성총은 1953년 평남 순천시 북장면 용봉리에서 발굴된 4세기의 고구려 무덤이다. 무덤 이름을 요동성총이라고 부른 이유는 벽화에 '요동성' 이라는 글자가 쓰인 성곽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무덤 구조는 동서로 길게 설계되어 있는데, 무덤 안에 팔각기둥을 세우고 벽면에 풍속도, 사신도를 그렸다. 특히 요동성의 전경, 구조, 주위 자연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사진1〉**, 여기에 목탑의 모습**〈사진2〉**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까지 알려진 고구려 불탑의 시초인 것이다.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와는 달리 현존하는 석탑은 단 한기도 없다. 단지 〈삼국유사〉 제3권 '탑상편' 의 '고려영탑사' 조에는 '팔면 7급 석탑' 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8각 7층석탑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불탑의 특징은 대부분이 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목탑' 이라는 점과 '8각 다층'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평양에 있는 상오리사지의 목탑은 기단은 8각이지만 탑신은 4각을 이루고 있다. 이 탑을 제외한 정릉사탑, 금강사탑, 영탑사탑 등은 모두가 기단과 탑신이 8각을 이루고 있다. 목조불탑을 8각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은 몇 가지 신앙적 의미가 있다.

4각 보다 8각을 택하였다는 것은 목조건축의 구조상 설계뿐만 아니라 축조과정과 재정면에서도 복잡하고 곤란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결코 강한 종교적 신념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직접 참배할 수 없었던 고구려 불자들은 깊은 신심의 표현을 8각의 불탑조성으로 대신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8각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것은 고구려인들의 불심과 기상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들어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8각 탑들은 평양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정릉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고구려 사찰 가운데 가장 크고 웅장하다.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의 용산리 동명왕릉 남쪽 약 150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며, 북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찰의 넓이가 경주 황룡사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절이었다. 1974년부터 대규모로 발굴하여 일부 복원을 하였다. 발굴 결과 전형적인 1탑3금당식의 고구려 사지임을 확인 하였다. 특히 중앙의 탑지는 추정결과 2중 기단의 '8각5층목탑' 으로 높이가 약 40m에 달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찰 중심에 8층목탑을 배치한 것은 불교신앙의 의례가 불탑신앙을 근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정릉사에서는 중앙의 '8각5층목탑' 대신에 소규모의 '8각7층석탑' **〈사진3-1,3-2〉**으로 대신하여 복원인지 창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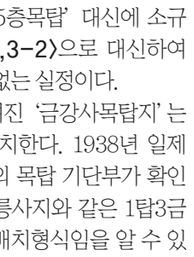
한편 '청암리사지' 라고 알려진 '금강사목탑지' 는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리에 위치한다. 1938년 일제에 의하여 발굴 조사되어 8각의 목탑 기단부가 확인되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 정릉사지와 같은 1탑3금당식의 전형적인 고구려 가람배치형식임을 알 수 있었으며, 탑의 조성시기는〈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여 문자왕 7년(498)임을 알 수 있다. 광개토태왕의 손자이며, 장수왕의 아들인 문자왕 재위 시기에는 고구려 최대의 영토와 안정적인 정치적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문화가 극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바탕위에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신앙심을 표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구려자로 175척, 즉 61.25m에 해당되는 7층의 목조불탑을 조성하고 고구려인들은 불탑신앙의 공덕을 기원한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평양민속공원에 '금강사목탑' 모형을 조성하여**〈사진4〉** 관광객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부처님의 사리를 잘 모시기 위하여 국력을 다하여 어렵게 조성한 것이 금강사목조불탑이다. 이 불탑은 과거 고구려인들에게는 불심의 정성이 녹아있었고, 불교신앙의 귀의처였다. 이러한 '금강사불탑' 이 고구려인들의 뛰어난 건축문화재로만 취급되는 것이 이 염부제에 북한으로 한정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알아 본 것 외에도 고구려의 불탑은 상오리사지, 토성리사지 등 목탑지가 발굴 된 바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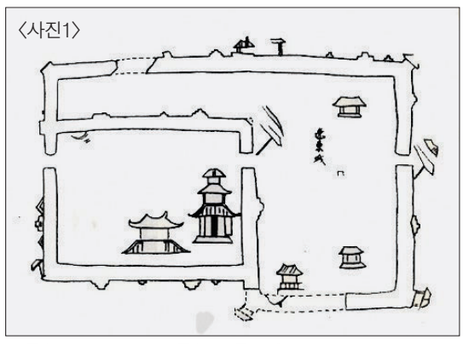
다음 호에는 백제의 불탑 조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진 출처
사진1. 리화선, 조선건축사, 도서출판발언, p.61 발췌
사진2. 리화선, 조선건축사, 도서출판발언, p.141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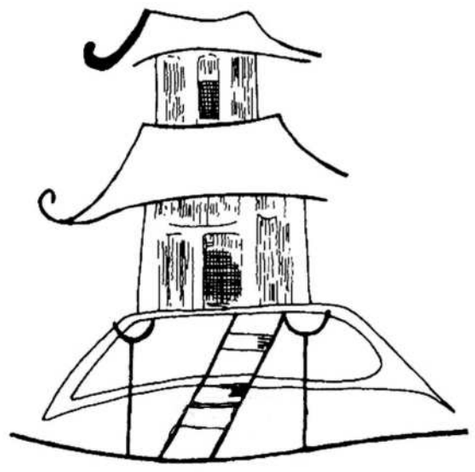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요동성총에 그려진 요동성 건물 배치도

〈사진2〉



요동성 외곽에 그려진 목탑

〈사진3-1〉



정릉사에 복원된 8각7층목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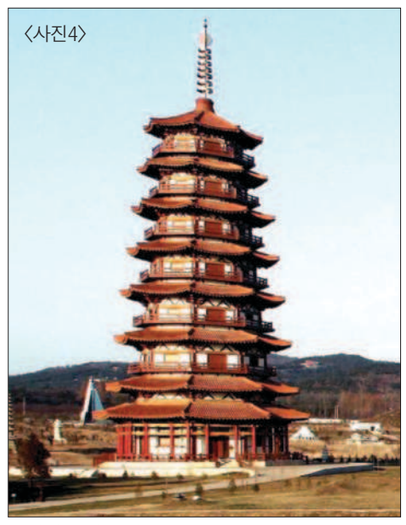
〈사진3-2〉



정릉사에 복원된 8각7층목탑

고구려불탑 현존하는 것 없어
요동성육왕탑지에 세운 목탑 시초
대부분 목탑, 8각 다층이 주류
'8각' 은 신앙적 의미 내포한 양식
부처님 8대 성지 8각으로 표현
8각탑 평양에 집중적으로 조성
정릉사탑지 8각5층, 높이 40m 추정

〈사진4〉



금강사 목탑 모형

〈표〉 고구려의 불탑

불탑명칭	재료	층수	기단평면		위치
			형 태	길이(m)	
요동성육왕탑	나무	7	4각	*	요동성부근
영탑사석탑	돌	7	8각	*	평양
정릉사탑	나무	5(?)	8각	17.5	평양
금강사탑	나무	7(?)	8각	24.5	평양
상오리사지목탑	나무	?	기단8각, 탑신4각	18	평양
토성리사지목탑	나무	?	8각	16.2m	황해북도 봉산군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1〉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초록과 구리빛의 조화된 색채미

인종대왕 태실수호의 원당사찰

사람이 태어날 때 달고 나오는 태(胎)는 생명의 젖줄이다. 우리민족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 생명줄이었던 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갈무리하여 생명의 근원을 돌아보는 풍속으로 삼아왔다. 태를 묻는 풍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로서 생명존엄의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룬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태실(胎室)은 조선시대 왕실 자손들의 태를 묻은 시설이다. 조선왕실은 왕세자 등의 태를 항아리에 담아 전국 명당에 안치해 왕권의 안정과 무궁한 번영을 기원했다. 특히 국왕의 태실은 8명의 수호군을 두어 관리하고, 봉산(封山) 금표를 설치해서 벌목 등을 금하게 했으며, 태실 아래에 절을 세워 태실수호와 왕실안녕을 기원하게 하였다. 선조의 오덕사, 세조의 선석사, 정종의 직지사, 인조의 정토사 등이 대표적인 왕실태실의 수호사찰들이다.

대구의 진산 팔공산 자락의 은해사 백흥암 역시 인종의 태실을 수호하며 국가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원당사찰(願堂寺刹)로 중흥되었다. 왕실의 원당사찰은 숭유억불의 조선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국가권력인 왕실로부터 절대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불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세금감면과 부역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각종 문헌기록에 전하는 왕실의 태실사찰, 능침사찰, 원당사찰 등이 무려 95개 사찰에 이른다는 최근의 보고는 유교국가 내면에 도도히 흐르는 불교신앙의 면면한 흐름을 엿보게 한다. 특히 왕의 개인 재산인 내탕금까지 털어 왕실 원당사찰의 중건에 나서고, 대규모 시주발원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사실은 뜻밖의 놀라움이다. 이같은 왕실 원당사찰에서 오늘날 뛰어난 불화와 건축장엄 등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팔공산 중턱의 청정한 비구니도량 백흥암에서 만날 수 있는 불단, 불화, 벽화, 글씨 등 사찰건축 장엄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왕실 원당사찰의 성격에서 비롯된 산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흥암은 '백흥대난야(百興大蘭若)'다. 모든 일이 길하게 일어나는 청정도량이라는 뜻이다. 금당은 극락전이다. 극락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 이후 활발한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통도사, 범어사 등 17세기 영남지역 바로크적 건축양식과 흐름을 같이한다. 전통의 규범에 엄격한 고전주의적 법식을 갖춘 까닭에 건축전반에 힘이 흐르고 위풍당당하다. 건축의 결구에서 내부장엄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힘이 느껴지고, 고색창연한 고전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건축내부는 물론이고 건축외부의 단청에 이르기까지 고전의 법식이 온전히 남아있다. 개채와 개축의 무지막지한 광풍이 문화재 보수라는 이름으로 불교계 전반에 유행처럼 번진 토목시대에 이렇게 온전히 고전양식이 남아있는 경우는 여간 다행이 아니다. 그것은 일년 내내 빗장을 걸고 문화재와 선원의 향기를 결연히 지켜온 비구니 스님들의 보현행의 인과다.

파란 녹이 낀 청동거울의 색채

백흥암 극락전 내부는 시간에 곰삭은 진초록과 주사의 구리빛이 혼연일체를 이뤄 미묘한 색조를 자아낸다. 파란 녹이 끼인 청동거울의 구리빛 색채미감이 은은히 배여 나온다. 시간의 더께와 어둠에 길들여진 전통색채 진채가 이룬 적멸의 색조다. 그 색조의 공간은 깊고 엄숙하며 거룩함을 자아낸다.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를 비롯해서 불단과 닫집, 벽체의 공포부재, 벽화에 이르기까지 내부의 색조는 녹슨 청동거울의 색감으로 일체의 통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내부구조는 하나로 통일된 강한 결속력을 지닌다. 모든 장엄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내부공간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활성화한다. 붉은 주사의 색채는 가구식 뼈대에 생명력의 기운을 불어 넣는다. 가구식 짜임의 공포벽면에는 하늘빛의 푸르른 붓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고매(古梅)에 흐르는 철골생춘(鐵骨生春)의 힘을 닮았다. 소로, 첨자, 살미에 입힌 붉은 단청과 어우러져 주술적 신성과 생명 에너지의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공포짜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포공간은 신령한 기운이 가득한 생명에너지의 공간이며, 공포 칸칸마다 연꽃이 솟아 오르고, 그 연화좌에 설법인의 수인을 취한 여래께서 극적으로 나투신다. 잘 짜여진 서사적 플롯의 한 편을 보는 듯 하다. 여래의 존상에 베푼 두터운 진채(眞彩)의 빛이 천연스럽다. 수류부채(隨類賦彩)의 색채감각과 붓질이 대단한데, 붉은 빛의 주사와 초록의 두 색을 중심으로 단조로움 없이 저토록 풍부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문화재 지켜온 비구니스님 보현행
불단 등 고색창연한 목조건축 정수
첨자, 살미 등에 강한 생명에너지
후불탱, 불단, 닫집 혼연일체 채색

치밀하고 단단한 건축짜임

공포구조를 짠 건축의 뼈대들, 예컨대 살미와 첨자, 소로 등은 경질의 벽돌처럼 짧고 간결하며 단단하다. 다양한 길이와 굵기의 나무토막으로 구조역학적으로 치밀하게 포개고 결구하고 축조해나간 방식이 성벽을 축성하듯 대단히 중첩적이면서 탁월하다. 개체들의 구조적 결구와 조합은 고저장단의 선율을 갖춰 리드미컬하고, 유기화학의 공유결합처럼 강고하기 그지없다. 특히 네 모서리 귀공포는 직선의 힘과 곡선의 역동성, 고색창연한 색채가 어우러져 한국사찰건축의 가구구조가 지닌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준다. 구조, 형태, 색채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규범적 고전주의 구조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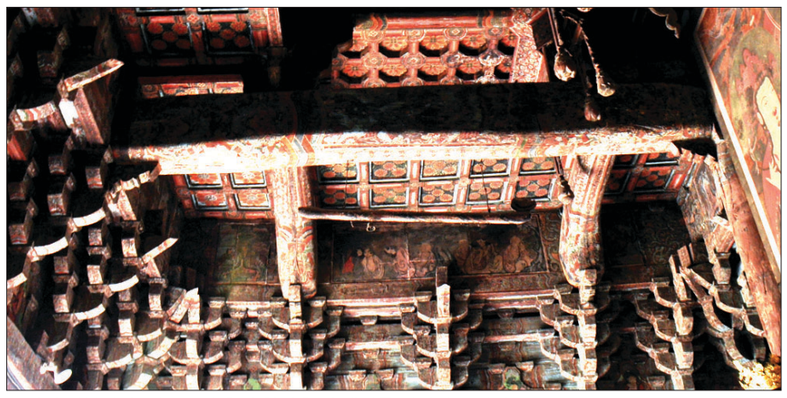

백흥암 극락전 천정의 전체모습이다. 세 장의 사진을 결합했다. 채색에서 전체적 통일성과 구도에서 좌우대칭성 구현의 목적의식적 의지가 뚜렷하다.


천정에 베푼 세 가지 연화문과 반자 틀 위의 문양.


고색창연한 색감과 함께 짧고 단단한 귀공포 결구에서 구조역학의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천정의 구조양식은 상하 두 개층의 층급을 지닌 우물천정이다. 천정은 웅장한 아미타삼존불 후불탱을 충분히 늘어뜨릴 수 있을만큼 높고, 깊은 층급을 두어 공간의 깊이와 위엄을 갖추었다. 바깥에서 보면 극락전은 단정하고 아담한 규모로 보이지만, 막상 실내로 들어서면 공간감이 깊고 풍부하며 위엄서린 높이를 갖추고 있어 놀랍다.

천정의 의장에서 주목되는 장엄은 닫집의 형태다. 닫집의 형태는 포작이 없는 독립적인 운궁형이지만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의 정형(定型)과는 자못 다른 다각형이다. 비선형적 특성을 지닌 비유클리드적 형태로 독특하다. 닫집중에 이와 유사한 다각형 형식의 닫집은 팔공산 너머 환성사 대웅전에서 찾을 수 있다. 닫집의 형태는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편 형국이다. 또아리를 튼 용의 몸통엔 기운이 넘치고, 몸통비늘의 묘사는 최근에 마무리한 듯 생생하면서 극히 현실적이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도 남음이 있다. 닫집 내부의 우물반자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청색 빛의 청학이 천도(天桃)를 취하고 있어 이채롭다.


극락전 내부장엄. 대들보에 용의 형상을 한 횃대를 매달아 두었다.


아미타 삼존불과 후불탱.

아라베스크적 반복과 대칭

천정에 베푼 문양은 세 가지다. 관념적인 연꽃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 가지 연꽃 형상은 마치 〈관무량수경〉중 제8관 '상상관(想像觀)'을 조형언어로 일깨우는 방편처럼 보인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저 연꽃을 자기 손바닥 보듯 일심으로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세 연꽃은 각각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의 상징이고, 아미타여래와 두 보살은 극락세계에 두루 가득하시기에 극락전 천정에 연꽃을 빈틈없이 충만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찰천정의 화엄장엄은 다분히 아라베스크적이다. 아라베스크 양식은 꽃과 식물의 형태를 모티브로 취한 기하적 문양으로 대칭과 반복, 회전을 통해 장엄공간을 무한히 확대해나가는 조형방식이다. 점, 선, 면의 반복적인 무늬의 패턴으로 공간은 연방 생기로 가득차고, 미묘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반복과 대칭을 통해 종교적 신성과 무한, 일체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문양과 불교장엄은 일맥상통하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에서 이르기를 하늘의 연화처럼 미묘한 꽃은 아미타부처께서 법장비구로 계실적에 세우신 48대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저 연꽃을 보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을 보는 것이니 연화대를 볼 때는 다른 번잡한 생각을 하지말고, 하나하나의 꽃잎, 알알의 구슬, 빛줄기 하나하나, 한 송이마다의 꽃을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듯 일심으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천정의 연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선 꽃을 피우는 바탕의 근원세계가 대단히 미묘하고 아름답게 표현해서 놀랍다. 검은 바탕의 천공에 진초록, 혹은 황토색으로 넝쿨처럼 나선형으로 꿈틀대는 뚜렷한 신령의 기운을 묘사하고 있다. 불가설불가설의 현묘한 힘을 우아한 넝쿨형태의 파동에너지로 그려 넣었다. 넝쿨은 동양적 생명생성의 근원인 기(氣)를 표현하는 것이며, 무생법인(無生法忍)의 미묘한 진리의 자비임에 분명하다. 생명의 꽃, 진리의 꽃, 부처의 꽃이므로 그 꽃은 엄숙하다. 엄숙함으로 인하여 천정의 꽃은 화엄의 꽃이다. 파란 녹이 낀 청동거울에 화엄의 꽃이 엄숙히 피어있다. 백 가지 일이 흥한 백흥암에서 그것은 백 중의 하나일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어찌하면 부처가 되겠노?"

마음씨 타령 ⑥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소화를 하려면은 있다 없다 둘을 다 버려야 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몽땅 버려 버리고 나중에 산 거를 굴리고 죽는 거를 굴리고 있는 거를 굴리고 없는 거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차차차차 이것이 납득이 갑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면은 그때는 삼계를 뛰쳐납니다. 이 지구뿐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탁 벗어나 버려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대강 여러분도 아, 그러리라 아실 건데, 실로 이런 얘기는 말로서 이래저래 안 됩니다. 죽도록 해서 자기 의견을 내서 말을 해봤든 전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을 땐 내 말을 신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버리지도 마세요 내 말을. 하하하. 왜 그러느냐? 내가 진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뭣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은 하느냐. 부처님도 진짜 말을 못합니다. 죽도록 했자 그 진리의 그 지도리의 그림자를 붙잡고 이렇고 이렇다는 이 정도지, 어째 부처님이라고 해서 진짜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부처님이 진짜 말을 하셨더라면, 하실 수가 있었더라면 말 한마디만 딱 하셨을 겁니다. 어째서 팔만대장경이 나왔겠습니까? 그러하니 부처님 말씀이 곳에 가서 이런 말 하고 저 곳에 가선 저런 말 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런 줄 아시고 인생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는 것은 의심만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공덕을 가져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 합시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귀에 넣어 놓기만 넣어 놔도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되면서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알 때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잊어버려도 좋아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거 내가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기회에 내가 얘길 하죠. 잊어버려서 한 삼십여 년 후에 탁 하게 아이쿠 이건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전부 내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들어봐도 모르겠더라, 그 들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좌우간 어떻든지 상승설법은 들어놓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강송] 앎과 모름 뛰어넘은 본바탕이라
지견으로써 옳그름을 풀이안하면

이 자리는 마음씨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뛰어 넘은 본바탕이라

지견으로써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풀이를 안 하면은, 지견으로써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다 풀이를 하지 않아. 지견 그대로만 간직해 둬.

> 삼계를 벗어나는 단계는
> 말로 설명할 수 없다.
> 법의 도리는
> 당장 이해 안 가도
> 몇 십년 후에 깨닫는
> 씨앗이 되니
> 들어두는 것만으로도
> 공덕이 된다.

[강송] 어즈버야 모든반연 녹아서가니
지화자자 좋을씨고 물달도밝네

물에 달이 환하게 밝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래 이래 하니 이래 이래한 거 아닌가 하는 지견풀이를 절대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는 공부가 되겠노? 이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공부가 되겠노 이렇지만은 그 생각이 말이죠 공부를 짓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나는 어찌하면 부처가 되겠노? 이거 고질병입니다. 나는 어찌하면 공부가 되겠노?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말이죠 바로 대도자리, 열반자리요 보리상인데 보리상을 자기가 턱 일으켜. 나는 어찌하면 공부가 되겠노? 나는 어찌하면 부처가 되겠노? 하는 그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보리상이라.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열반상이라. 그 생각 자체가 부처라. 부천데 이걸 모르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말이죠. 내가 나의 앞길을 막는 거나 한가집니다.

물론 이 얘기는 한 고비 넘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어찌하면 나는 공부가 되겠노.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한 고비 넘은 사람들 얘깁니다. 실로 육조같은 그런 분은, 혜능같은 그런 분은 아주 무식쟁이란 말이죠. 무식쟁이고 상놈이고 못나고, 세상에 이 지구에서 나쁜 건 전매특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슬기자리가 밝았어. 아, 그만 당장 자기 마음씨 알아버렸단 말이죠. 참 이상한 거여. 칠백 명인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노? 예,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은 상놈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너 땅개가 어찌 왔노? 나 부처 되러 왔습니다. 너같은 땅개가 부처가 돼?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몸은 스님하고 내 몸하고 다릅니다. 성품자리는 하나 아닙니까? 아, 너 굉장히 날카롭구나. 일어나 나가거라… 그렇게 말할 때는 법은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팔 개월 동안이나 방아 찧기를 안 했습니까? 설법 한 번도 못 들어 보고 조실 스님이 어느 방에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근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전생에도 공부를 했던 모양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화신이라 해도 좋고 상관이 없거든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는 전생 후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엉뚱한 말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몸 나투기 전에는 전생이고 몸 나툰 이것은 현재고 죽고 나서 몸 없어지면 후생이라 하는데, 이거는 껍데기 몸뚱이 이것 파도, 이것이지 참말로 여러분들이 그 몸뚱이, 끄집고 다니는 그 자리에 전생이 어딨습니까? 오늘이 어딨으며 내일이 어딨으면 천 년 전이 어딨으며 만 년 후가 어딨습니까? 알아듣겠나? 말해 봐요. 전생 후생이 있느냐 말이죠. 나 이름을 모르겠다. 한 번 말해보란 말이여.

그러나 이걸로 봐선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내가 이 방에 나올 때 와 지금 내가 다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기쁜 마음으로 발심하고 정진하자

이렇듯 인간다운 생활을 주장한 원효대사는 또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이 거저 농사를 짓는다, 장사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러는 것이 병신 같기도 하고, 얼빠지고, 못난 짓 하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마는 그에게도 속으로 생각이 있고 한 번 숨겨 둔 모순이 튀어나오는 날에는 수무공능 응기설화 유여천고(雖無功能 應機說話 猶如天鼓)라는 말을, 즉 비록 어느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공이 있는지 무슨 천재적인 포부가 있는지 알 수 없더라도 어떤 기회에 당도하여 톡 말리 떨어질 때에는 뇌성벽력 같은 소리가 난다.

학문하는 선비나 수행인이나, 지조를 지키는 남자나, 여자나, 이와 같은 이들이 자기 처지에서 기어이 자신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발표할 경우에는 벽력보다도 더 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다.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기생의 딸로서 제 자신도 결국 한낱 관기(官妓)일 수밖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한 말은 하나하나 이 작품을 통해 뇌성벽력 같은 말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향기로운 말들을 전편을 통해 말해 준다. 이런 진리를 원효대사는 간파(看破)했었다. 무리(無理)한 가운데에 지극한 이치가 있고, 그러잖은 사회에 크게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만세상이 놀랄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어야 한다. 아미타불은 그의 명호만 부르면 그 사람을 기꺼이 맞아들여 내 나라,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어 여기서 생활하도록 해 준다. 만일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아미타불 노릇을 안 할 것이다 하는 비원을 세웠다. 그 원력으로서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부모 된 생각으로는 자식을 안 키우고 못 배기는 것과 같다. 자식을 키움으로써 부모는 살고, 구원 받는 것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써 그 생명이 발육되고 동시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몸이 더욱 튼튼해진다. 아미타불과 우리들 죄의 업장이 많은 중생들은 이와 꼭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나마 아미타불 하고 염불 생활을 한다. 이것은 거듭 설명한 바이지만 보은하고 감사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미타불의 강력한 원력의 배, 반야용선(般若龍船)에 탄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저절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이렇듯이 하여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 감사하다, 은혜를 갚겠노라는 이 소리는 '나는 사람 노릇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다. 사람다운 구실을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일인가.

그의 마음과 행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알뜰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나무아미타불로 요약되고, 염불하는 거기에 일체의 계율과 선행은 다 포섭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포섭지의(包攝之義)가 있고 총섭해서 말끔히 다 그 원리에 거두어 들 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으냐. 가장 깨끗하고 훌륭하다. 홀로 높은 것이다. 독존지의(獨尊之義)가 있다. 만 인간이 이 길을 밟아야 된다. 이 길에 이르러 비로서 다들 돌아가 나무하고, 합장하고, 절할 수 있는 귀취지의(歸趣之義)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염불이란 가장 쉬우면서, 탄탄한 대로이고 틀림이 없어 백도(白道)라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한길'이란 뜻이다. 탄탄한 넓은 길을 밟아 가면 그만이다.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선을 한다고 죽을 노릇을 다해 애를 쓰거나 불교의 학문을 하느라고 교리가 이러니 저러니 논하거나, 또 어려운 계율 같은 것을 지켜야 남이 우러러 본다는 둥, 그렇게 하는 난행도(難行道)를 해 나가고들 있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 이행도(易行道), 아무라도 다 되는, 아이 · 어른 · 남자 · 여자 · 지위 높은 사람 · 낮은 사람 · 병신이거나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이 평탄한 길만큼 안태하고 믿음직스런 길은 다시없는 것이다.

> 이 허공계가 다하고
> 중생의 마음 따라 수순하고
> 업이 다해 번뇌 다할 때까지
> 불도를 닦으면 된다.
> 잠이 오거든 자고
> 잠이 깨거든 염불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무지심귀명례 서방아미타불(南無至心歸命禮 西方阿彌陀佛) 원공제중생왕생안락국(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루 하루의 일과를 어떤 거룩한 이와 더불어 의논해 본다. 여기 조목 조목을 다시금 들어 본다면 열 가지 일을 하게 된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여 예배드리고 모든 부처님과 중생에게 널리 지공하여 공양을 지어 올리고 업장을 참회하고, 청불 주세하고, 천천 법륜하고, 상수 불학하고, 항상 중생의 마음을 따라 수순하고, 이렇게 하기를 널리 닦아 나가는데, 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이 저지르는 그 업이 다하고 생각하는 바의 그 번뇌가 다할 때까지 한다.

우리는 항상 행(行)과 원(願)을 발해 나가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조금도 싫증이 없이 언제든지 이를 기쁨으로서 이룩한다. 기쁘다는 생각을 할 동안은 정진을 하고 싶고, 싫증은 날 리 없다.

'아이고, 뭐 그따위 것을 다 하라고 해?' 할 때엔 벌써 거기엔 기쁜 마음이 없다. 게으름이 붙고, 퇴폐해지고 허무한 데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이런 부질없는 생각일랑 버리고, 항시 기쁜 마음으로서 신심(信心)을 발하고 발심(發心) 정진할 따름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 노릇하는 일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며, 이렇듯 일상생활을 통해 이를 행동화하고 끝내 성취한다는 것이다. 주야 육시(六時)로 간단없이 생각하여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지속을 갖는다. 이를테면 하루 24시간 내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잠은 언제 자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얘기가 있다. '아이구, 스님, 염불하라 하시는데 잠이 오네요' '잠이 오거든 자고, 잠이 깨거든 염불하지' 이것이 자나 깨나 염불하는 생활인 것이다.

이로써 총체적 결론을 마무리며 행원례의 해설을 전부 끝낸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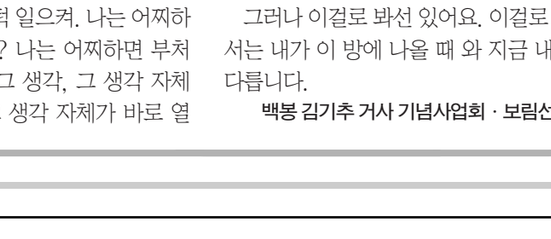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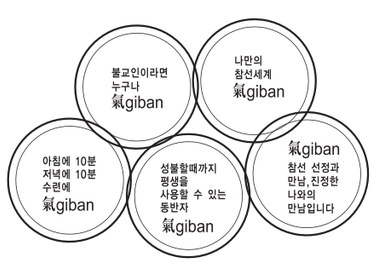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곳곳 발딛는 한걸음마다

대한민국 최초 대학자원봉사단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 1997년 6월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발족한 대학사회봉사의 효시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이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봉사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 사진은 11월 29일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해외봉사단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제1회 동참인의 날’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는 1~6기 참사람봉사단 해외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2013년 4월 불교계 국제구호NGO인 지구촌공생회의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해 겨울 캄보디아 정콧 초등학교에서 학교 담장 공사 봉사활동을 진행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단원인 한 학생이 건 전화였다.

“저희가 봉사활동 했던 정콧 박정순 초등학교를 위해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단원들은 겨우내 도서관 건물 주변의 벽화를 그리고,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드는가 하면, 담장과 대문을 직접 만든 터였다. 대부분의 시설이 충분하게 들어섰지만 지구촌공생회 담당자는 캄보이아 학교 선생님들과 논의를 통해 뒷담장과 화단을 만들기로 했다.

전화를 건 학생에게 이러한 결정내용이 알려지자 곧 100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당시 봉사활동을 진행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일반학생까지 총 38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이었다. 한 달 여 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콧 초등학교는 반듯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행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이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1997년 6월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발족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 하에 대학사회봉사의 효시로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다.

참사람봉사단의 특징은 위의 사례처럼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봉사를 비롯해 해외봉사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자발적 봉사참여

“저희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대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회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동국인들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인간미와 인성을 갖춘 도덕적 리더, 즉 ‘참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이죠.”

손재현 참사람봉사단 부단장은 실질적으로 참사람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다. 손 부단장은 참사람봉사단의 활동이 학업에만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사람봉사단은 매주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매달 헌혈 및 생명나눔 캠페인 홍보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도 국내 소외된 지역의 아동을 위한 캠프봉사와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한다. 또 각자 전공의 특성을 살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공학문연계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 6월 대학 최초 자원봉사단 발족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 생명나눔 앞장

소외 아동위한 교육캠프 · 공부방 인기

학교 측 드림패스제도로 봉사계기 만들어

불경 등 녹음봉사하며 불심도 키워가

해외봉사 이후 기업 프로젝트 사업 병행

“자비와 나눔 실천은 곧 우리 모두 이익”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참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신입생부터 드림패스(DREAM PATH) 제도로 봉사활동시간이 의무화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권유에 의한 봉사활동 참여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봉사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나눔의 봉사활동이 해맑은 웃음을 머금은 멋진 학교생활로 이어지는 일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봉사 속에 자연스럽게 싹트는 불심

참사람봉사단은 봉사와 함께 포교에도 일조하고 있다. 불교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이기에 자연스럽게 전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람봉사단은 2014년 4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불교관련 서적을 ‘녹음도서’로 만들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낭독봉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도서는 CD와 ARS로 제작됐으며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서울시청 서울도서관을 통해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에 제공됐다.

참사람봉사단은 2013년 4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MOU를 체결하고 2권의 불경도서를 녹음했고 2014년에는 법륜스님의 ‘붓다인간’, ‘깨달음’, ‘퇴근 후 30분 요리’, ‘사회복지학’ 등 4권을 만들어 기부했다.

녹음도서 기증은 흔히 ‘낭독봉사’나 ‘목소리봉사’로 불린다. 봉사자는 시각장애인이 음성만으로 책이나 그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소리’로 돕는 역할을 한다. 한 번 녹음으로 지속적이고 영구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정확한 발음과 발성으로 녹음도서가 제작되어야 하므로, 녹음을 수십 번 다시 하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봉사자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고, 녹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도 노력도 많이 소요된다.

학생들은 녹음봉사에 동참하며 자연스럽게 불교의 정신을 익히기도 한다. 불교서적이나 불경의 경우 표현의 어려움으로 낭독하고 녹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미를 더 곱씹게 되는 것이다.

낭독봉사에 참여했던 박찬희(철학과 3) 양은 “낭독봉사는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봉사여서 참여했다”며 “4시간에서 5시간 연속으로 녹음하는 등 긴 기간에 걸쳐 만든 녹음도서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손재현 부단장은 “매년 낭독봉사를 진행하는데 녹음도서 제작은 시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개인봉사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측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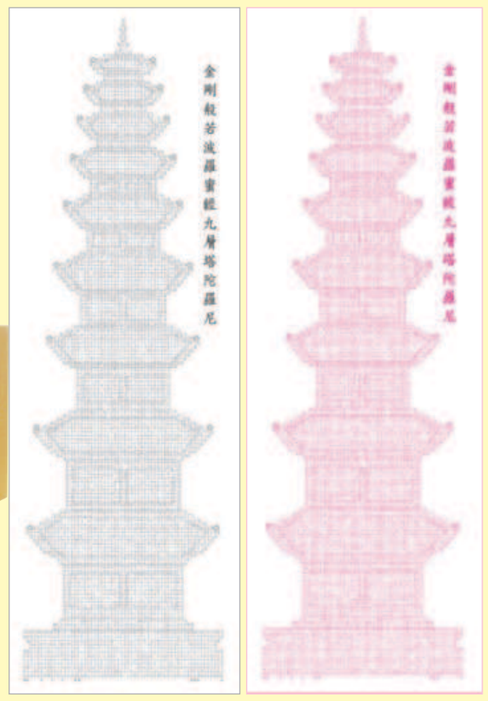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 이상) 정 가 5,000원
• 68cm×195cm (먹색,적색)
• 전통재래한지


부처님 자비의 향이 가득”



2013년 정콧 박정순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한 참사람봉사단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로 생명나눔 명예의전당에 올라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참사람봉사단이 주관한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2013년 국내외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의 협약



2012년 카자흐스탄 장애노인쉼터 건립 모습

자들이 녹음하기 어려운 불경 등 전문적인 도서를 맡아 녹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자막과 시각장애인 화면해설을 만드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 일하는 문희상 (영상영화학과 졸업)씨는 “학창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지를 깨달았다”며 “졸업후 진로결정에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생들

참사람봉사단의 여러 자원봉사 중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는 것은 바로 서울 중구와 2005년부터 10년째 진행 중인 ‘멘토링 공부방’ 이다. 멘토링 공부방은 중구가 자체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에는 기존의 방과 후 공부방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1대1 맞춤식 가정방문 교육,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공부방, 논리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 영어 ·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을 교육하는데 참사람봉사단 소속 동국대학교 학생 619명이 참여했다. 공부방에 수강한 초등학생만 1662명에 이른다.

공부방의 장점은 대학생 한명이 2~4명의 초등학생을 전담해 가르친다는 점이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가진 이들이 이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공부방 모집 때는 이를 신청하려는 학부모들로 자치회관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한 보람이 있다는 입소문으로 동국대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봉사로 국가 위상 제고, 해당국 이해 폭 넓혀

참사람봉사단은 2012년부터 매학기 방학마다 해외에서 학교 및 쉼터를 만드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해외에서 학생들이 직접 건물을 짓는 과정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평소 해보지 않던 톱질, 망치질에도 익숙해지고 흔히 ‘물갈이’ 라고 하는 해외현지 적응과정도 거쳐야 한다. 매끼 식사를 해먹는 것도 큰 일이다. 아침, 저녁은 물론 취사시설이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매일 아침 단체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했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이 진행하는 해외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현지 역사와 문화, 사회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기존의 다른 해외봉사활동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생들은 건물을 세우며 틈틈이 지역학 수업을 듣는다. 해당 국가의 역사는 물론, 현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위치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 참사람봉사단 학생들은 유아부터 중 ·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부터 다양한 미술 ·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댄스 등 체육활동을 준비해 선보이기도 한다.

곽락원(건축학과 3) 양은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곳 사회 분위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비의 봉사정신은 봉사자 스스로의 공덕으로 쌓인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기 카자흐스탄 봉사단 학생대표를 지낸뒤 항공사에 취직한 정석찬 군은 “해외봉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현재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자비와 나눔의 실천은 곧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손재현 부단장은 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해도,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며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배우는 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사람봉사단 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나는 중매대상 일 순위

“스님, 장가가실래요?”

지난 해 이맘 때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던진 말이다. 마을 초입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나를 보면 늘 웃으며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그 날의 질문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부터 나오고 말았다.

동네 초입의 할머니는 그 날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참한 처자가 한 명 있는데 선을 한 번 보시지?”하고 물어보았다. 나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었다. “할머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독신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장가를 못 갑니다.”라고 정리해 주었더니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지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외롭게 어찌 혼자 살아?”하며 생각이 바뀌면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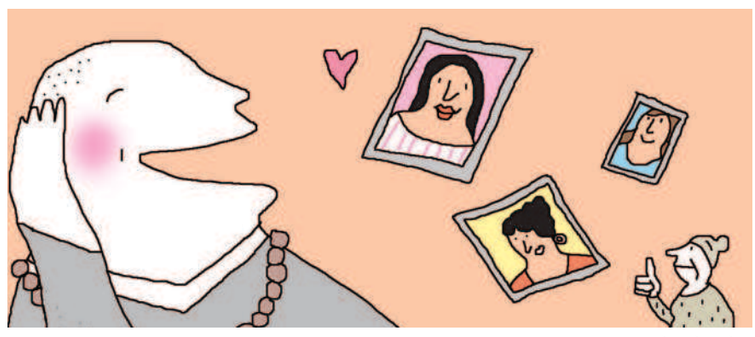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동네에 땅을 사서 절을 후다닥 건립하니까 돈이 아주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었나보다. 또한 이 동네 주변에 크고 작은 절이 있는데 다른 종단 소속의 사원이라서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아온 터라서 대부분 스님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은 동네 할머니들에게는 내가 중매일 순위가 되었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절에서 함께 지내는 우리 공양주 보살을 장모님으로 여기고 안부를 묻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곳에 절이 생겼다니까 이웃마을 사람들도 가끔 방문하는데 법당참배보다는 나를 먼저 찾는다. 이럴 때 이분들의 방문 목적은 사주나 택일을 봐 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로 알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재주가 없어서 봐 줄 수 없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준다. 이런 경우는 시내에서 신도들이 줄줄이 들어오니까 주지스님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렇다. 동네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주풀이에 특별난 재주와 능력이 있으니까 멀리서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그랬듯 아직도 시골의 어르신들은 절의 기능은 불공해주고 관상 봐 주는 그런 곳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러하므로 동네 가까이 절이 있어도 초파일이나 동지 때 가서 축원하는 정도로만 여기도 있다. 다시 말해 불교의 진리를 듣고 배우는 법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착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었다. 절에 49재가 있는 날은 과일과 떡을 준비하여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절에 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덕분인지 초하루에 한 두 사람들이 다녀가더니 지금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대중법회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일을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 눈치더니 차츰 적응해가는 것을 보면서 절의 공간이 단순히 기복(祈福)에만 머물러 있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 오던 첫 해부터 사월초파일 저녁마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음악회의 장르는 ‘7080 통기타’ 로 정하고 70, 80년대의 추억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가수들을 섭외했는데, 이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높았다. 청주 도심의 신도들은 늦은 밤에 오기가 힘든 거리지만 동네 주민들은 걸어서 구경삼아 오기에 딱 좋은 잔치이기 때문이다. 초파일 산사음악회 때마다 동네주민의 숫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올해 초파일에는 윗마을, 아랫마을에서도 구경 와서 즐기고 갈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 아무래도 도시와 달리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에서 유명가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음악회는 그 것 자체가 동네의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의 포교전략은 법회든 음악회든 절에 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 일은 계속할 것이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세속화된 명상, 부처님 가르침인가?

브라운 인디애나대 교수, '존 카밧진 전략' 고찰

미국에서 주류 문화로 떠오른 명상. 불교의 테두리에서 시작된 '명상'이 대중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켜본 종교학계는 이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

〈Huffington Post〉 지는 캔디 군터 브라운(Candy Gunther Brown) 교수(인디애나대학)의 말을 인용, "명상 관련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불교도(이하 Stealth Buddhist)'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은 현재 불교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현재 미국 곳곳에서는 명상 관련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운영되고 있다. 병원과 교도소는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이하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환자와 재소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교육 과정으로 MindUP 프로그램을 운영, 아이들의 심성을 다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은 사내 프로그램 Search Inside Yourself를 통해 직원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예는 많다.

〈Huffington Post〉 지에 따르면, 부처님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팔정도'를 가르쳤는데, 이중 '올바른 명상' 즉, '정념'이 바로 명상 수행의 원형이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명상은 '정념'과는 다르다. '세속화'의 과정을 밟아온 '명상'이기 때문이다.

〈Huffington Post〉 지는 브라운 교수의 말을 인용, "세속화된 명상에 함축된 것은



명상이 미국에서 주류 문화로 떠오르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뺀 세속화된 명상이 전파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불교 · 종교학계, 명상 세속화 우려

"부처님 팔정도 '정념' 가르쳤지만

미국 사회 명상은 정념과는 달라"

자기 자신의 몸, 마음, 감정을 바로 보며 인식의 능력과 범위를 키우고 긍정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연민과 자비 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을 개발하는 데 주목하는 것"이라며 '세속화된 명상'을 정의했다.

또한 "세속화된 명상은 원론적으로 불교의 수행 방법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전제한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세속화된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교'나 '종교'를 끌어들이지 않고, 오직 '영성'이나 '명상'만을 말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세속화된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강조하고,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uffington Post〉 지는 존 카밧진(Jon Kabat-Zinn) 교수의 말을 인용, 'Stealth Buddhist Strategy'라고 풀이한다.

1979년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를 설립한 이래 미국 명상계(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카밧진 교수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에서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어 실천한다면, 불교에 귀의하지 않고, 특히 신성을 훼손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불교가 말하는 의미 있는 마음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Stealth Buddhist Strategy'를 설명했다.

Insight Meditation Society를 설립한 카밧진 교수는 MBSR 프로그램을 개발, 현재 'Stress Reduction Clinic', 'Center for Mindfulness in Medicine, Health Care, and Society'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운 교수는 "명상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불교적 시비나 감성을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카밧진 교수의 전략이 지금의 미국 명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상을 한다는 것'과 '불교도가 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게 한 단초"라는데 주목했다.

카밧진 교수의 'Stealth Buddhist Strategy'은 1990년 티베트의 14대 달라이 라마의 지지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명상은 대중문화의 주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Huffington Post〉 지는 '세속화된 명상'을 놓고 학계와 종교계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 주목했다.

명상 지도자 제지 윌크스(Jenny Wilks) 박사는 "카밧진 교수의 'Stealth Buddhist Strategy'은 부처님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게 아닌 보다 효과적인 치유를 위한 방법론"이라며 "세속화된 명상의 방법론은 현대적이기는 하지만 그 원형은 분명 불교 전통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명상이 주류 문화로 떠오른 것은 반기고 있지만, "명상 기술에만 집중하고 특정 목적에만 집중하는 관련 프로그램은 부처님 가르침을 폄하는 것(불교계)", "미국에서 명상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명상의 대중화 전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은 물론 불교의 본질을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종교학계)"등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uffington Post〉 지는 "1990년 이후 급성장해온 명상에 대해 미국 불교계와 종교학계의 반성적 고찰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세속화된 명상'과 관련한 고찰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민족 정체성 회복 캠페인 확대

다람살라서 매주 수요일 기도회 열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 티베트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매주 수요일 '하얀색 수요일(라카르)'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티베트인들이 민족 정체성 회복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민족 동화 정책에 맞서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12월 1일(현지시간)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 티베트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매주 수요일 '하얀색 수요일(라카르)'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 학생들은 달라이 라마가 출생한 수요일에는 교복 대신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고 등교해 운동장에 모여 달라이 라마와 조국을 위해 기도를 올리며 티베트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쩌링 팔통(10 · 여)양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과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전통 두루마기를 입고 기도회에 참가하니 마치 가 본적 없는 부모님의 티베트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라카르 기도회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직전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反)중국 유혈시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혈시위가 진압되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적 통치에 항의를 표하는 뜻에서 라카르를 시작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티베트 전통 복장을 하고 민족 음식을 먹으며 티베트 상품만을 구매하는 등 중국에 저항을 해왔다.

티베트인들이 라카르를 거행하는 것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중국 당국의 정책으로 파괴되는 민족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자유티베트학생운동의 조츠나 사라 조지는 "라카르 운동은 티베트 민족 동질감 교육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잠재적인 정치적 역량을 길러준다"고 말했다.

국제티베트네트워크의 롭상 쳐텐은 "청소년들이 이 운동을 통해 티베트 민족 뿌리 의식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과 유대감을 갖는 의식을 기른다"고 평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인도 지역 12개 사원 소유권 이전돼

콘다팔리 교수 "중국 지배권 강화 복안"

800여 년간 티베트 드룩파(Drukpa)에 속해 있었던 사원 12곳이 익명의 한 스님에게 귀속됐다고 〈Economic Times〉 지가 12월 3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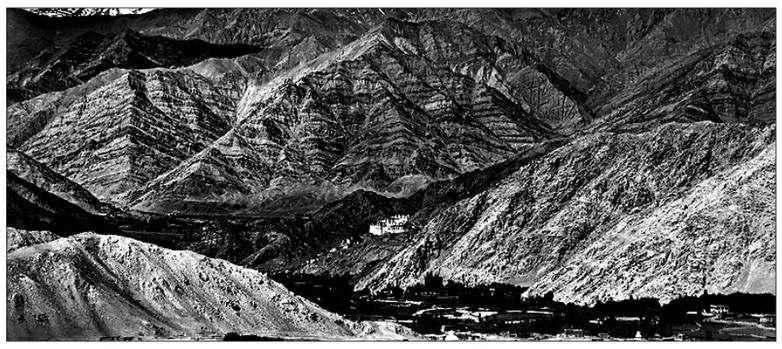
〈Economic Times〉 지는 "인도 라다크 지역의 첨마르(Chumar)와 뎀촉(Demchok)에 있는 12개 사원의 소유권 이전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도를 방문하는 동안 전격 진행됐다"고 전하고, 드룩파 12대 지도자 징메 페마 왕체(Jigme Pema Wangchen) 스님의 말을 인용, "12개 사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은 1951년 달라이 라마 망명 후 지배권을 놓고 중국과 인도의 갈등을 야기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2003년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갈등은 종식됐다.

사원 소유권 이전에 대해 '중국 전문가'인 스리칸트 콘다팔리(Srikanth Kondapalli) 교수는 "12개 사원 소유권 이전은 지난 2011년 선거에서 참패한 중국 정부가 해당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라다크를 기점으로 히말라야 일대에는 300여 개의 드룩파 사원들이 밀집해 있고 '티베트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첸 스님은 "지난 9월 첨마르와 뎀촉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원의 스님들 대부분 인도 삼색기를 흔들며 '반 중국 정서'를 표출했다"며 "이번 소유권은 지난 9월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라다크를 기점으로 히말라야 일대에는 300여 개의 드룩파 사원들이 밀집해 있고 '티베트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축구팀 우승 위해 스님들 초빙

스님들 훈련장 방문해 선수 다리 때리며 승리 기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레스터시티(Leicester City)가 8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Bleacher Report〉 지는 "레스터시티가 리버풀(Liverpool)과의 경기를 앞두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스님들(Stick-Wielding Buddhist Monks)'를 초빙했다"고 보도했다.

스님들은 지난달 연패에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의 선수들의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다리를 내리치며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베풀어 연패 탈출에 일조한 바 있다.

이후 스님들은 '지팡이를 휘두르는 스님들(Stick-Wielding Buddhist Monks)'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약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지팡이를 휘두르는 스님들(Stick-Wielding Buddhist Monks)'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일약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레스터시티의 스트라이커 제이미 발디(Jamie Vardy)는 구단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스님들'을 초빙한 것에 대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인 이적이 우리 팀에도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의 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전법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3판 인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불러주시면
초청법회 및 싸인회를 통해 전법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찰과 단체(회사,기관,학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 3판발행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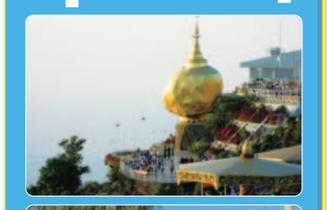
열린선원의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법현 일정 :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후, 2.3.4주 일요일 오전, 음력 18일은 법회를 하고 있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상기 외의 시간과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에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 무상 법현 합장

주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 연락처 02)386-4755
이메일 opentemple@hanmail.net / 스님 직통 010-5245-0370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항공 (8M AIR)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6일	179만원

– *꽃보다 청춘* 라오스 (인천 및 부산 출발가능)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특급호텔 진행)	6일	149만원

– *세계문화유산* 정통 스리랑카 순례 6일 199만원

※ 모든 일정은 10인 이상시 출발, 여행자 보험 가입,
각국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전일정 각국 비자수수료 포함.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꽃보다 동자승’ 훈훈한 마음 담으세요

‘경륜 스님의 착한 전시회 이야기’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에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꽃이 여기에 있다. 환한 미소의 동자승이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경륜 스님의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훈훈한 겨울을 만들어준다. 스님은 말한다. “꽃이 펴서 봄이 아니라 네가 와서 봄이다”

그렇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봄이 될 수 있다. ‘경륜 스님의 착한 전시회 이야기’가 12월 13일까지 경북 구미 여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남는 시간에 틈틈이 그림을 그려왔다. 전시로는 이번이 네 번째다.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처럼 재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는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주변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2010년 처음 전시를 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죠. 전시한 그림 200점이 다 나갔어요.”

스님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먹선으로 스케치하고 채색해 그려냈다. “제 그림의 주된 소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에요.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가령 아이들은 닭들이 단추를 다 집어 먹어서 뱃속에 달걀이 들어 있다고 말해요. 너무 기발하고 재미있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모여 그림이 됐어요.”

스님 그림 속 동자승은 기존의 모습을 탈피,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 아이들의 다양한 소망도 담아냈다. 물고기에 발이

어린이집 에피소드 그림으로
4회째 전시회 열며 수익금 전액 기부
12월 13일까지 여정아트갤러리서





‘경륜 스님의 착한 전시회 이야기’가 12월 13일까지 경북 구미 여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들의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달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스님이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의 바람은 고스란히 그림에 담겼다. 선화가 수안 스님은 경륜 스님의 작품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틀을 깨는 전시”라며 “주제의 신선함이 돋보인다”고 평할 정도로 동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스님의 전시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수익금 전액을 혜명 요양원과 금오종합복지관 등 소외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점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 역시 수익금을 소외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제 전시는 그림이 쉬워서, 웃는 게 기분 좋아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관람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인만큼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했다고. “타일이나 컵에 그림을 그린 소품도 내놓고, 방명록도 기존의 딱딱한 서명란보다는 과일 포스터잇을 큰 접시에 붙일 수 있도록 꾸몄어요. 또한 연말에 하는 전시인 만큼 다식과 차를 준비해 송년회 오는 기분으로 들르셔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스님의 일정은 바쁘다. 각종 바자회와 단체 등의 연말 행사에 그림을 기부해 작은 전시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달 강원도 홍천의 군부대 화보에 그림을 보시하는 등 스님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3년 뒤에는 서울 인사동 전시를 목표로 한다는 스님은 오늘도 환하게 웃는 동자승을 통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054)456-31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선 사람들 열망과 불심 엿보다

상원사문수전 문수보살좌상
보물지정기념 복장유물특별전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원행스님)은 2015년 1월 11일(일)까지 상원사문수전 목조보살좌상 보물지정을 기념하는 ‘화엄연꽃가지를 들다’ 복장유물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과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유물을 한곳에 모아 발원문과 경전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시에서는 1466년에서 1670년대 조성된 상원사문수보살상과 문수동자상 불복장을 통해 조선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불복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뿐만

2015년 1월 11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 전시실

아니라, 불복장이 지닌 상징과 더불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인들의 지극한 열망 그 순수한 불심을 엿볼 수 있다.

발원문은 불상을 만들게 된 이유와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후대에 보수한 기록도 적어놓고 있다. 문수동자상의 발원문에는 세조의 둘째딸인 의숙공주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오대산 문수사에 여러 불보살상을 만들고 모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수보살상의 발원문에는 705년 처음 문을 연 상원사가 1660년 세번째 중창을 하였으며 순치18년인 1661년 오대산진여원에 문수대보살, 오대오여래, 남순동자, 선재동자 등을 조성한 사실이 적혀있다. 또한 아미타불, 대지문수사리보살, 대비관자재보살 등 모든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의 빛 대비원력으로 몸과 마음의 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환적 청공자 의천의 발원내용이 묵서와 주서로 적혀있다.

1661년 조성된 상원사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의 복장에서는 불경류, 기문류, 다라니류, 후령통 등 33종의 자료가 발굴되었다. 이는 대부분 고려중기부터 조선초기의 자료들인데 수적으로는 묘법연화경이 가장 많았고 백지묵서사경인 광백론석론 권5와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고려시대 사경으로서 가치를 본다면 단연 으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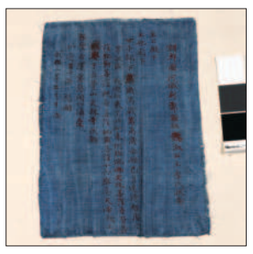
문수보살조성발원문은 불상의 조성연대와 조각승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라니와 후령통도 당시의 복장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상원사목조문수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은 2014년 1월 보물제1811호, 1812호로 지정됐다.

이에 그동안 복제품으로만 만났던 세조어의와 의숙공주발원문을 원본 그대로 전시한다. 문수보살상의 발원문과 진언다라니, 장정이전의 묘법연화경 전권을 살펴볼 수 있는 점 또한 주목된다. 문수동자좌상과 상원사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물을 통해 복장물이 지닌 의미와 상징, 문수보살상 복장의 특징 등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033)339-6633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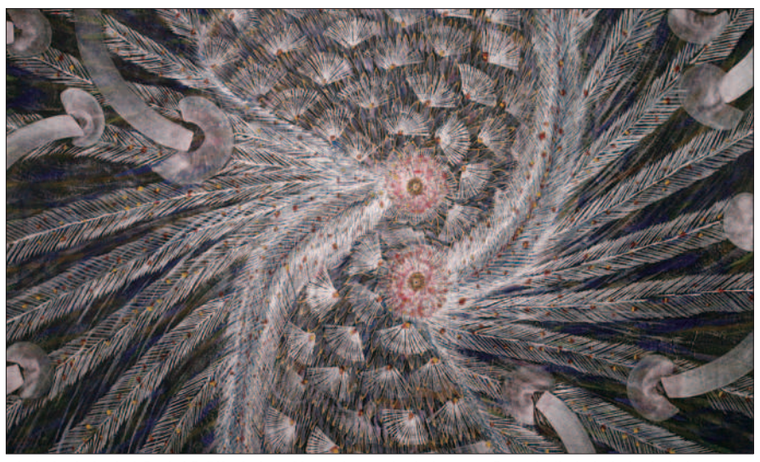




상원사 문수전 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보물793호 세조어의(왼쪽)와 보물793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의숙공주발원문.

‘만다라’ 영혼 보듬는 끝없는 항해의 시작

김영옥 7회 개인전 ‘출항’… 12월 12일~18일



만다라 작가 김영옥의 ‘출항’전이 12월 12일~18일 상암 DMC 홍보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세상의 소리를 담은 큰 배의 출항입니다. 이 속에는 마음에 상처 입은 자, 희망을 잃고 떠도는 자, 사랑이 메마른 자, 그들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이 영혼들을 보듬는 끝없는 항해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7회 김영옥 개인전 ‘출항’이 12월 12일~18일 상암 DMC 홍보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새벽 명상으로 마음을 비워내고, 그 빈 공간에 저절로 고이는 심상들을 건져 올려 ‘새김과 문양과 그림’으로 담아내는 만다라 작가 김영옥 씨.

만다라는 마음을 비추는 ‘사방이 둥근 거울’이라고 말하는 그는 지난 20년간 새로운 만다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만다라에 서예, 전각, 석채(石彩)가 도입하기도 했죠. 또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내 마음부터 담아내기 위해 마음 속 우주를 명상으로 재해석했어요. 이번 작업은 붓으로만 새기듯 그렸어요. 그래서 상징들이 정형이 아니라 작품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무정형(無定形)’이 됐어요.”

그간 작가는 창작과 더불어 만다라 보급에도 주력했다. 작가에게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만다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 만다라심리학회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만다라 보급 프로그램과 만다라워크북을 제작해 세상에 만다라를 알려왔다. 특히 ‘마그마힐링(magma healing)’ 프로그램으로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며 만다라로 세상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왔다. (02)309-7067

정혜숙 기자

BTN ‘한민족 통일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식

‘제 1회 한민족 통일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BTN 불교TV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민족 통일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종합대상(대통령상)은 기악 부문의 임정선 씨가, 학생부 종합대상(통일부장관상)은 기악 부문 김수진 학생이 수상했다.

일반부 대상에는 판소리 부문에 김예진, 무용에 우한웅, 민요에 유희선, 전통연희에 임영호 씨가 각각 선정됐다. 학생부 대상에는 판소리 부문에 조예원, 기악에 황보민경, 민요에 김시화, 전통연희에 강수정 학생이 선정됐다. 일반부 종합대상에는 시상금 5백만 원과 5백만 원 상당의 부상이,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각각 시상금 1백만 원과 5십만 원이 수여됐다.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7십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정혜숙 기자

천양희 시인 제9회 불교 문예 작품상 수상



제9회 불교문예작품상에 천양희 시인〈사진〉의 ‘나는 자연을 쓰는 서기’가 〈불교문예〉 2014년 가을호)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혜관, 장영우, 문태준 씨 등이 참여했으며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6시 인사동 대성한 정식에서 진행된다.

천양희 시인은 “시를 써온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오십년만에 겨우 시를 통해 사람을 알았고 사람을 통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품상을 주시니 게송(偈頌)을 받듯 두 손으로 받겠습니다. 이 상으로 제 정신의 그름을 거두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시의 염주나무 한그루 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의 고비를 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인사의 글을 남겼다.

천양희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람 그리운 도시〉 〈하루치의 희망〉 〈마음의 수수밭〉 등이 있으며 소월문학상 현대문학상 제13회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정혜숙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명품승복(가사전문)
발명특허 3땀가사 제10-1448820호
전통 3땀
명품승복 사장인 저는 사찰에서 관음기도 중 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상(賞)을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①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②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③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문화人

부처님 자비광명 불음으로 전파 … 30여년 지휘자, 작곡가로

작곡가 강영화(옥련선원 지휘자)



30년 넘게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온 강영화 씨. 2014 전국불교 합창제 회향의 무대에서는 자신이 작곡한 신곡 '향연'을 발표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사진=하성미 기자

'향연'으로 전국불교합창제 회향
1천 여명 참가자 합창 감동 연출
조계사 청년회가 등 작곡 하며
대학 때부터 찬불가 보급에 매진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가 사르는 이 한 줄기 향이 온누리에 퍼져나가라~"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2014 전국불교합창제 회향의 무대에서는 새 찬불가 '향연'이 발표됐다. 전체 참가자 1천여 명은 물론 객석에서도 함께 피날레 곡을 부르며 온누리에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의 향이 퍼져 나가길 발원했다.

'향연'을 작곡한 강영화 씨(52 · 인제대 음악과 겸임교수)는 사찰합창단 지휘는 물론 다양한 찬불가 작곡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화여대 음대 작곡가 재학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인연' '불공을 마치며' '내 인생의 부처님' '그날, 님을 보내는 맘' '길'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찬불가들을 작곡해왔다.

신곡 '향연' 역시 전국불교합창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곡으로 선정되어 참가자들과 객석을 감동의 물결로 이끌었다. "덕신 스님의 가사에 제가 곡을 붙였어요. 워낙 가사가 좋아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작곡을 했죠. 천 명이 한 무대에 설 수 없으니 마지막 무대는 부산연합 팀들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피날레 공연이다 보니 대기하고 있던 전 참가자들이 1층에서도 2층에서도 함께 노래를 불렀고 관중들도 함께 후렴구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저도 그 순간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그대로 전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작곡자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교학생회에서 반주자로 활동했고 대학시절에는 신촌 봉원사 근처에 살면서 스님들의 범패소리를 듣고 채보해 범패를 연구하는 등 불교 음악과 깊은 연관성을 맺으며 성장해 왔다.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서 학교를 다녔어요. 1982년,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와 조계사 청년회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지휘를 맡기도 했죠. 그러면서 찬불가가 너무 대중과 동떨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작곡을 시작했어요. 당시 '조계사 청년회가'도 작곡했는데 지금까지도 청년부 법회서 불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가 작곡한 수많은 곡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사형수가 쓴 시에 곡을 붙인 '길'(1985)이다.

"당시 한 스님께서 시를 주셔서 제가 거기에다가 곡을 부쳤어요. 요령 등을 전주 부분에 넣어 조계사 청년회에서도 연주를 했죠. 서창업 선생님께서도 제 곡을 듣고는 기대되는 마에스트로라고 칭찬해주셨어요. 이후 부산시립합창단과 광주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음반과 책 등으로 만들어졌죠."

강 씨는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조계사 어머니 합창단과 금강불교대학 합창단(현재 관문사 합창단) 지휘, 또 봉은사 합창단 반주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또한 고향인 부산의 옥련선원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열의도 보였다. 이후 유학생활까지 마치고 부산에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27년간 옥련선원 합창단을 이끌었고 지역 불교음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종교음악을 주제로 음악인들을 초대한 공연이었다고. 강 씨는 초파일 즈음 불교음악의 밤에 초대되어 전 곡을 자신이 작곡한 찬불가로 연주하는 무대를 가졌다. "지휘는 물론 스테이지별로 해설하는 시간이 있어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한테 불교음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불교음악이 신비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뿌듯했죠."

강 씨는 앞으로도 대중들이 부담 없이 듣고 부를 수 있는 찬불가 작곡을 발원한다.

"제가 불교음악을 처음 시작한 1982년도만 해도 사찰합창단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었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불자 비불자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은 아직 없는 거 같아요. 포교적인 차원에 이런 곡이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정혜숙 기자



강 씨는 27년간 부산 옥련선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옥련선원합창단 연습 장면



제 5회 작곡 발표회 공연 기념 사진

한 가락 산 노래로 나무꾼과 수답하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㊽ 진관사 ㊦





진관사 대웅전. 문신 이승소는 문집〈삼탄집〉에서 진관사와 관련한 시를 썼다.

사가독서의 장소였던 사찰

"세종(世宗)이 처음으로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문학(文學)하는 선비들을 모아 놓고, 아침저녁으로 맞아서 자문하였다. 그러고도 오히려 문학이 진작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중에서 젊고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게 하였으며, 공궤(供饋)를 매우 풍족하게 해 주었다. 정통(正統) 임술년(1442, 세종24)에 평양(平陽) 박인수(朴仁), 고령(高靈) 신범옹(申泛翁), 한산(韓山) 이청보(李淸甫), 창녕(昌寧) 성근보(成謹甫), 적촌(赤村) 하중장(河仲章), 연안(延安) 이백옥(李伯玉)이 명을 받고 삼각산(三角山) 진관사(津寬寺)에서 글을 읽었는데, 공부를 무척 부지런히 하였고, 시(詩)를 주고받는 것도 쉬지 않았다. 그 당시에 승려 일암(一菴)이 항상 수행하면서 그 글들을 등사하여 전하였다."

성현(成俔 1439~1504)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의 한 대목이다. 진관사는 국가적인 수륙재가 열리는 도량이고 삼각산 서북쪽에 위치하여 한양과 가까웠으므로 선비들의 방문도 잦았을 것이다. 거기에 세종이 유능한 젊은 선비들에게 휴가를 주어 진관사에서 글을 읽게 했으니, 절은 당대 지식인들의 집합소 역할을 했다.

세종 때 시행된 이 특별휴가 제도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는데 젊은 선비가 사가독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상당한 광명이자 일종의 권위이기도 했다. 임금이 실력을 인정하여 특별히 휴가를 주어 학문에 더 집중하도록 했으니 '가문의 영광'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한 사가독서의 장소로 진관사 등 사찰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절 선비들에게 절은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조용하고 깨끗하여 공부하기에 좋은 수련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스님들은 선비들과 지식을 교류하기도 했고 그들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용재총화〉에 나오는 선비들이 지은 글들을 모은 책이 〈육선생유고〉로 편찬되어 전해지고 있다.

세종 때의 문신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경우도 진관사 스님들과 교유가 깊었던지 그의 문집 〈삼탄집(三灘集)〉에는 진관사 관련 시구가 몇 편 수록돼 있다. '진관사의 주지 명신이 부채를 보내주다(津寬寺住持明信惠扇)'라는 시를 보자.

증종선원청시명(曾從禪苑聽詩名)
환선금장기후정(紈扇今將寄厚情)
막아론교위양지(莫訝論交違兩地)
수지결업재삼생(須知結業在三生)
한한최선운림와(閑閑最羨雲林臥)
역역다참세망영(役役多慙世網嬰)
방장기시문연어(方丈幾時聞軟語)
차조계수탁진영(借曹溪水濯塵纓)

내 일찍이 선원에서 시의 명성 들었는데
깁부채를 보내어서 후한 정을 보이었네.
논교하니 떨어져서 있는 것을 걱정 말고
업 맺음이 삼생에 다 있다는 걸 부디 아소.
한가로이 운림 속에 누운 게 젤 부럽거니
애 쓰면서 세상 그물 걸려 몹시 부끄럽네.
방장실서 어느 때나 나긋한 말 듣고 나서
조계의 물 빌려 나의 티끌 갓끈 씻으려나.

고단한 일상, 떠나고 싶은 마음

시에는 부채를 보내 준데 대한 감사 이상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한가로이 운림 속에 누운 것이 제일 부럽다'는 것은 벼슬살이에 바쁜 자신의 일상에 대한 반조이다.

그래서 미련에서 스님에게서 좋은 말씀을 듣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시의 핵심이다.

'조계의 물'은 절 주변에 흐르는 계곡물을 뜻하는데, 양나라 지약(智藥) 선사가 광동성 남쪽에 흐르는 시내의 물맛을 보고 그 상류를 찾아 보림사를 세운 것에서 연유한 말이다. 이승소는 진관사의 맑은 물에 티끌 많은 자신의 갓끈을 씻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내며 시를 맺고 있다. 갓끈을 씻는다는 말은 한시에서 자주 인용되는 은유다. 벼슬을 떠나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의 삶을 지향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낙일정정백첩요(落日亭亭白堞遙)
청류상억석남교(淸流尙憶石南橋)
명하취백다하상(明霞翠柏多遐想)
일곡산가답만초(一曲山歌答晩樵)

아슬한 저 성가퀴에 해는 이울고
맑은 물은 상기도 석남교가 기억나오.
명하라 취백이라 속(俗)을 떠날 생각 많아
한 가락 산 노래로 나무꾼과 수답하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서교(西郊)의 진관사(津寬寺)를 지나면서'라는 시다. 그의 문집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1권에 실려 있다. 제목 그대로 해가 질 무렵 진관사 근처를 지나며 쓴 시다. 시인의 의중은 세 번째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명하는 밝은 노을을 말하고 취백은 푸른 잣이란 말인데, 이는 도가(道家)에서 먹는 장생불사의 약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덕무는 진관사 근처를 지나면서 자신도 고달픈 벼슬살이를 버리고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진 것이다. 그런 심사이기에 '한 가락 산 노래'를 읊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고 나무꾼과 수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무꾼과 수답한다'는 것은 '선비' '사대부' 등으로 표현되는 신분의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나무꾼과도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이니, 차별의 세상에서 무차별의 세상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조계의 물 빌려 나의 티끌 갓끈 씻으려나'하는 이승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하겠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가요 SD Card 사용 경우)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렌덤 발송

* 스님들께서 불자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6 ~ 1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4	함이 없이 하는 도리(한영합본)	대행	한마음출판사
5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김영사
6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7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8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4인	운주사
9	리셋	월호	마음의숲
10	빅 마인드	데니스 젠포 메젤	정신세계사



‘대승’ 이란 중생들의 마음

대승기신론

지안 스님 강해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 즉 ‘나를 알려 하는 공부’가 ‘불교공부’이다. 이러한 불교공부의 지침을 제시하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대승기신론〉이다.” 중생들의 마음을 대승이라 선언하고 이 마음에 대하여 논리 정연한 설명을 해준다. 즉 마음은 무엇인가, 그 정체에 대해 가장 차원 높은 이론적 설명을 가해 놓은 책이 〈기신론〉이다. 책은 저자인 지안 스님이 7년 전에 〈기신론〉 공부를 위한 교재로 출판했던 〈대승기신론 강해〉의 개정판이다.

인도 스님 마명이 지었다고 알려진 〈대승기신론〉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한역본이 유통되고 있다. 진제 스님의 역본과 실차난타 스님의 역본 중 진제 스님의 한역본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로 불리고 있다.

〈대승기신론〉을 번역, 해설한 지안 스님 〈사진〉은 〈대승기신론〉을 경전보다 먼저 읽어야 할 책이며, 불교공부를 위한 ‘표준 교과서’라고 말한다. 이는 간결하고 논리정연한 설명을 통해 대승(大乘)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승기신론〉은 모든 중생을 실어 열반으로 운반해주는 큰 수레, 즉 ‘대승’이 참된 이치를 깨닫고,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나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것이 지안 스님이 수많은 불교서적 가운데 〈대승기신론〉의 일독을 권하는 이유다. 특히 이 책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기신론〉을 임의로 문단을 나누고 번호를 매겨 강해해 한문 원전의 난해함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 불교에 입문했으나 그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불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신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이다. 물론 오행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권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육자(六字)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 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일심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또한 일심이 가진 특성을 체(體),상(相), 용(用) 삼대의 이론으로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대승에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며, 나아가 실천적 행을 닦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의 법을 생각하고, 부처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항상 친하게 하고 가까이 하여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고 항상 온갖 바라밀을 수행할 것을 생각하고, 승보가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스스로 이롭게 하며, 남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보살들을 친하게 하고 가까이 하여 실다운 행을 배우는 것, 이것이 네 가지 믿음이다.”



‘불교공부’ 지침 제시하는 ‘교과서’
“경전보다 먼저 읽어야 할 책”
대승사상 종합적으로 다른 최고 논서
중관 · 유식 · 여래장 종합해 논해

위의 내용은 ‘수행신심분’에 설해져 있는 ‘사신’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신론〉을 지으면서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권수이익분의 5분으로 논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5분으로 설해지는 〈기신론〉의 내용은 대승의 근본 대의를 밝히는 동시에 대승불교사상의 양대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을 포함하여 여래장사상까지 종합하여 논하고 있다. 특히 특정 경전에 대한 한정된 논술이 아닌 대승의 사상을 종합하여 논했다는 점은 〈기신론〉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능가경〉의 내용을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어 〈능가경〉의 별신서(別伸書)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기신론〉처럼 대승의 대의를 포괄해 논한 논서는 드물다.

역자인 지안 스님은 “근래에 서구에서는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신을 찾아가는 타 종교와는 달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불교의 특징이 탈종교화 시대인 오늘날의 정서에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문명의 위기 속에 인간의 심성이 피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의 참된 성품에 대한 불교의 설명을 듣고 나면, 자기의 삶을 바로 음미하여 새로이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자구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며 “수많은 불교서적 가운데 이 〈대승기신론〉은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우선은 대승불교의 이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고, 다음으로는 이 책을 읽은 인연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대승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아울러 바라기 때문이다.”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명당’ 이란 무엇인가

명당의 원리와 현장풍수

덕원 지음 | 정신세계사 펴냄 | 3만원



〈명당의 원리와 현장풍수〉는 진짜 명당의 원리를 공개하고, 자연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던 선인들이 지은 사찰과 서원들을 찾아 그 배치를 살핌으로써 명당의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또한, 잘못된 풍수지리 개념들을 바로잡고, 혈을 찾는 심혈법의 응용법과 현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장묘문화의 건강한 대안을 제시한다.

“풍수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자연과 합일한 마음이며, 그로써 터득한 기감으로 진혈(眞穴)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풍수가들이 자연의 기운을 보지 못하니 자꾸만 주역의 일부가 보태지고, 오행이 보태지고, 패철이 보태져서 풍수지리가 난해한 학문 또는 미신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흔히 쓸 만한 명당은 이미 다 썼다거나 명당이라고 믿으면 그 자리가 곧 명당이라고 말들 하지만 심혈법(心穴法)으로 보면 명당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의 1부 ‘명당의 형성 원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풍수이론을 되읊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진짜 명당의 원리를 공개한다. 저자는 “지금껏 풍수가들이 신봉해온 풍수이론을 잘 들여다보면 뜻이 모호하거나 왜곡된 채로 전해진 내용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엄연히 땅의 규모와 성질이 다른데 중국의 상황을 우리 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말한다.

2부 ‘사찰명당 및 서원명당’에서는 자연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던 선인들이 지은 사찰과 서원들을 찾아 그 배치를 살핌으로써 명당의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본다.

3부 ‘기존 풍수관 바로잡기와 사례 분석’에서는 각 개인은 물론 한 국가까지 잘못된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잘못된 풍수지리 개념들을 바로잡고, 4부 ‘심혈의 응용과 새로운 장묘문화’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혈을 찾는 심혈법의 응용법과 현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장묘문화의 건강한 대안을 제시한다.

5부 ‘우리 자연에 맞는 장경’에서는 그동안 겉핥기 수준으로만 번역되고 이해되어왔던 〈장경(葬經)〉을 속뜻까지 풀이하여 풍수가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짚었으며, 부록 CD에는 국내 최초로 실제 명당 20곳의 천광작업 사진 312매를 수록함으로써 풍수를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한 잔 차에 하늘과 땅의 위대함이

중국 다도 수련법 기초 차식

우위웬쯔 지음 | 김태연 옮김 | 조율 펴냄 | 1만4천원



중국 다도 수련법으로 만든 기초 차식을 소개한다. 기초 차식은 단순히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경지를 체험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반성하게 하여 더욱 완벽한 자아를 만들어 가는 수신의 과정이라고 소개한다.

중국에서 차는 전통문화와 결합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간직한 ‘다도(茶道)’라는 문화를 탄생시켰다. 다도란 사람이 차를 우려 마시는 행위의 결정체로 차의 참맛을 깨달을 뿐 아니라 찻일의 미적인 승화를 거쳐 결과적으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차를 맛보고 음미하며 더 나아가 차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과정은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다도를 통해 인문학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차’는 중국인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가 되었다. 중국 문인들이 거문고, 바둑, 서예, 그림과 더불어 차를 즐겼고, 고승들의 차선일미와 중국인들의 생활필수품 일곱 가지인 개문칠건사에도 포함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천 년간 각각의 방법대로 차를 즐겨왔다. 그리고 그들은 차를 통해, 차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모색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차를 통해 도를 깨치고자 했다. 도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다도 역시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도는 단순히 탁상공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차를 우리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세상에 수많은 마실 거리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차만이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하 수 있기에 단순한 기호음료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차는 그 종류에 따라,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따라 우리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기본 원칙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저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중국 다도 수련법으로 ‘기초 차식’을 만들었다. 기초 차식은 단순히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지를 체험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반성하여 더욱 완벽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수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책이 소개하는 기초 차식은 시연용과 수련용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만 안심을 한다. 그렇게 정보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삶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장자가 “휑하니 빈방이지만 환하게 밝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이는 방을 비워야만 밝음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한 것이자 한 잔의 차로써 우리 마음의 방에 가득 찬 우매함을 비워내는 한줄기 밝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찻잔에는 하늘과 땅의 위대함이, 차호에는 해와 달의 이치가 들어 있다고 했다. 몇 가지 다도구를 꺼내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차로써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우주가 열리는 것이다.

다도란 ‘찻일’의 미적 승화 거쳐
인생에 대한 깨달음 얻는 과정
단순 ‘음료’로 생각할 수 없어
‘기초 차식’은 수신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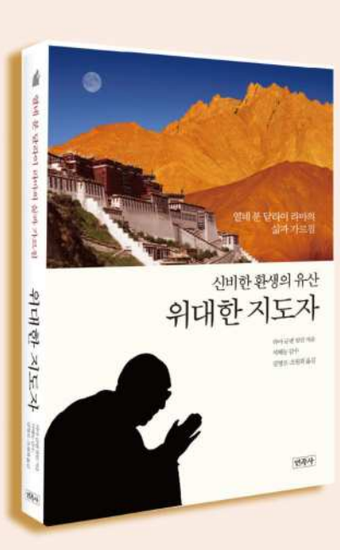
이 작은 우주에서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성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저자는 “다도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차를 우려보세요.”라고 대답한다. 그는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자주 우려보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차를 우리며 접하는 다양한 느낌은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은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차를 미실 수 있다는 것은 ‘청복(淸福)’이다. 그러나 이 청복을 누리자면 우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습을 통해 터득한 특별한 감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먼저 깃들어야 한다. 중국에서도 정성을 다해 한 잔의 차를 우리는 것을 ‘꽁푸(功夫)’라고 한다.

박재완 기자

환생 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그 신비 속에서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 본다

최초로 1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삶과 가르침, 고뇌를 담은 책!!!



신비한 환생의 유산
위대한 지도자

1대 달라이 라마 –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대 달라이 라마 –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실현
3대 달라이 라마 – 파드마 쌈바와의 예언
4대 달라이 라마 – 칭기즈칸의 후예
5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의 정신적 · 세속적 지도자
6대 달라이 라마 – 자유로운 생활과 사랑의 노래
7대 달라이 라마 – 하상 칸의 박해를 피해서
8대 달라이 라마 – 불안한 시대
9대로부터 12대까지 – 달라이 라마들의 요절
13대 달라이 라마 – 가장 도전적인 삶
14대 달라이 라마 – 인도로의 탈출

라마 글렌 멀린 지음
석혜능 감수
김영로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452쪽 | 값 23,500원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운문사 일진 스님이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설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 값15,000원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시련 극복하려면 회복탄력성 높여라

내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린다 그레이엄 지음 | 윤서인 옮김
불광 펴냄 | 2만3천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경회로망을 토대로 한 우리의 내적 반응이다. 외적 스트레스원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원에 대한, 조건화된 내적 반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조건화, 탈조건화, 재조건화라는 세 가지 기법을 통해 회복탄력적이지 않은, 심지어 역기능적인 오래된 반응 양식을 재배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또한 세상은 그 고통을 이겨낸 경험으로도 가득하다. 그 좋은 예는 스포츠 스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패배와 부상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야구선수 류현진, 끝없는 도전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지만 굴하지 않고 묵묵히 금자탑을 쌓은 축구선수 박지성. 이 둘이 현재 위치에 있게 된데는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웬만한 시련쯤은 가볍게 털고 일어나는 강한 멘탈이다.

이들의 멘탈은 우리도 간절히 갖길 원하는 자질이다. 친구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갈등, 예상하지 못한 돈 문제 등 일상서 겪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물론 실직이나 이혼, 부모나 자녀의 죽음처럼 순식간에 삶을 마비시키는 '재앙'은 우리 삶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 상황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회복탄력성의 유무, 위기관리 승패 좌우

일상서 시련과 맞닥Em렸을 때 그걸 잘 딛고 일어서는 사람과 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 부류의 차이를 '회복탄력성'의 유무서 찾는다. 회복탄력성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인생의 굴곡을 무난히 넘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다.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와 비극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심리치료사이자 명상 교사, 워크숍 지도자, 저술가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경험을 쌓아온 린다 그레이엄은 이번 책에서 뇌 과학과 대인관계 심리학, 마음챙김 수행법을 통해 우리 안의 회복탄력성을 일깨우는 82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의연할 수 있는 법, 평상시에도 안정감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난제들에 유능히 대처하는 기법들을 지금 당장 일상에 적용하도록 상세히 일러준다.

1분간 연습만으로도 '멘탈 갑' 될 수 있어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정신 활동은 새로운 신경경로를 생성한다. 모든 경험은, 어느 정도는 뇌를 재배선한다. 만약 뇌의 재배선 과정을 주도하고 싶다면 새 신경경로를 생성하고, 오래된 경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재배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회복탄력성을 목표로 뇌를 재배선하고 싶다면 회복탄력성과 연관된 신경경로를 새로 닦아줄 회복탄력적인 경험들을 선별해서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흔히 '멘탈 갑'이라 부르는 사람들 역시 수많은 시련과 난관들에 직면하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그들이 탁월한 것은 성장 과정서 자연스럽게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회복탄력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물처럼 주어진 재능이 아니라 오랜 진화를 거쳐 모든 사람의 뇌에 이미 내재된 자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되살리고 강화할 수 있을까?

회복탄력성 일깨우는 82가지 법 제시
1분 호흡법 등 과학적 증명된 방법들
3원리는 조건과, 탈조건화, 재조건화
기법 따라하다보면 시련 극복 쉬워져

그 가능성은 '뇌 가소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어느 시점 이후로 변화를 멈추는 게 아니다. 뇌는 계속 변한다. 우리가 선택한 행동 하나, 외부 자극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의 작은 변화 하나가 뇌를 계속 새롭게 만든다. 회복탄력성을 기르려면 회복탄력성을 줄이는 행동과 태도를 피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과 태도를 취하면 된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아, 내가 지금 딴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고작 1분간의 연습에서도, 해결 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만으로도, "싫어" "좋아"라는 말을 들을 때 몸 안서 무엇이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 한 편을 꾸준히 읽기만 해도 뇌는 회복탄력적으로 바뀐다. 이는 경험으로도 확인되고, 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리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새로운 조건화, 둘째, 탈조건화, 셋째, 재조건화. 이 세 가지 기법을 통해 회복탄력적이지 않은 뇌뿐 아니라, 심지어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오래된 반응 양식을 회복탄력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최고의 안내서

NASA의 회복탄력성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공동 개발한 심리학 박사 대니얼 엘렌버그는 이 책을 "최신 신경과학 연구와 심리 치료, 오랜 전통의 마음챙김 수행법을 접목한, 회복탄력성 향상에 관한 최고의 전문서"로 꼽았다. 이 책은 전미다발성경화증협회에서 수여하는 'Books for Better Life Awards' 은상을 2013년에 수상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에 수여하는 'Nautilus Book Awards' 은상을 2014년에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뜻밖의 시련에 처했을 때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서 제시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을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고통과 시련 앞에서 의연해진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라도 이 책을 덮고 난 뒤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초기불교, 선불교 등서 본 깨달음
비교종교, 상담심리 통해 의미 파악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 | 운주사 펴냄 | 2만원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와 인문학 전반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해온 〈밝은 사람들 총서〉 9번째 권으로, '깨달음'을 주제로 불교 내에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의 관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비교종교학 차원의 종교체험과, 상담 내지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성찰 등을 살펴봄으로써 '깨달음'의 정체와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기획됐다.

모두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의 주제별 요지는 이렇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선종에서의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깨달음을 제1의 깨달음(본각), 제2의 깨달음(시각), 제3의 깨달음(깨달음의 실천)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제1의 깨달음인 본각은 일체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원각(圓覺)'이나 또한 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2의 깨달음은 일체 중생에게 본래 구비되어 있는 본래적 깨달음을 좌선이나 염불 등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 나 자신의 깨달음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제3의 깨달음은 본래성불의 본각에 입각해서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깨달음의 묘용과 실천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국 일상 삶의 모든 행위로 확장된 깨달음을 뜻한다. 현실에서 삶의 매 순간을 깨달음으로 살아가자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본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을 여기 지금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깨달음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깨달음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에 답하기 위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본래의 참된 지평(본각, 진여) — 참됨의 가려짐(무명, 탐진) — 본래지평의 회복과정(시각) — 본래지평 복귀(시각=본각)로 구분한다. 그리고 깨달음의 성취조건을 연기적 사유를 통한 이해능력의 계발과 탐진치의 해체를 통한 마음능력의 계발로 간주한다. 그는 위빠사나 수행이나 교학 탐구는 전자에 치중한 것으로서 후자를 함께 하지 않을 경우 해오(解悟)에 그칠 위험이 크다는 것, 사마타 선정 수행이나 간화선 수행은 후자에 치중한 것으로서 연기적 성찰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은 비교종교학에서의 신비체험 내지 종교체험 연구에 입각해서 깨달음의 유형을 제시하고, 불교의 깨달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깨달음을 일상 의식 상태와는 구분되는 '비일상적 체험' 내지 '변형 의식 상태'로서의 신비체험으로 간주한다. 즉 깨달음을 개인적 의식을 초월한 '궁극적 실재' 혹은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신비적 합일 체험'으로 논한다. 그는 비교종교학에서의 신비체험 내지 종교체험 연구에 입각해서 깨달음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불교의 깨달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세 스페인의 가톨릭 수녀이자 신비가인 아빌라 테레사의 신비체험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추구한 윤리적 완성으로서의 이웃사랑과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이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언급한다.

윤호균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불교의 인간관을 수용하고 불교의 수행방법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개발한 '온마음상담법'을 소개하고 있다. 즉 그는 상담을 문제나 증상의 해결 내지 치료과정(질병 모형)으

김호귀 "매순간 본심 잃지 말자"
윤호균 "고통은 자신의 내면서부터"

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의 실현과정(성장 모형)으로 간주한다. 즉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참 자기'를 알아차려 새로운 안목을 열게 하며, 고통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임을 자각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하게 만든다. 여기에서는 심리적 문제나 증상이 모두 인연에 따른 연기현상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연기의 바탕이자 근원인 본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불교계는 그 실체도 불분명한(?) 깨달음의 문제에만 너무 매달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깨달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하면, 깨달음이야말로 불교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의 지점임을 강조하여 현실적 삶의 여러 복잡한 과정을 애써 무시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작 깨달음의 개념이 어떠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음의 정체는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고, 그 깨달음이 인간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면 마땅히 먼저 깨달음에 대한 냉정하고도 진지한 탐구와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대승경전 선관 교리 차원 넘어 깨달음 세계 표현"

대승경전의 선사상

정운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2만 5천원



흔히 선이라고 하면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떠올린다. 문자와 경전을 버리고 다만 가부좌 틀고 앉아 자신의 안으로만 파고드는 선 수행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선은 교(敎)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정운 스님의 이번 책 〈대승 경전의 선 사상〉은 대승 경전에 전하는 선관(禪觀)을 정리함으로써 선정과 지혜 두 가지를 동시에 구족한 진정한 선을 추구하고자 한다.

대승 경전에 전하는 선관은 단순히 교리 차원을 넘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절요〉에서 "선(禪)이란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의 통칭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선정과 지혜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禪)과 교(敎)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과 교의 균형이 필요하다. 선을 바탕으로 교를 완성시켜야 하며, 교를 근간으로 선 수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정과 지혜라는 두 날개가 겸비되어야만 수행을 원만히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록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선사들은 대승 경전의 선관을 수용해 자신들의 선 사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역대로 선사들 중에는 유식과 선의 결합, 화엄과 선의 일치, 천태와 선의 여일함, 염불과 선의 쌍수 등 끊임없이 교학적인 측면과 선을 하나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대승 경전의 선 사상〉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열반경〉 〈능가경〉이라는 대승 경전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들 속의 선 사상을 찾아 보고 각 학파에서는 그러한 선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6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장마다 한 가지씩, 총 6종의 대승 경전 속에 담긴 선 사상을 다룬다. 제1장은 "〈금강경〉의 선관"이다. 대승 초기 경전인 〈금강경〉의 무상(無相)과 무주(無住), 무아(無我)와 즉비 논리(卽非 論理) 사상을 중심으로 선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 실천적 측면을 살펴본다.

제2장은 "〈법화경〉의 선관과 일승 사상"이다. 일승(一乘) 사상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승을 근거로 작불 사상에 중점을 두어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할 수 있음을 다룬다.

제5장은 "〈열반경〉의 선관과 불성 사상"이다. 열반경의 주제는 일천제를 포함해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불성을 가진 불신(佛身) 즉 법신(法身)이 상주한다는 설이다. 여기서는 특히 법신 상주설과 불성 사상이 중국 선종에서 돈오 견성이라는 선 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둥 역할을 했음을 살펴본다.

제6장은 "〈능가경〉의 선관과 자각 성지"이다.

김주일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욕망 어떻게 발현되는가’ 근원적 질문 던지다

불교로 읽는 古典

자크 라캉의 〈에크리〉



김석
건국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많이 강조하지만 개념 차이와 학문적 방법론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관점 때문에 번번이 벽에 부딪치거나 오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에리히 프롬이나 스즈키 다이세쓰 같은 걸출한 학자가 있었지만 정신분석학과 불교의 비교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대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크 라캉의 대표작 〈에크리(Ecrits)〉의 사상적 의미를 불교와 연관시켜 개괄해보려고 한다. 물론 지면 제한과 불교에 대한 필자의 미력한 학식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두 사상의 외형적 비교나 한 쪽의 관점에서 다른 쪽을 비판적으로 읽는 연구는 사실 각 사상가의 이론과 문제의식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제기된 지평 자체에 주목하면서 하나의 이론이 겨냥하는 목표를 서로의 거울로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가 어떤 이론적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고, 불교사상과 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상징계: 존재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간적으로는 상상계가 먼저지만 존재의 질서는 언어와 더불어 시작되므로 우리는 상징계를 근원적 심급으로 인정해야 한다. 〈에크리〉에서도 라캉은 연대기 순으로 논문을 배치하지 않고 기표(문자)의 초월성을 다룬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세미나’를 제일 첫 장에 두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징계는 물론 언어의 영역이지만 단순히 의사소통 공간이 아니라 존재가 구체화되는 영역이자 주체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다. 라캉은 언어가 주체와 우리의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이라는 기표 유물론 입장을 고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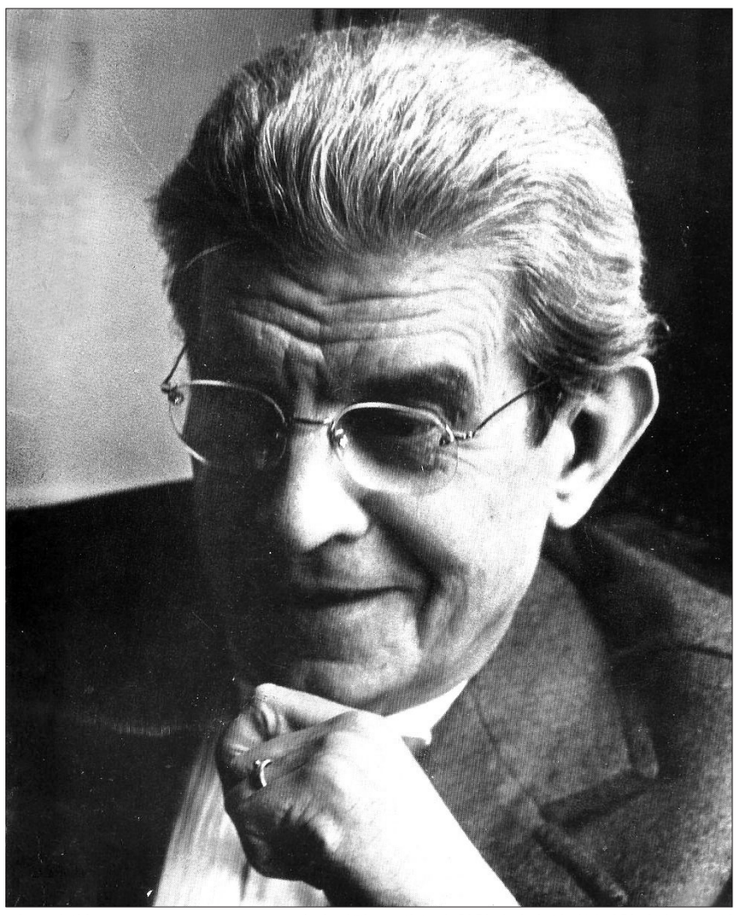
이런 생각은 모든 교법과 사물의 원리이면서 만유와 사물의 있음과 질서를 포괄하는 ‘다르마’(法)사상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대승불교가 말하는 반야가 이런 다르마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듯 라캉은 주체의 유한성과 차이를 낳는 상징계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정신분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보겠지만 라캉이 자아를 이상화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아심리학에 극구 반대하면서 교조적 프로이트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상징계는 유아론(唯我論)적 성향을 가진 자아가 마음대로 통합하거나 바꿀 수 없는 초월적 타자의 영역으로 라캉은 이를 대문자 법(Law)으로 부른다. 어머니와 합일이라는 상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는 아버지가 대표하는 법을 받아들이고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주체로서 자신을 구성한다. 만약 상징계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버지의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주체는 정상적이 될 수 없는데 라캉은 이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본질이라고 재해석한다.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대표 기표를 수용하면서 상상적 이자관계에서 어머니의 남근(phallus)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상징적 거세) 주체로 탄생하면서 욕망을 시작한다. 이후 주체의 삶은 상징계의 대리자인 대타자의 법과 규칙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역할을 부여받는데 지젝은 이런 의미로 〈How to read 라캉〉에서 대타자를 연출자에 비유 한다.

상징계란 초월적인 질서이자 사회적 인과성의 근원으로 기표의 그물망이 짜놓은 구조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강제한다. 이런 상징계의 움직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둑맞은 편지〉이다. 여기서 주체들은 편지에 대한 위치에 따라 맹인(왕), 강탈자(장관), 희생자(왕비)의 역할을 수행하며, 편지가 순환함에 따라 사건이 펼쳐진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이 구조는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맹인(경찰), 강탈자(뒤팽), 희생자(장관)로 역할만 바뀐다. 편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옮겨지면서 모략과 갈등의 궁중 드라마를 종횡으로 엮어 나간다. 문자, 기표, 문학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편지가 모든 사건의 실제 주인공이자 의미의 근원이며 주체는 여기에 예속된다.

하지만 상징계는 절대적 세계가 아니다. 라캉은 언어가 모든 것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의미의 미끄러짐(편지의 순환)을 통해 욕망을 지속시키는 한계를 지님을 지적한다. 무의식이란 이런 언어의 불완전성과 기표와 기의의 반복적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개념적 유사성이나 차이가 아니라 문제의식에 주목한다면 불교가 말하는 연기론(緣起論)을 상징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연기론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것도 없어진다”(〈잡아함경〉) 사상이다. 이것이 상징계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상징계가 인과론적으로 주체의 발생과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모든 사태와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사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그는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해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징·상상·실재계 개념 통해
자아가 가진 욕망 근원 탐구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대상을 통한 욕망 충족은 ‘허깨비’
고정된 실체없는 ‘무아론’과 유사
사상 전반에 연기론·空 사상 맞닿아

존재의 원인이며 언어 덕분에 주체가 구성된다. 하지만 욕망은 대상이 없고, 요구와 욕구의 불일치라는 조건과 타자를 통해 욕망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에서 비롯된다. 이런 심리적 인과성의 관점을 연기론적 시각으로 읽으면 라캉이 상징계를 통해 말하는 의미가 잘 이해된다.

상상계: 자아의 충만한 세계와 무아론

라캉은 주체가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할 때 불가피하게 자아(ego)가 주체를 대신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아는 주체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소외와 오인의 원인이다. 라캉의 이론이 불교와 가장 비슷한 색채를 띠는 부분은 자아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역시 ‘제법무아’(諸法無我)이론을 통해 고정된 실체로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무아론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고, 생성소멸을 반복하고 변한다는 연기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아는 세계의 중심이자 사유와 행동의 주관자로 행세하면서 처음부터 자명하게 주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가정한다. 하지만 실은 거울에 비쳐진 신체이미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라캉은 ‘거울단계(mirror stage)’라는 이론을 통해 자아의 발생과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아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이상화된 자아이미지에 열광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상관계를 시작한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에 동일시하고 이를 완전하게 느끼는 심리는 나르시시즘으로 이후 삶에서 펼쳐질 자기중심성의 원천이다. 그리고 자아는 타자적인 것, 즉 그림자로 우리는 불가분하게 자기에 대한 인식에서 오인과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라캉은 자아가 타자화된 이미지에 불과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지만 그것이 주체를 대신하면서 유아론에 빠지는 심리를 일종의 정신병인 ‘편집증 상태’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식의 투명성과 절대성을 가정하는 철학적 주체이론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자아는 이성의 담지자로 스스로를 가정하지만 실은 존재의 진실을 감추고 이상화된 세계를 투영하는 상상적 심급에 불과하다. 자아는 왜 우리가 그토록 욕망에 집착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욕망에 집착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내 욕망이 실은 타자의 욕망에서 온 것이고, 대상을 통해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주체를 미혹하는 것이 상상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은 불교가 무아론을 통해 경계하는 바와 상당히 통하는 곳이 많다. 라캉은 불안을 주제로 삼은 세미나 10권에서 욕망의 본성을 미망에서 찾는 불교사상에 깊은 친근감을 표시한 바 있다.

자아의 세계는 한마디로 충만함과 통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중심성으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진리를 왜곡시킨다. 라캉에 따르면 주체는 메울 수 없는 존재결여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견디게 만들면서 동시에 감추는 것이 자아의 작용이다. 하지만 라캉은 자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상상계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상상계는 오인의 구조이지만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미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무조건 자아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체성(subjectivity)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주체와 자아의 대립구도는 나중에 주체의 내적 분열이론으로 발전한다. 주체는 언어 속에서 ‘언표 된 주체’와 그것을 벗어나는 ‘언표행위의 주체’로 분열된다는 것이 주체이론의 핵심이다. 이것은 상징계와 상상계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으며 욕망의 구도에 라캉이 윤리적 색채를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욕망의 윤리는 최종 영역이자 진리의 근거가 되는 ‘실재계’로 발전한다.

실재계: 욕망의 윤리와 진리의 근거

라캉 이론에서 가장 이해가 어렵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 바로 실재계(the real)이고, 사상가로서 독창성이 드러나는 부분도 여기다. 만약 라캉이 자아의 상상적 본성과 상징계 이론에만 머물렀다면 여타 구조주의자들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캉은 〈에크리〉를 펴낸 1966년 이후 실재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규명하면서 불가능한 실재에 대한 향유의지인 ‘주이상스(jouissance)’를 강조한다. 주이상스는 쾌락원리를 넘어선 극한 영역에 대한 충동이다. 실재는 욕망이 불가능한 이유이자, 욕망이 윤리적 방향, 즉 존재의 회복으로 정향되어야 하는 근거이다. 그리고 라캉이 지식과 진리를 나누면서 정신분석의 최종 목표가 증상 완화를 목표로 삼는 치료가 아니라 주체의 궁핍화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도 실재 때문이다. 실재는 한 마디로 상징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자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초월적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재는 오히려 언어적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언어의 한계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실재는 언어 이전에 존재하고, 언어를 말할 때 여기에서 벗어나는 잉여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라캉의 〈에크리〉에는 언어와 존재의 모순과 길항관계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는 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실재계를 점점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라캉은 실재를 다의적으로 정의하는데 〈에크리〉에서는 주로 결여(lack)와 무(nothing)를 통해 설명한다. 이것은 주체가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잃어버린 존재와 관계된다.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윤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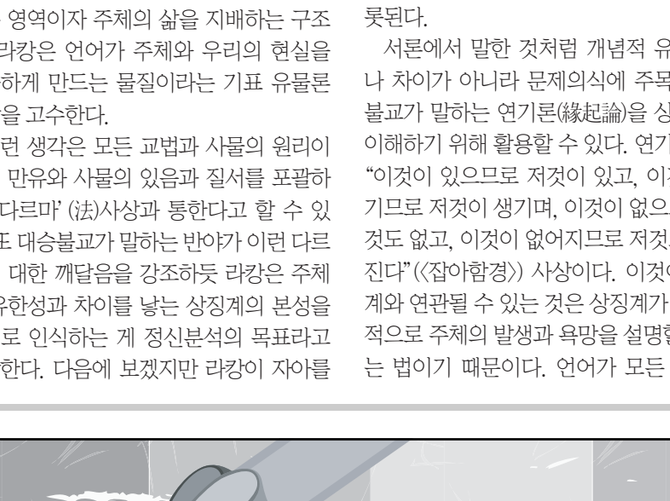
이런 사고는 만유의 실체인 진여(眞如)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사상과 겨냥하는 바가 비슷하다. 진여를 알기위해서 우린 일체의 자아와 사물의 본성이 공(空)임을 알아야 하고, 참다운 지혜인 반야를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공사상은 무에 대한 라캉의 사상과 통한다.

라캉은 세미나 〈불안〉에서 선불교가 ‘무’에 대한 생각을 심화시킨 대표적 동양사상이라고 극찬한다. ‘무’란 만유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언어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不立文字)으로 무한한 변화와 순환만 있다는 사유의 근거이다. 현상을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아와 같은 실체에 매달리려는 무지의 상태 무명은 온갖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갈애를 일으켜 우리를 구속하고 망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은 언어에 의해 구체화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존재의 본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정신분석학자 프롬은 “선은 그 본질에서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기술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향하는 길을 가리킨다”(〈서양철학과 선〉)고 말하면서 불교와 정신분석이 통한다고 강조 한다.

라캉은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의 사상가다. 그런데 욕망은 주체가 자신의 존재결여에 대해 맺는 관계이며, 존재는 언어에 의해 표현되면서도, 그것을 벗어난다. 존재에 대한 열망이 욕망의 참된 이유이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윤리적 당위이다. 비록 갈애를 벗어나 성불할 것을 강조하는 불교와 욕망을 윤리와 연관시키면서 긍정하는 정신분석의 차이는 있지만 실재에 대한 바른 인식 태도와 실천을 강조하면서 인과 사슬의 기만적 굴레에 매이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은 똑같다. 이처럼 우리는 두 사상이 겨냥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생산적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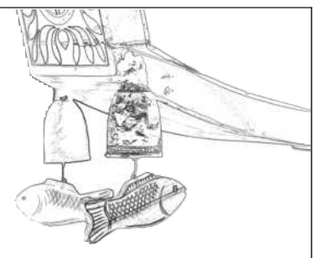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백 년 동안 살면서 천하의 귀신들을 정성껏 섬기고 코끼리와 말 따위로 제사를 지내도 한 번 자비를 행한 것만 못하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출원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다음검색 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사주 배우실 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양산 보성정사)
010-3844-0646 동명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야 콘 판 매

당도와 맛 우수함
사찰음식과 건강
식품으로 용이함
쥬스도 있습니다
011-9503-4848

인도 다람살라에 계시는 달라이라마(성하님) 친견 및 수계 받으실 분을 모십니다

네팔 룸비니와
인도 사대성지 순례포함
스님과 재가불자님
* 네팔 카투만두 타멜에
한국식당 및 호텔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호스님 010-6267-3435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 뛰어넘는 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 재로 이끄는 비법 및 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 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비구니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40-60세
경남 창원시 동읍
010-8543-0464
문수화 보살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포교원(사찰)

전문소개
포교원 할 분은 서울 화곡동에
최고의 장소와 좋은 조건 상담 요
010-5381-1419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동지불사에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70
www.달마.kr

당신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 인생의 길흉화복이 이름과 주역속에 있다. 바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마라! 반드시 한글, 한문을 주역괘로 해석해야 이름의 본질과 성공여부 등을 알 수 있다.
- 실패! 고통! 고민! 병고! 막힌 운 뚫어 개운할 수 있다.
- 개인지도 : 주역성명학, 운세 등 사주통변에 도움됨.

효 도 역 학
010-4007-9057
02)416-2537
(신천역 4번출구 버스 정류장 앞 골목길 50m 큰손닭한마리 2층)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특수하고 또 특수한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기문둔갑, 태을신수
-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 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명 리 학 강 의

(주 1회 3시간 2개월 완성)
사주. 작명. 개명
(전화 상담)
일지암 (서울)
010-3695-1626 법정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지장기도 및 천도법회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지장보궁 지장사에서는 선망부보 왕생극락발원 지장기도 및 천도재를 무주상 보시로 3년간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 초중고 명상수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봉행합니다. 오시는 분께는 네팔에서 가져온 당뇨, 고혈압, 비만에 좋은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출가수행 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지장보궁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 전화 054)332-1189 www.jijangsa.net

제 명 공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임원진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오후 3시
원주 덕흥사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이 합의 찬성으로
종정이하 임원진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제명처리와
동시에 직무수행정지 되었음을 공고함.

2014년 11월 15일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용암 각호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종무소 직원 구함

○ 남녀 불문 ○ PC 가능자
○ 사찰에서 숙식조건 ○ 급여는 상담 후 결정

(충남 부여)
010-5424-5555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 (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 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 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 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나없는 법(無我法)에 통달한 사람이 있다면
여래는 그를 참다운 보살이라 한다"
- 금강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중랑구 산책로 사찰 양도
- 2층건물2층법당1층요사채단청됨
- 시유지포함1.000㎡, 산책로입구
- 역세권. 전망 좋으며 주차장 있음
- 양도금액 : 5억 2천만(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858-833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6303-23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수도권
◎ 부지:4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25평 ◎ 법당:50평,전각3채
◎ 요사:25평 ◎ 요사:100평
◎ 양도:4억5천 ◎ 양도: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망우동 2층 건물 사찰 양도
* 2층 법당 1층 요사채140㎡. 토지 약 150㎡
* 주택 상가지역이나 포교에 좋은 사찰
* 양도금액 : 4억 4천만 (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 안내
- 부산 충무동 포교하기 좋은위치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채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부천시성무로21번길40-19번지 부천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삼불존, 신중단, 영가단 완비
- 일체 다 되어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방 2개, 주방, 별채 방 1개, 종각
- 평수 : 98평, 텃밭도 있음, 창고 20평
- 가액 : 전세 1억 1,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답사 후 조정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구산면 소재
- 평수 128평, 법당 32평 (아미타, 지장, 관세음)
- 원불 500불, 인등 1,500등, 구위패 300위
- 산신 칠성 18평, 용왕 3평, 공양간, 신도방 3개(스님방 2개, 거실)
- 절입구 아파트 1만세대 조성중
- 가액 : 3억 가격절충

010-2567-136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2채 50평, 방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24-362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876-5353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구)부산진역 맞은편 부산일보옆 수정시장입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삼존불, 지장전 등)
- 공양간, 방3개 등 생활시설 일체
-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9278-598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 평수 290평, 실제평수 350평
- 대웅전 23.9평 요사 40평, 삼성각 2평
- 창건년도 35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 꼭하실분만 연락.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1-9536-9801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 1, 종무소, 공양실 1, 화장실 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9천만 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50평, 요사채30평
-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 가격 상관없이 하실 분 보고 결정

010-8957-8089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8천만원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대구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태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28평
- 1층 방3, 주방, 거실 /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범종, 소불 108위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3천, 월세 3천에 월 50만원

010-8611-7568

황토집 임대
- 위치 :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12평(거실겸 주방, 방1칸, 화장실)
- 밭에 온갖 약초 재배중 (필요하면 취식가능)
-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지내실 분 연락주세요

010-8591-107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호계시장 입구
- 평수 24평, 5층건물 3층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300) / 방2, 주방, CCTV 4대 설치
- 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세탁기 등, 주방집기 일체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369-3569
010-3136-8889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502
- 답 396평
- 사찰터
- 가액 : 2천 5백만원

010-8852-14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수안동 지하철, 버스 5분거리
- 4층건물 중 3층
- 3층 :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가능)

010-3664-138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대창면
- 대지 : 200평
- 건물 2동
- 삼존불, 탱화
- 가액 : 8,500만원

010-3595- 98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대로변
- 평수 : 약 40평
- 20년 운영중, 민원 없음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

010-5253-5292
031)242-85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 깨끗한 도량. 부지 380평
- 법당목조기와 26평, 산신각7평 황토방 7평, 요사채 52평
- 주차공간충분
- 가액 : 5억 5천

010-8564-9993

바다가 보이는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 전(관리지역) : 1014평 (건축허가 가능)
- 전기, 토목, 조경, 연못, 도로공사 완료
- 농막 허가(컨테이너) 1동 설치
- 가액 : 2억(대출 육천오백) (1억 3천5백 인수가능)

010-2002-1000

(장기)기도하실 청정 비구 비구니스님(임대)
- 위치 : 부산시 금정산 화지산 산하 작은 기도처
- 약 50평 주택(임법당)입니다
- 기도하실 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절은 비워둔 상태라 현재 신도는 없습니다
- 삼존불 모시고 있으며, 예전부터 관음기도 도량으로 기도성취 영험 가피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 모든시설은 완벽하며(시설비 없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방사가 하나인 관계로 (이사짐이 많으면 않됩니다)
- 가액: 4년계약(임대), 보증금 1천만원 월 10만원
- 초읍중학교 부근 오셔서 전화주세요

011-590-25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율곡면
- 법당 등 건물 4동, 토지 약 1,200평 정도
- 가액: 스님 와병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비구, 비구니 막론)께 협의 양도코자 함
- 기타 : 천안에 계신 스님 연락 바람!

055)931-9633
011-503-7692

사찰 수련장 명상센터
- 위치: 대구 -청도 중간 대구시내 25분거리
- 부자마을 앞, 뒷산 수려 주차 20대 가능
- 대지 265평, 건물 3동 40평, 건축 가능
- 가격 : 3억(절충가능)

010-6300-1782 강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조용하고 전망좋은 추후 불사하기 좋은 인법당
- 마당, 텃밭, 주차가능
- 법당, 공양간, 약사대불, 방 4
- 대지 281㎡
- 가액 : 3억 7천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사로 66-5번지
- 총 532평중(종교부지, 308평) 요사채 55평
- 목조 전통기와 단청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 산밑에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집기일체
- 가액 : 3억 5천

010-9944-1618
(010-8664-8259)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기 포천시
- 전세로 토굴 운영하실 조계종 스님 모십니다
- 가액 : 3천만원

010-9491-92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 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988-7242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국유지 임야 약 900만평
- 민자유치 특별건 공시가 평당 5백원
- 천혜자연 조건, 2차선 접한 명승지
- 임대 및 양도, 저금리융자
- 기타 다른 토지 상담후 결정

010-3288-1317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샤론 샐즈버그 · 로버트 서먼

〈2〉 두 번째 승리: 내부의 적

"아, 화가 나는군… 이건 그냥 화일뿐"

분노

분노의 반대는 자애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끝없이 다정한 마음이다. 분노와 증오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격렬히 맞서 싸우게 한다. 이 싸움은 그것과 계속 분리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분노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나는 이걸 그냥 이대로 참을 수 없어!"라고 외친다.

분노는 수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죄책감, 두려움, 적대감에서부터 초조, 실망, 불안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우리는 분노와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분노를 겁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에 따라 행동하는 것, 더 나쁘게는 분노에 휘둘리는 것이 해롭고 때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때때로 그 인정과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 양식을 매 순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한다. 감정을 인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두기 위해 종종 자기기만에 빠진다.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은 "유독한 원천에서 생겨나 강렬한 절정에 이르는 분노는 치명적으로 감미롭다."라고 말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감미로움은 고통을 동반한다. 분노 폭발이 주는 만족은 찰나적이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부인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단절감과 소외감도 분노 못지않게 고통스럽다. 그 단절감과 소외감 때문에 우리는 주변 세상과 멀어진다. 분노에 압도될 때 우리는 가해자나 해로운 상황과 자신을 떼어 놓음으로써 고통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이것이 외로움을 일으키고 벽을 쌓아서 우리를 충동적 대응과 분노 속에 가두어 버린다.

부처님은 분노가 산불처럼 스스로를 태워서 활활 타오른다고 말했다. 분노는 우리에게 상실감을 남기고 행복을 파괴하며 결코 원치 않는 곳에 우리를 내던진다. 우리는 그곳이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한다. 분노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먼저 우리는 적-문제나 개인이나 상황-에게서 떨어져 나와 그 적을 집요하게 응시한다. 이 분노 상태에 갇히면 시야가 좁아져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옛 격언인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와 같은 무상(無常)의 진리도 까맣게 잊는다. 그로 인해 '이것 원래 이렇고 영원히 이럴 거야'와 같은, 영속성을 고수하는 틀 속에 자신과 그 적을 가둔다. 대안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지금 직면한 고충이나 고통보다 더 큰 진리를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결국 무력감을 느끼며 무너진다.

하지만 분노도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우리가 잔학 행위나 불의에 직면했을 때 타오르는 분노는 무관심의 안개를 걷어 낼 수 있다. 내면의 악과 대면할 때 격렬한 분노는 그 이기적인 악이 활발해지지 못하게 변화를 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기도 한다.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도, 이해도,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절망에 찬 분노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할 용기를 준다. 분노는 맹점을 없애서 우리가 사회적 규칙들 그 너머를 보게 도와줄 수 있다. 분노한 사람은 때때로 조직 내에서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거나 위선을 거부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요컨대 우리가 독선적 분노나 폭발적 분노에 갇히지 않으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분노의 힘을 활용할 줄 안다면 분노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노의 그 모든 잠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은 규칙보다는 예외에 가깝다. 자주, 사실은 거의 항상 분노는 우리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닫아걸게 만들며 우리를 혼란하고 비통하고 외롭게 만든다. 마음챙김을 수행하면 분노와 협력하는 수많은 방법이 훤히 보인다. 대체로 우리는 자기 대화에 골몰하고 자신을 분노와 동일시한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복수하면 그는 망할 거야." 아니면 자기 비난의 길에 들어선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하지만 마음챙김을 행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화가 나는군. 이건 그냥 화야." 이런 종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분노를 풀어헤쳐서 그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 분노의 복합적이고 조건화되고 항상 변하는 본질이 보인다. 분노 속에 여러 가지 감정, 즉 슬픔과 두려움과 무력감과 불안 등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 보인다. 그 감정들 중 어느 것도 유쾌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를 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어서 우리는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맨 위층의 분노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감정들을 모두 인정할 때에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다.

분노의 본질을 통찰함에 따라 무상의 본질도 지각하게 된다. 또한 대단히 견고하고 결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들이 덧없음(evanescence)을 인식한다. 그 감정이 곧 지나가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그 감정의 힘을 차차 줄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충동적으로 서둘러 대응하느라 지금껏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열다섯 가지의 후회스러운 행동을 저지르는 대신, 바로 그 순간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세하게 감지하는 본능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이때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충동적 대응을 즉시 바꿀 수 있다.

역경을 통한 치유

절망에 빠진 시기에, 내 삶의 긍정적인 모든 것들과 단절됐다고 느꼈을 때 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실린 구절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힘들어하는 한 젊은이를 위로하기 위해 릴케는 이렇게 썼다. "그러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크나큰 슬픔이 솟아서 당신 앞을 가로막더라도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들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돼
마음챙김으로 분노 해결 가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삶이 나를 잊었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행 우주에 갇힌 느낌이다. 하지만 치유는 가장 깊은 슬픔에서 솟아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운 세상과 신뢰와 다시 연결된다. '영혼이 부서지지 않은' 우주로 다시 들어설 수 있다. 연결의 알아차림은 괴로움을 긍정적 변화로 바꾸는 길이 열린다. 당연히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고통은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다르게 견디는 것을 배운다. 고통을 살아 있음의 불가피한 일부, 형제자매와 공유한 시련, 그들과 이어 주는 끈으로 여긴다.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질적인 문제나 물리칠 가망이 없는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큰 슬픔이 적의를 양산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가족과 공동체에 자양분을 주도록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도덕적 성장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훈을 주도록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가 더 큰 맥락을 보고 수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손상되지 않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지향한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생이라는, 자연이라는, 진리라는 광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인정하게 된다. 모든 것이 유쾌해지지는 않는다. 별것 아닌 걸로 바뀌지도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는다. 이제는 일체감과 연결감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2001년 9월말, 뉴욕에서 명상 수업을 하고 있었다. 수업 중에 한 참석자가 말했다. "저는 소방관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도시에서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이었다. "그 높은 건물이 제 머리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은 달아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 나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 나갈 방법을 찾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오게 도와주었다. 그 소방관과 나는 좋은 친구가 됐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세계무역센터 자리 근처에서 9、11 테러 10주기 추모 행사의 일부로 내가 주도한 프로그램에서였다. 그 소방관이 그라운드제로 바로 옆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기꺼이 참석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크게 감동했다. 이 말을 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난 구멍을 바라보는 것은 그를 갈가리 찢는 고통이었다. 그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상처 주는 말

말로 상처를 입을 때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지만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모욕이나 비방, 경멸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사납게 공격하고 극도로 분개한다. 하지만 말이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그 고통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할 때에만 그렇다는 것을 필이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모욕이나 욕설에 분노하지 마라. 나를 자극하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그들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쾌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대적인 자들도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험담을 무시할 경우 명예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잃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는 명예를 지켜주거나 직업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분노는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며 오히려 냉철하고 영리하게 행동할 때 명예와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습관적인 분노 폭발이나 부정적인 행동은 가장 지독한 부상이나 죽음보다도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다. 이것을 깨닫고 결코 분노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 때에 진실로 고결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짐을 지키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다. 내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뛰어 넘어야 한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염려하며 습관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몰두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분노 억제에 투입한 에너지는 우리의 즉각적 목표를 향한 관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비난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한 그 비난에 개의치 않지만 우리가 표적이 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하지만 비난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탐욕스럽거나 분노하거나 오만하거나 야박하거나 편견이 심하거나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 비난은 이 정신적 중독들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정신적 중독에 철저히 동일시 돼 있으므로 그것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 해결책은 마음챙김 수행이다. 서로 엮여서 상대적 자아를 이루는 수많은 가닥들을 매 순간 세심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상대적 자아란 고정적이고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자아가 없는, 항상 변하는 실제 자아를 말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이 자아의 가닥들을 깨어서 자각함으로써 자신이 버리고 싶은 가닥들, 즉 내부의 적들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를 해치는 개인을 멀리 떼어 놓는 것과 똑같다.

해악이 닥칠 때마다 통찰하는 인내를 이용해서 그 상황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망상은 비난을 낳는다. 분노해서 말로 우리를 해친 상대방도, 독설로 똑같이 반격하ㄴ우리도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육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음을 통찰하지 못한다. 적이 불합리하게 공격했으므로 나는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는 적이 가한 해악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적이 나를 해친 더 깊은 이유는 과거 또는 전생에 대가 그에게 저지른 악행과 분노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진짜 이유를 감안한다면 이제 나와 그 적은 공평해지고 내가 정당화한 분노, 그 폭발적인 힘이 진정된다. 내가 그를 해치고 그가 나를 해치는 이 해악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분노 폭발을 자제하고 그 맹렬한 힘을 굳은 결심으로 바꿔서 인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잠깐 멈춘다. 이 찰나적 순간은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대응과 마음챙김에 기초한 현명한 대응 중에서 선택할 여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찰나적 순간은 계속 되풀이되면서 생의 연기를 이루는 끝없는 인과의 사슬에 연결돼 있다. 이것을 자각함으로써 그 짧은 순간의 무한성과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담앤북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895-2258

사찰(급)안내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요사,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 5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당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8653-3216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시장 인접 최적지
- 평수 : 60평
-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271평 중 법당 22평
- 칠보 5존불(석가, 미타, 관음, 지장, 약사) 칠보 호신불 204불
- 시청, 은행 등 모든 관공서 도보 10분거리
- 투자가치 높은 지상공원 확정, 빌라지역 • 가액: 8억

010-5019-5385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불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 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마당 정원시설, 정원석 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투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영남 범음. 범패 제4기 학인모집

본 범패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 내용**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작법무-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각사물 등..
- **교육과정** : 6개월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황리 224-2 해원사
- **문 의 처** : 010-5065-5690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범패 원장 재봉 합장

갤러리 색즉시공



마음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단다.
마음으로만 보이지….
……

마음의 집에서는 마음에 갇혀 있다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는 현대인의 비애

Buddha in Comic & Ani
㉒ Song의 〈미쳐 날뛰는 생활툰〉

웹툰(Web Toon)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용되는 아마추어 작가들도 적지 않다. 아랫목에 누워 배를 깔고 만화책을 보던 시대는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됐다.

웹툰의 특징은 만화의 구성 컷들을 빠르게 소비하는 데 있다. 양쪽으로 펼쳐 넘기면서 보던 출판 만화는 빠르게 보기 보다는 찬찬히 정독하며 감상했다. 하지만 웹툰은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 감상하기 때문에 한편을 보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같은 빠른 소비 방식은 컷을 매우 단조롭게 구성할 수 있게 했고, 스토리 역시 빠르게 이끌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빠른 스토리 전개를 특징으로 한 웹툰에서 가장 최적화 된 장르는 바로 '생활툰' 이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만화로 만드는 '생활툰' 은 짧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다른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의 소비 방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활툰은 주요 웹툰 사이트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작품 장르다.

사실 웹툰의 성장은 다양한 자기 이야기가 담긴 '생활툰' 의 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1세대 웹툰 작가인 강도영은 자기 주위의 엽기적 이야기들을 담아낸 〈일상다반사〉를, 캐릭터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정철연은 주변인을 의인화한 〈마린블루스〉를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후에도 김양수의 〈생활의 참견〉, 서나래의 〈낢이 사는 이야기〉, 김진의 〈나이스진 타임〉, 〈아랫집 시누이〉, 난다의 〈어쿠스틱 라이프〉 등이 꾸준히 연재되면서 생활툰 장르의 볼륨은 풍성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벌어진 각종 실수담, 육아 이야기, 어이없던 일들을 재미나게 풀어내면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수많은 생활툰 작가들은 매일 재미나는 일만 있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인생에 있어 '희노애락' 은 기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질문을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이 최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마친 Song의 〈미쳐 날뛰는 생활툰〉이다. 총 36화로 이뤄진 작품은 '생활툰'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은 만화가를 꿈꾸는 미대생 주인공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주변인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 회의 전개도 진짜 주인공의 이야기와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이뤄진 생활툰으로 나눠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주인공의 웹툰은 주변인들과의 간극을 만들어 내고 어렵게 베스트 도전까지 올라 정식 작가 데뷔를 눈앞에 두지만 허위유포에 스스로 좌절하고 만다. 결국 주인공은 생활툰을 접고 자신이 처음 구상했던 만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며 이야기는 끝난다.

생활툰은 기본적으로 '엿보기' 를 전제로 한다. 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공해 독자들에게 소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팍팍한 삶 속에서 있는 현대인들이

'웃겨야 사는' 생활툰 작가의
이중적 삶을 상반되게 표현
'진정한 자신' 에 대한 고찰 전해

생활툰의 즐거운 일상을 동경하고 이를 바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소비다. 이는 SNS시대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다.

한상기의 저서 〈소셜미디어 특강〉에서는 SNS에 대한 기본적 욕구에 대해 "SNS에서 사람들이 표현하려는 기본 욕망은 자기도취이고 채우고자 하는 것은 관음증"이라고 풀이한다. 대중이 생활툰을 소비하는 것은 행복한 일상에 대한 바람에서 나온다. SNS를 통해 타인에 삶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호기심과 동경에 있다. 작가는 이 같은 욕구를 부응해야 하는 창작자다.



〈미쳐 날뛰는 생활툰〉에서 주인공이 그리는 웹툰〈사진 왼쪽〉과 진짜 자신의 이야기〈사진 오른쪽〉. 상반된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무엇이 진짜 자신인지를 되물어 본다.

작가는 후기에 이렇게 기록한다. "광대도, 연예인도, 소설가도 아닌 생활툰 작가만의 중도는 어디쯤일까요? 자기를 그리는 모습과 자기 자신의 거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고 지켜야 할 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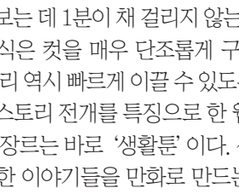
생활툰 작가의 삶만 그러할까. 현대인 역시 무수한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 연인 사이에서 나' 등 수많은 관계 맺음 속에서 거기에 맞는 자신을 연기한다. 〈미쳐 날뛰는 생활툰〉은 대중 속에 매몰돼 있는 '나' 는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물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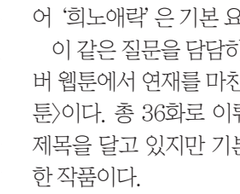
온오프라인에서 가면을 치장하기에 바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대열반경〉에는 이 같은 경구가 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공연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만 치장하지도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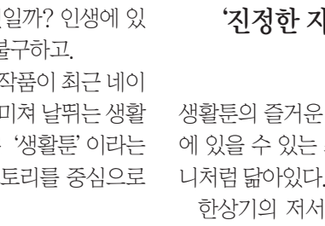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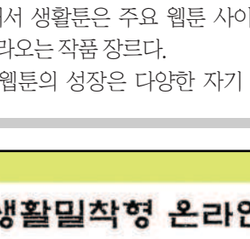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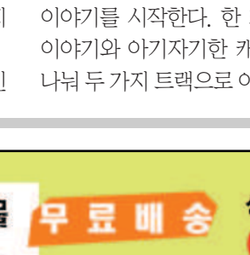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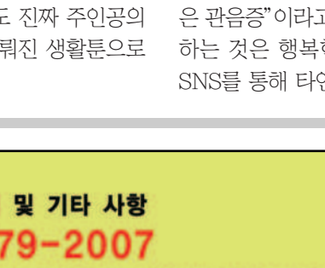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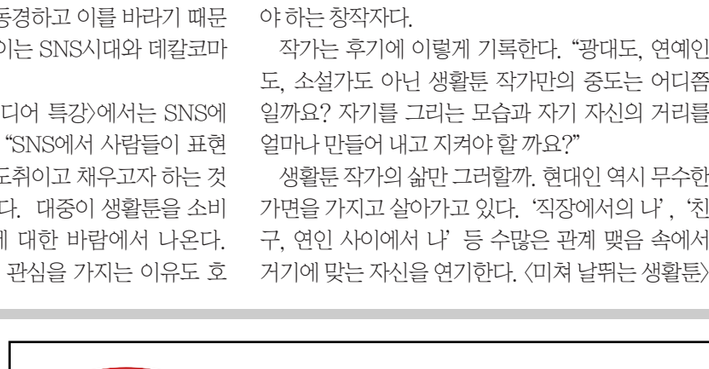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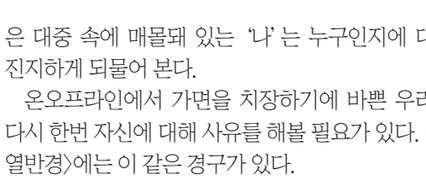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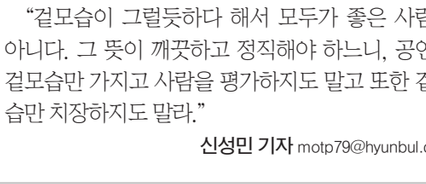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10개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택배비 별도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대행 스님

말로써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속의 진의를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각과 공덕, 비밀 정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큰스님: 생각의 비밀?

질문자3(남): 생각과 공덕, 비밀 정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비밀 정토라…. 그건 공덕이 되는 것도 둘로 보지 않는 거. 일체 모습이 내 모습과 둘이 아니고 일체 차원을 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차원이라면 아주 어리석은 1차원 2차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닥쳤으면 내가 어리석어 주고, 똑똑한 사람이 앞에 닥치면 내가 똑똑해지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돼 주란 얘깁니다. 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가 공덕입니다. 공덕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정토의 비밀도 그 마음이 그래서, 모든 육체 안에 있는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즉, '법가지' 또는 '보현가지' 또는 '자비가지' 이 가지 가지가 전부 보살로 화해서 그 응신이 돼 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 정토죠. 이 모두가 남의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가 할 일 꾸준히 그냥 진실로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밀 정토를 알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때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질문자3(남): 좋습니다.

큰스님: 허허허허.

질문자3(남): 부처와 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큰스님: 부처라는 것도 이 세상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댁의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 생명들이 있는데 댁이 봤다고 해서 혼자 본 겁니까, 들었다고 해서 혼자 들은 겁니까, 움죽거렸다고 그래서 혼자 움죽거린 겁니까? 전체가 다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움죽거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나 혼자라도 혼자 '나'가 아니거든요.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한 덩어리의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먹었을 때 어떤 게 물을 먹었을까?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겁니까? 더불어 같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건 영,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응해 주는 그 마음이 부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뭐든지, 내가 됐다 내가 했다, 내가 간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인 까닭에 도는 거기에서, 부처가 그냥 생활하고 그냥 가는 게 전부 도지 도 아닌 게 없죠, 또.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생각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 도의 근원이 되고 그 근원에서 일거수일투족 그 공법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도'라고 하죠.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서 여기에다가, 알더라도 거기다 그냥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서 그 속의 진의를 알게끔 스스로서 자꾸 만들어 나가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4(남): 아까 누군가 살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듣고 큰스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전에 한번 제가 살생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던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휴가 받아서 진주에 내려갔습니다. 집이 진주니까. 내려갔는데 진주지원에서 사나흘을 왔다 갔다 다니다가 휴가 끝나는 날 제가 차를 몰고 진주에 장 총무님이라는 분하고 진주 시내로, 진주지원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도로로 뛰어드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속도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미 토끼가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늦었구나 싶어서 토끼를 차 바퀴 그 안으로 지나치려고 그냥 그대로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그 안에서 계속 뛰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오른쪽 바퀴에 토끼가 밟혀서 물컹하는 걸 제가 느끼고 순간 '아, 밟았구나.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핸들에 머리를 박고는 한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선원에 다니면서 책 같은 걸 읽어도 '어쩔 수 없이 생물을 죽여도 주인공 네가 한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더 좋은 몸 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글귀를 몰랐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너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5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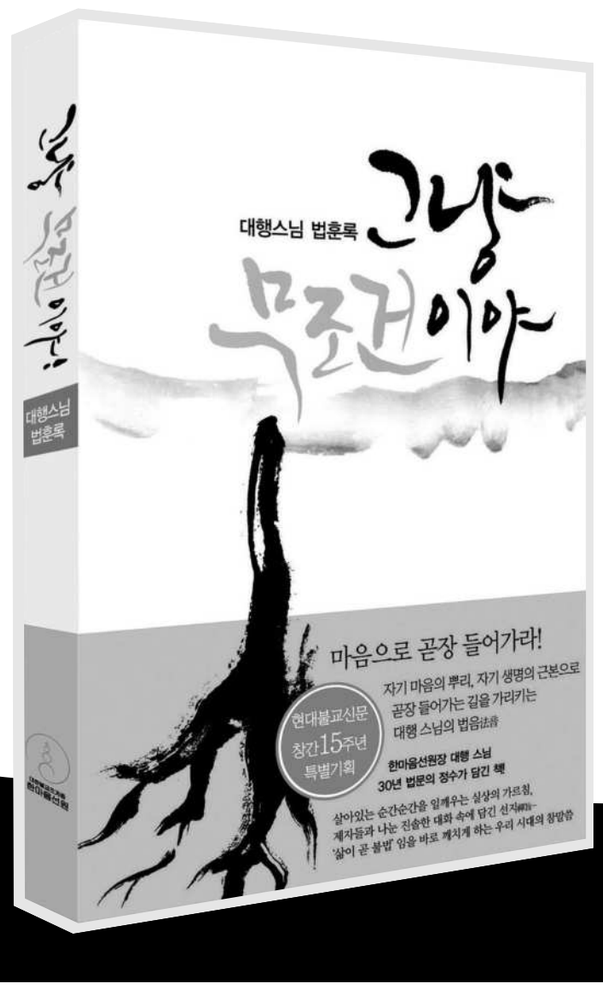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옆에 장 처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차를 다시 돌려서 헤드라이트를 비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토낀데, 토끼 창자는 이쪽에 있고 껍데기는 저쪽에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깐 저것도 시체데 치워 줘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니깐 그 내장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 처사님하고 같이 옆으로 치우고는, 제 차 트렁크에 선원에서 나온 접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숲에 덮어 두고는, 무덤 대신 해 주고 왔는데 그 뒤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큰스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다가 제가 순간 느낀 게 뭐냐 하면 '주인공을 굳게 믿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인공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믿고 나가라.' 고 큰스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는데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선원에 다니며 주인공 공부를 한다면서 그 순간 제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어.' 하는 믿음도 바로 나왔겠죠. 그러지 못했던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아까 그 개구리 얘기 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 토끼 생각이 갑자기 나서, 질문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토끼 사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생물을 죽이면 안 되고 생물을 죽이면 천벌을 받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오직 한 구멍에 모든 걸 입력하면 큰 보배력 얻을 수 있다

☞ 29면에서 계속

는다. 그런 관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 토끼가 그런 관념을 조금이라도 깨는 데 저한테는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여러 해 다녔지만 오늘 질문이 처음입니다, 대법회에서 하는 건. 꼭 하고 싶었습니다. 큰스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 토끼가 달아나는 걸 잡으러 가서 죽인 게 아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소치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묵묵히 그것을 애처로워했으니깐요. 무슨 주인공이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도 벌써 마음속으로 그렇게 애처로워서 애를 썼으니까요. 그 토끼는 위안을 받고 천도가 되고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네요. 하하하.

그것이 쫓아가서 죽이지 말라 한 거지 각중에 들이덤벼서 어쩔 수 없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내 생명같이 아끼고 내 생명같이 애처로워해 주면 그것이 다 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주인공이란 그 이름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댁의 마음이 주인공이니까. 하하하. (대중 스님들 쪽을 보시며) 여기서들은 질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허허. 내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대중: 예.

큰스님: 옛날 얘기 그렇게 좋아요? 하하하. 옛날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구박을 하는지 불도 제때에 때 드리지 않고, 먹을 것도 제때에 주지 않고 만날 구박하니까 그냥, 병상에 누워서 꼿꼿이 말라서 있거든요.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 양쪽을 다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를 연구한 거예요. 아내도 살리고 자기 어머니도 살리고, 이거를 양쪽을 다 살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온 사흘을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가 '옳지!' 그러곤 그냥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찌감치 장엘 갔다온 거예요. 장에 갈 일도 없는데.

장엘 갔다 와서 자기 부인을 부른 거죠. 불러서 귓속에다 대고 "여보, 남이 들을까 봐 무섭소."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장에 가니까 살이 통통 찐 노인네들을 데리고 와서 파는데, 하하하, 소 30마리 값을 모두 받더라 이랬거든요. 그러고는 귓속에다 대고 누가 들을까 봐 무섭다고 "당신 마음은 어때?" 그러니까 "아유, 해야죠." 30마리 값이면 얼만데, 놓칠 수가 있나 이러면서 며느리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제 씨가 먹히는구나.' 그러고선 빙그레 속으로는 웃으면서 다시 한마디 들어 본 거예요. "자네, 그래 오늘부터 어떻게, 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죠." 하더니만 그냥 간식으로 밤을 삶아서 꿀에다 재어서 드리지 않나, 갖은 노력을 다하고 방이 뜨거운가 찬가 손을 항상 넣어 보고 그냥 이거는 뭐 말도 못하거든요, 그냥. 보약을 지어다가 드린다 뭐 온통 야단을 하니까 금새 깨상해서 나았단 말이야.

나으니까는 어린애를 업고 나가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하기에 침이 마르지. 며느리는 살찌워서 팔려고, 허허허, 침이 마르게 그냥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신랑은 '아, 다행이다. 어머니가 저렇게 깨상하셔서 다니시니 참 다행이다.' 하고는 속으로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살도 이제 그냥 원만히 찌고 아 뭐, 얼마나 잘해 드렸는지. 그래서 며느리가 아주 계획을 세웠죠. 아주 요 다음 장에는 꼭…, 하하하, 가지고 나가서 팔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그러던 차에 나라에서 효부라고, 효부문을 세워 준다고 난리가 났거든.

그냥 뭐, 효부문을 세우고 나라에서 선물을 모두 갖다 주고 상을 갖다 주고 상장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갖다 팔래도 못 팔게 됐네." 하하하,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글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그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어리석은 마음에도 내다 팔 수가 없거든. 팔면 탄로가 날 테니까. 그래서 못 팔고 그냥 효부가 됐더래. 하하하하.

그러니 그 남편이 오직 한마음으로써 연구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고 양편을 다 살렸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일념으로서 오직 '나는 살찌워서 장에 갖다 팔겠다. 팔면 큰 돈을 받는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깁니다. 하하하.

모든 게 이렇게, 그저 한군데 밖엔 없으니깐요.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나온 자리로 파고 들어야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죠. 그래서 저승 이승 양면을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왕래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진다. 그걸 아니까 벗어진다. 벗어지게 되면 구경에 이르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모두가 그냥 그 평등하고도 공법에 의해서 용무를 스스로서 걸림 없이 끝간 데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거죠. 내가 수만 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수천 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응신이 돼서 그 사람한테 몸을 빌려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응하게끔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자유자재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유자재권이라고 했겠습니까?

>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 내가 나온 자리로 파고 들어야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죠.
> 그래서 저승 이승 양면을 들고 나고 들고 나고
> 왕래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지고
> 벗어지게 되면 구경에 이르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이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대권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부처님께서 수없이 자기가 걸어온 길과 더불어 배운 길과 깨달은 길, 그 도리를 상세히 일러 줬는데도 너무나 그냥…. 요즘 화엄경 풀이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많은 가지를 접해 놨는데 가지가 많으면요, 잎새가 많으면 오히려 뿌리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그 종자의 뿌리가 바로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길러서 팔아먹으면 돈이 많이 나온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곤 그냥, 그냥 정성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공을 했죠. 그러니깐 나중에는 팔아먹는 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효부문이 나온 거죠, 거기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데서 거기서 효부문이 나온 거죠. 팔아먹게 된 거는 싹 없어지고 그렇게 보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모르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오직 한 구멍을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을 한다면 현실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스스로서 능력 있게 자재할 것이요, 또는 세세생생에 자유권을 얻을 것이요. 자기는 모르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큰 보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내가 어디서 그렇게 옛날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요.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허허허. 그럼…. 아, 내가 꼭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신문사에 신문을 하나씩 구독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건 어느 때고 모자라면 이 선원 속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구독을 해주신다면 내가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즉 말하자면 불사하는 데 보시니깐요. 그러니깐 어려운 사람들도 그것을 보시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많이 갖다가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하나하나 하는 정성이 아마 더 귀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항상…, 지금 이 스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신행회 법회를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또 나가서 구역구역이 또 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별로다가만 나가서 법회를 스님네들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스님네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거든요. 신행회 법회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듣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법회를 하더라도 실천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참 군색하고 일이 생기고 폐단이 집안에 많으면 돌탑 위에도 돌을 하나 올려놓고 절을 하고 가죠? 속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스님네들이, 내 제자인 스님네들이 나갈 때는 나는 항상 거기에 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내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속에는 제자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합해서 둘 아니게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섭섭한 마음이 상당히 들 때가 많아요. 왜냐? 모습을 보고 좀 무시하게 되죠. 스님은 작은 스님이니깐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는 수가 많죠. 그렇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럴까 봐 내가 그럽니다. 예. 허허허.

돌부처에도, 아무 말도 없고 모습도 아무렇게나 우그러진 그 돌부처에다 정성을 지극하게 하는 건 각자의 자기 마음들입니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우주 법계에도 통신이 돼서 알게 됨으로써 전부 만물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정성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네들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스님들의 마음도 역시 똑같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허, 100%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면 벌써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깐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작은 스님으로도 보지 말고 큰스님으로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100% 아마 공덕을 받을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무척 그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같이 생각하라. 나의 모습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둘로 보지 말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써 스님네가 들어오는 거 보면 '으이그, 으이그.'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난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하하. 그러실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대놓고 그때그때에 얘기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 쭉 내려오면서 지켜봤습니다. 지금 여기 스님네들이 내가 뚱딴지같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거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행회를 구역별로 나가서 하는데 신행회에 스님네들이 들어갑니다. 둘로 보는 모든 걸 이 시간부터 없애시고 친근하게, 서로가 똑같이. 한 몸뚱이 속에 한 개체로 살아나가는 그 몸뚱이는 바로 이 스님이나 당신들 몸뚱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동생 내 형, 또 내 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6년 1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불자 세상보기

언 땅을 녹이는 건 봄 햇살



남지심
소설가

내가 잘 아는 부인은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IMF 이후 남편의 사업이 급속도로 기울어져 마침내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서울근교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몰락한 그녀한테 돈을 빌려줄 지인들이 있을 턱이 없었다.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없는데 돈을 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부인은 그 때 '돈을 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자.' 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그 수모의 순간들을 넘겼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집에 가서 김장을 거들어 주고 김치를 얻어 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데 여의도 쪽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뼈 속까지 파고드는 쓸쓸 함, 지구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같은 쓸쓸함에 마지막 잡고 있던 삶의 끈마저 놓아 버리고 싶어지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은 이런 말로 자신의 심경을 설명했다.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도와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버둥 칠 힘마저 지탱할 힘이 없어지니까요.'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부인은 옛날의 중산층으로 다시 돌아 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부인은 가난을 알았다는 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그 때의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심이 담긴 따뜻한 손으로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믿으며 주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

이 차가운 세모(歲暮)에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엔 분명히 있다. 어쩌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부처님 법을 떠들어대고 있다면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는지? 남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잘살기란 쉽지가 않다. 내가 나를 인정할 만큼 잘살기란 그보다 훨씬 더 쉽지가 않다. 우리 모두는 잘살기 위해 살고 있는데 참으로 잘살기란 이렇게 쉽지 않으니,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하고 다음 해를 맞아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

나는 가끔 친지 집에서 김장을 해주고 김치 몇 포기를 얻어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불꽃놀이 축제를 보고 지구 밖으로 쫓겨난 것 같은 쓸쓸함을 느꼈던 부인 모습을 떠 올려본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내 입에서 나오는 현학적인 말들이 누구의 가슴을 쓸쓸하게 해 주는 불꽃놀이는 아닌지, 하고 말이다.

우리의 욕망은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군림에 맞춰져 있다. 끝없이 이것들을 향해 질주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한다. 불꽃놀이 축제를 벌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을 쓸쓸하게 만들면서, 삶의 줄을 놓고 싶을 만큼 쓸쓸하게 만들면서 행복감을 느끼다니, 우린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유한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 우린 시간의 개념을 받아 드리고 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면 할수록 삶이 정화되어 지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이 1년을 마감하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흘려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며칠을 잘 보냄으로써 우린 금년 한 해의 자신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그건 생명에 대한 따뜻함, 내 안의 온기다. 우리가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 세포가 3배로 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자비심을 1도 높이면 그 자비심은 내 안의 사악함을 제거하는 몇 배의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짓는 따뜻한 표정,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언 마음을 녹여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듯, 내 안의 자비심은 내 언 마음을 녹여 내 안의 사악함을 제거시켜 준다.

베푼다는 것은 남의 언 마음을, 내 안의 언 마음을 함께 녹이는 봄 햇살이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세모(歲暮)에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 돌려 그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따뜻한 봄 햇살이 되자. 나도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절박한 순간이 있었듯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이웃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해 부디 눈 감지 마시기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파리 기메박물관 간화선 행사를 회향하며

파리에서 꽃 피운 한국불교 간화선



혜원 스님
파리 길상사 주지

프랑스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기메 동양 박물관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 선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본 행사를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초청돼 간화선 실참 및 강연회를 진행했으며, 프랑스 땅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한국 선불교 전통을 알리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됐다.

기메 동양 박물관은 1889년 창설자 에밀 기메에 의해 설립될 당시부터 아시아의 종교, 특히 불교 문화를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곳으로, 1891년 본 박물관 도서관에서 최초로 거행된 불교 의식은 당시 프랑스의 저명 인사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고 박물관의 기록에 남아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 기메 박물관에서는 한국 선불교 문화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으며, 지난 1년간 여러 지인들의 크고 작은 손길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여법하게 치룰 수 있었다. 특히, 전통 문화재 수리와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도화원' 소속 장인들이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5m 높이에 해당하는 괘불을 제작해 법연에 참석한 대중들로 하여금 괘불의 위용 앞에서 찬탄과 환희심을 자아냈다.

괘불로 장엄이 된 행사장은 이름 그대로 부처님을 모시는 붓다관으로 변모하였으며, 바로 이 자리에서 3일간에 걸쳐 수불 스님의 지도하에 800여년에 걸쳐 전승돼 온 간화선 수행의 요체와 수행방법이 현지인들에게 소개돼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행사를 준비한 필자로서도 의아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번 행사에 관심을 보였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다. 이에 대한 해답은 기메 행사가 단일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기메 박물관 측이 정한 주제인 '21세기에 선(禪)을 가르치다'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간화선이라는 전통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살아 숨쉬는 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훌륭하신 선사들 가운데 수불 스님을 초청해 간화선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에 대해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메 박물관 측의 취지와 관심은 소피 마카리우 관장의 행사 브로셔에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시아의 전통을 알리고 가장 숭고한 예술적 표현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선사들과 마음을 터놓고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불 스님을 모시고 기메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본 행사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으로 정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기메 박물관이 설립된 19세기 말, 우리 이웃 나라 불교들이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에서 소개가 될 당시, 한국 불교는 근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산중 불교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최초로 한국 선사를 모시고 간화선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행사는 한국 불교가 기메 동양 박물관의 역사에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이 시대에 한국 불교가 외래 문화와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준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법의 꽃비가 프랑스에 흠뻑 내리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간화선이 더욱 널리 보급되기를 발원해본다.

社說

국고 보조금 투명 집행 당연

조계종이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 보조금이 493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34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200억원이 책정돼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역화 불사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고, 조계사 일대를 해원 ·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천명했다.

내년 10월 8~11일 개최할 예정인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 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 9억 원의 예산이, 동국대가 108주년 기념관 내에 건립할 예정인 '세계불교센터 건립' 에는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연등축제 활성화, 전통사찰 전수조사, 호국불교의승군 기념관 건립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단순히 종단을 통한 집계라 일선 사찰과 불교 단체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종교단체에게 이뤄지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 옳은가, 그른가' 에 대해서는 차제하더라도 국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국고 보조금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 쉽게 얻을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중요한 정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님들이 국고 보조금을 유용해 물의를 빚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1월 2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 지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은 "소득세 납부 등 종교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의 이행은 외면하면서 국고보조금이라는 권리만 챙기려는 태도는 종교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라면 제대로 집행해 사회에 회향할 수 있어야 한다. 엄정한 국고 보조금 집행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불교 국제개발협력 협의회 발족 환영

20년전부터 불교계는 해외구호활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각 단체들의 역량은 이제 웬만한 구호단체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으면 더욱더 큰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 꿈이 내년에 실현된다. 2015년 2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활동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축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경스님)은 11월 2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협의회 구축을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를 갖고 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함께 내년 2월에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연우 등 6개 단체로 구성됐다. 불교계에는 현재 30여 기관 및 단체들이 직 · 간접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교계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했고 개별 기관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단체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증대돼왔다.

이에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월 1회 활동가 정기모임을 진행, 해외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시도해 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7개 단체 20여명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 캠프를 열기도 했다.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없다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의회 구성은 국제개발 및 구호활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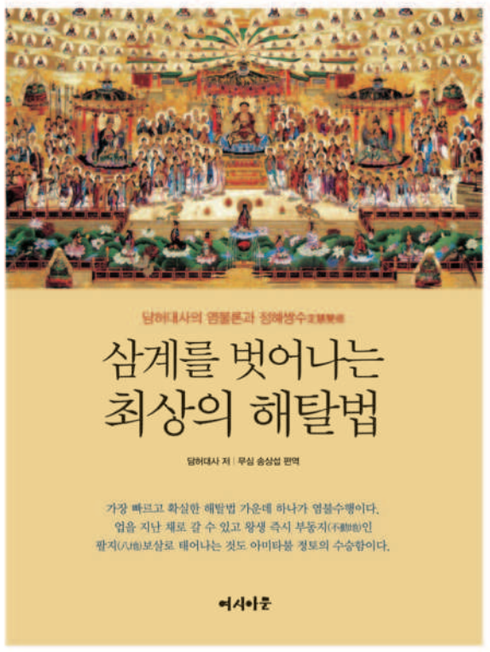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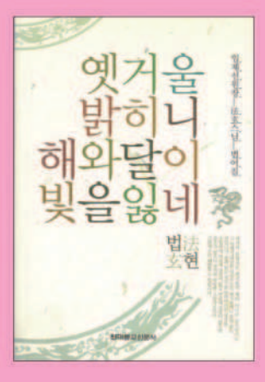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